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 효원 영어영문학

| 2020. 2 | 제 38 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효원영어영문학

제 38 호

2020. 2

---

## 목 차

세계 문학으로 읽는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 ..... 권 요 안 나 / 1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급진적 대항으로서의 『젠더 트러블』 ..... 이 선 현 / 17
‘미국 불사조’와 ‘버펄로’ 대신 ‘망명들의 바다’로 - 콜슨 화이트헤드의 『제1구역』 읽기 ..... 정 희 연 / 35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부정문 중의성 이해도에 관한 연구 ..... 김 요 한 / 51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 박 재 은 / 79
공손 표현에 대한 경어법 번역 전략 - 텍스트의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 ..... 이 숙 자 / 105
상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한 아동문학의 재번역 양상에 관한 소고 -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반영도를 중심으로 ..... 이 혜 은 / 125
2018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 153
2019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 155

---



## 세계 문학으로 읽는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

권요안 나

### 1. 세계문학 이해하며 들어가기

현대의 세계는 빠른 이동의 속도와 통신 등의 발달로 지리적, 문화적 이동과 같은 교류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일상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로컬의 정치, 경제, 문화는 경계를 넘어서 외부로 뻗어 나가며, 역으로 외부의 것들은 로컬로 스며든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컬은 외부와 상호간의 관계 속에 있게 되며 글로벌 역시 로컬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더불어 민족적인 특성은 하나의 지역적 의미에서 로컬에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편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다. 그 예로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자신이 거주하던 로컬을 떠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민족성을 완전히 버릴 수 없으며 새로이 간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받아들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들을 세계시민이라 할 수 있다.

스토어 학과가 시작하고 칸트가 다시 발견한 세계시민주의의 발현이 지금의 세계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 세계시민이라는 의미에는 혼종성(hybridity)<sup>1)</sup>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국가의 경계는 항상 이중적인 시간성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침전물에 의해 구성되는 동일성의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정체성의 의미작용의 과정에서 동일성을 상

---

1) 이질적인 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현상을 지칭하는 “혼종성이라는 단어는 지구화의 시대 문화연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단일하고 동질적인 국민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들 간의 횡단과 혼종이 문화소통과 교류의 강력한 힘으로 등장하면서 문화가 특정한 국민문화에만 귀속되던 시대는 서서히 종언을 고하고 있다.” (『혼종문화론』 281) 이러한 혼종화의 현상은 시대를 보여주고 문학은 이를 반영한다.

실한다고 주장하였다(Bhabha 153). 이렇듯 고유의 역사성이 쌓이기도 하며, 외부의 영향으로 그것을 상실하기도 하는 혼종성은 경계를 흐리게 하는 특성을 지닌 세계시민주의와 떼어놓을 수 없다. 나아가 문학의 세계 역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문학작품과 작가의 세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세계문학이라 부르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문학은 세계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혼종성이 발견되는 문학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세계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적 근대성을 지나며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문학을 세계문학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흐려지고 있으며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진정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로컬의 문화, 문학, 인제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과 세계적인 문화, 문학, 인재의 경계가 넘는 이동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로컬의 문학은 세계문학이 되고, 세계적인 문학은 로컬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세계적이라 여기던 것들을 살펴보면 로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미 세계가 여러 통로를 통한 이동으로 혼종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문학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세계문학 안에서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 또한 세계문학의 연구는 번역과 관련하여 논의를 펼쳐나가며 현재의 문화시장을 탐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문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들 중 파스칼 카자노바(Pascale Casanova)와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은 세계문학에 대한 구조적인 체계를 통해 세계문학을 위치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데, 비가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문학의 공간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공간을 상징하고 세계문학을 논하였다. 그리고 레베카 워코위츠(Rebecca L. Walkowitz)가 『태생적 번역문학』(*Born Translated* 2015)에서의 세계문학을 번역과 관련하여 주장하였다.

카자노바는 “세계문학 공간(world literary space)”(123)이라는 공간 안에서 세계문학을 논한다. 카자노바가 말하는 중심이란 노벨문학의 객관적 지표가 작동하는 공간, 문학적 현재를 결정하는 문학의 그리니치 자오선이 작동하는 공간이다(카자노바 126-27). 이러한 “세계문학 공간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경쟁과 투쟁을 통해 세계문학의 출현을 설명”(김용규 210)하였다. 카자노바는 세계문학의 중심부에서 작동하는 객관적 지표로 노벨문학상을 말한다. 그녀가 지적하였듯 노벨문학상은 관련한 외교 전략, 국민적 기대감의 형성,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성, 스웨덴 심사위원들의 객관성 결여와 정치적 편견, 그리고 미학적

오류들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학 공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지표이다(126). 그에 더하여 카자노바는 문학적 현재가 결정되는 중심부와 관계되는 위치를 논한다. 모든 위치는 문학적 현재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을 문학의 그리니치 자오선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 그녀가 말하는 문학적 자오선은 우리가 문학적 공간 내의 주인공들이 중심부로부터 취하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한 문학적 시간의 측정은 측정 대상 문학이 ‘현재적인 것’, 즉 성공적인 현대적인 문학으로 선언된다(카자노바 126-27). 이러한 측정이라는 것은 노벨 문학상과 같은 다양한 입문의 경쟁의 장을 통하게 되며 세계의 수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 투쟁을 벌인다. 그렇기에 “문학의 그리니치 자오선은 중심부 문학의 원리이자 주변부 작가들이 내면화하고 싶은, 즉 그들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김용규 222) 이렇듯 카자노바에 따르면 로컬의 문학이 세계적인 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치열한 투쟁의 장인 중심부의 세계문학 공간에 들어가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중심의 인정을 거쳐 세계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레티 역시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을 통해 세계문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차이가 있는데, 카자노바는 구심적 성격의 세계문학 모델을 제시한 반면, 모레티는 중심부의 문학 형식들이 주변부로 이동하면서 지역적 제재들과 마주치는 타협(간섭)의 지점, 즉 원심적 경향에 초점을 둔다(김용규 225). 즉 카자노바와 마찬가지로 서구를 문학의 중심부로 두고는 있으나, 모레티는 중심부의 문학 형식들이 주변으로 이동하여 주변의 문학 형식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심부를 벗어난 문학은 주변부에 이르게 되며 카자노바가 주장한 중심부는 주변부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주변부에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마주치는 무수히 많은 지점들이 발생되고 그러한 지점을 세계문학이 탄생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세계문학이 발생하는 이러한 지점에 대한 설명을 모레티는 나무와 파동의 은유로 설명한다. 나무는 통일성에서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무는 무수히 많은 가지로 뻗어나가듯 다양한 언어의 문학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한편 파동은 다양성을 집어 삼키는 단일성을 나타낸다고 모레티는 설명한다(60). 카자노바는 파동의 예로 영화산업이나 언어의 문체를 들고 있다. 그의 말처럼 거대한 영화 산업은 세계의 영화들을 삼키고 있으며, 영어가 다른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파동의 예가 될 수 있다. “서구적 형식이 수많은 민족문학들과 만나 타협한다는 점에서 나무와 유사하다면,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 속으로 단일화 하고 하나로 통일한다는 점에서 세계체계는

과동에 가깝다.”(김용규 227) 다시 말해 모레티가 그리는 세계문학은 다양성의 발현과 사라짐의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위코위츠는 세계문학을 번역과 더불어 살피고 있다. 번역은 현시대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세계문학으로의 출발지점이라 할 수 있다. 위코위츠가 말했듯 이미 인터넷의 번역 사이트는 상당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동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와 책의 문화시장에서 번역이 차지하는 영역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요즘 많은 책들은 하나의 언어로 세상에 나오지 않으며, 동시에 다양한 언어로 출판된다. 이렇듯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는 문학 작품들은 시작에서부터 세계문학으로 문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Walkowitz 1-2). 현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번역이라는 위코위츠의 주장은 세계문학이 ‘현재적인 것’이라 주장했던 카자노바와 외형적으로는 다른 것에 기대어 있지만 일정부분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세계문학은 번역을 통해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문학 작품을 포함한 문화 시장은 현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문학은 민족적 성질을 해체하고, 정치적, 문화적 혼종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질의 요소들에서 균질화를 생산한다. 위코위츠가 주장하듯 세계문학을 생각할 때 번역은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균질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것의 배경에는 번역이 독자들의 독해를 위해 지역적 표현이나 언어적인 복잡함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93). 이러한 균질화는 공감대의 형성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으며, 위코위츠는 번역된 작품들로 구성되는 세계문학은 상상의 공동체<sup>2)</sup>를 만들어간다고 주장한다(26). 그녀가 주장하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번역을 위해 또는 번역으로 탄생한 작품은 세계의 독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는 대신 민족적인 성질을 잃게 된다. 이러하듯 더 이상 문학작품은 민족을 대표한다는 논리에 부합하지 않으며(30) 그러기에 세계문학의 공간은 더 이상 민족과 같은 가시적인 범위를 벗어나 비가시적인 연결망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영역을 번역과 더불어 넓혀가며 독자들의 공감대를 확장해 간다.

2) 앤더슨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활자화된 문화(print culture), 특히 소설과 신문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상상의 국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설명한다(Walkowitz 26). 이렇듯 쓰고 읽는 행위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며 상상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번역은 요구되며, 번역은 한 지역사회와 다른 지역 사회의 개념적 경계에 압력을 가하며 새로운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을 촉발 시킬 수 있다(29).

지금까지 세계문학의 담론을 이루는 세 명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의 작품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와 『남아 있는 나날』(*The Remains of the Day* 1988)이 가진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논하도록 하겠다.

## 2. 세계문학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

위에서 살펴본 카자노바와 모레티가 주장하는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을 들 수 있다. 이를 집필한 작가 이시구로는 1954년 일본에서 태어나 1958년 5살의 나이에 부모님과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 후로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영국에서 활동하는 일본계 영국인 작가이다. 그렇기에 그는 영국인이면서 일본인이기도 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한 세계시민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듯 일본과 영국이라는 다른 두 문화를 기저에 두고 있는 그의 작품 활동의 형태는 모레티가 말하는 파동과도 같이 보인다. 그 예로 모레티가 “영어가 다른 언어를 삼켜버린다”(Moretti 60)고 말하였듯 그의 첫 번째 언어는 일본어 이었지만, 그의 작품이 영어로 쓰여 지듯이 지금의 그의 언어는 영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카자노바가 말하는 그리니치 자오선이 작동하는 유럽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이다. 게다가 이미 1장에서 언급하였듯 카자노바가 말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확고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작품은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인정받은 세계문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그의 작품에는 모레티가 말한 나무의 가지들이 존재한다. 모레티는 세계문학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뺏어나가듯 중심의 문학이 세계로 뺏어나가는 것을 주장하며 로컬의 다양성을 담고 있는 세계문학을 논하였다. 즉 영국이라는 중심부의 문학 작품이면서 주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국 문화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시구로는 카렌 그리스비 베이츠(Karen Grigsby Bate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영국 사람으로 교육받고 자랐으나, 집에서는 일본인 부모님과 일본어를 말했으며 이민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다음 2년 안에 일본으로 돌아갈 방문객으로 살았다고 한다(Shaffer, Wong 200). 그리고 1989년 그람 스위프트(Graham Swift)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시구로는 방문객으로 살아온 자신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하며, 혼종된 문화적인 배경과 혼종된 인종적인 배경을 지닌 세기 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도 혼종적인 것이 균질적인(homogeneous)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35-36). 이렇듯 이시구로의 작품을 다양한 배경이 혼합된 혼종적 특징을 지닌 방문객으로서 영국을 관찰하면서 창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는 중심부의 문학이면서 주변부의 시선의 간섭이 마주치는 세계문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이시구로의 작품은 작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충분히 논할 수 있다. 이어서 이시구로의 두 작품을 분석하면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밝힌다.

『나를 보내지 마』는 원본과 복제의 가치가 균질화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번역본의 가치를 복제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이해하게 하면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보인다. 2005년에 스페인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몇몇 다른 언어들로 출판된 『나를 보내지 마』는 원래가 아닌 것(unoriginal)의 표현의 가치에 관한 책이다(Walkowitz 101). 이 작품은 클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작품의 화자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클론, 캐시(Kathy H.)이며 주요한 인물들은 클론들이다. 캐시는 헤일섬(Hailsham) 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동안 장기 이식을 위해 수술을 하고 있는 클론을 간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 학교생활부터 지금의 서른 한 살의 간병인의 삶까지를 말하는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장기 이식을 위해 만들어지고 장기 이식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기본적인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론으로 살아가는 그들 역시 “자아, 사랑, 그리고 죽음 등의 실존적인 문제들을 동일하게 고민”(목현정 42)하고 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과 죽음으로 가는 그들의 삶은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 반면 위코워츠는 클론을 인간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클론으로 보는 것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복제의 방법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인간의 문화는 카세트 테이프,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소문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107). 그것의 예로 캐시의 카세트 테이프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녀는 헤일섬에서 들던 카세트 테이프를 잃어버리고 수년 후 토미(Tommy)와 노퍼크(Norfolk)에 방문하였을 때 그것과 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하게 된다(Never Let Me Go 64<sup>3)</sup>). 그러나 그것이 캐시가 잃어버린 것인지 또 다른 것의 복사된 카세트 테이프인지 알 수 없다. 한편 그 테이프는 원래의 엘피판(long playing record)을 녹음 한 것이고 또 그 엘피판은 주디 브릿지워터(Judy Bridgewater)의 목소리를 녹음 한 것이며,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3) 이후 작품은 쪽수만 표기한다.

라는 노래를 해석하였다(Walkowitz 109). 게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면, 그 노래는 듣는 사람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그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이렇게 고려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 캐시는 노퍽에서 발견한 테이프와 헤일섬에서 잃어버린 테이프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캐시에게 그 카세트 테이프는 녹음된 것으로의 가치가 아니라 루스(Ruth)의 선물이라는 하나의 물건(object)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Walkowitz 111). 즉 캐시는 자신이 처음 지녔던 것과 지금 가지게 된 것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원본과 원본이 아닌 것의 가치를 균등하게 본다고 말할 수 있다. 『나를 보내지 마』를 통해 이시구로는 원본과 그것의 복사본에 균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계 곳곳의 문화적 산물들의 가치를 균등하게 바라보도록 하며, 처음 언어로 쓰인 작품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간 작품의 가치의 균질성을 이해하게 한다.

더불어 번역 가능성을 지닌 『나를 보내지 마』는 세계문학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작품은 번역불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나기도 한다고 워코워츠는 말했지만(33) 이시구로의 작품은 다른 언어의 독자들을 고려하면서 쓰였으며, 예술 작품이 끼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 가능한 세계문학이라고 그녀는 말한다(94-95). 『나를 보내지 마』의 헤일섬 출신의 캐시와 토미는 그곳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클론의 삶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들은 처해진 삶에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장기 기증을 연기하고자 시도한다. 헤일섬을 떠나 캐시와 토미와 루스가 지내고 있는 코티지(Cottages)의 크리스시(Chrissie)는 “어떤 커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헤일섬 운영자들이 그 진위를 가려내고, 그 결과 사실로 인정이 되면 두 사람은 몇 년간 함께 지낸 후 기증을 시작할 수 있다”(154)는 소문을 캐시, 토미, 그리고 루스에게 전한다. 이를 전해들은 캐시와 토미는 크리스시로부터 들은 소문을 따라 헤일섬 아이들의 예술 활동 결과물을 선별하여 화랑으로 가지고 간다고 여겨졌던 마담(Madame)을 찾아간다.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고 그것이 그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몇 년간 준비한 그림을 들고 간 캐시와 토미는 마담 앞에서 장기 기증 집행 연기에 대해 들었던 소문을 이야기한다(252). 그리고 토미는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단서로 그가 그린 그림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헤일섬 아이들의 예술 작품은 단지 클론이 인간과 같은 영혼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었으며, 헤일섬의 진보적인 기품을 지지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를 알게 된 토미는 젊은 시절에 삶을 마감하는 미래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의 자리에 위치한다(Sim 251).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토미가 예술작품의 번역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평가 받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시구로가 제안하는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그것의 의미를 고유한 문화의 표현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Walkowitz 95). 다시 말해 고유한 문화의 표현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표현은 새롭게 해석될 수 있고,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술 작품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토미의 내면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독자들이 그들만의 해석으로 그의 내면을 상상할 수 있는 번역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시구로는 『남아 있는 나날』에서 영국 전통에 외부의 문화가 침투하는 혼종성을 보여주면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영국의 저택, 달링턴 홀(Darlington Hall)의 집사 스티븐스(Mr Stevens)가 새로운 미국인 주인 페러데이(Mr Farraday)가 저택을 인수한 후 여행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들려주는 일화들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달링턴 홀은 더 이상 영국 명문 가문의 저택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되어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멈추게 될 거라 예상하지 못하였던 영국 명문가의 전통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전통이 달링턴 홀에 유입된다. 스티븐스는 영국인 주인 달링턴(Lord Darlington) 시절과 달라진 외형들을 말하는데, 직원의 규모와 저택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변화는 이전 전통과 다른 현재를 보여준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만 물론 나도 옛날 방식을 지나치게 많이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 목격되듯 단지 전통 그 자체를 위해 전통에 매달리는 식의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전기와 현대식 난방 장치가 일상화된 이 시대에, 한 세대 전에나 필요했을 많은 인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한동안, 오로지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원을 계속 유지하여 그 결과 고용인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직업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던 사람이다. 게다가 페러데이 어르신은 지난날 달링턴 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대규모 사교 행사는 앞으로 극히 드물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다.

Now naturally, like many of us, I have a reluctance to change too much of the old ways. But there is no virtue at all in clinging as some do to tradition merely for its own sake. In this age of electricity and modern heating systems, there is not need at all to employ the sorts of numbers necessary even a generation ago. Indeed, it has actually been an idea of mine for some time that the retaining of unnecessary numbers simply for tradition's sake - resulting in employees having an unhealthy amount of time on their hands -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the sharp decline in professional standards. Furthermore, Mr Ferraday had made it clear that he planned to hold only very rarely sort of large social occasions Darlington Hall had seen frequently in the past. (*The Remains of the Day* 7)<sup>4)</sup>

달링턴 홀의 전통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서, 직무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전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의 가치를 재고하는 스티븐스는 저택에서의 생활에서 이전에 없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규모와 업무의 관리체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스티븐스는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저택의 관리를 위해 일하게 된다. 그가 일하는 장소 달링턴 홀은 그대로이고, 집사의 일을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의 일의 규모와 성격에는 변화가 다르게 되었고, 그는 이를 수용하며 그를 둘러싼 혼종을 겪게 된다.

미국인 새 주인 페러웨이의 등장으로 혼종을 경험하는 스티븐스는 대화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점차 대화에 변화를 시도한다. 영국인 주인 달링턴과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은 숨긴 채 집사의 위치에서 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던 그는 새로운 주인 페러데이와 대화 중 그가 던지는 농담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17). 그는 페러웨이와 나누는 대화 중 농담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당황하게 되지만 농담은 그에게 스며든다. 여행을 하는 동안 스티븐스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지만 새롭게 경험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대화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여행 동안 페러웨이가 자신에게 했던 농담을 자신이 숙박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하며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

4) 이후 작품은 쪽수만 표기한다.

다(130). 이렇게 페러웨이를 통해서 알게 된 농담을 또 다른 영국인들에게 전하였던 그는 옛세 동안의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는 농담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농담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한 것”이며 “대화의 과정에 집중된 것”(116)이라 위코워츠가 말하였듯 사실을 전달하는 대화가 아닌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대화의 방법을 가진 농담의 의미를 스티븐스는 알아차린다. 그는 농담을 대화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게 되고, 주인과 대화를 위해 농담을 연습할 것이라 다짐한다(245). 작품의 화자인 스티븐스가 저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인해 이전에 접하지 못하던 문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통해 『남아 있는 나날』은 달링턴 홀이 있는 로컬에 또 다른 로컬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혼종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세계문학은 민족성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은 민족을 대표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위코워츠가 주장하였다. 이처럼 『남아 있는 나날』에서 이시구로는 영국의 전통을 해체하는 것으로 민족성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차례 영국 집사가 가지는 위대함을 스티븐스는 정의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집사는 영국에만 있으며 영국 민족만이 위대한 집사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한다(43). 그리고 그는 영국의 위대한 집사는 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미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 믿고 있는 품위(dignity)를 지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로버로 하우스(Loughborough house)에서 집사의 경력이 절정이었으며, 그때 그는 품위의 상징이었다고 확신한다(33-34). 계속해서 스티븐스는 그의 수하에 있는 직원 켄튼(Miss Kenton)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그녀보다 달링턴 홀에 일주일 뒤에 도착하였지만 집안일에 지식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54). 하지만 달링턴에서 스티븐스의 아버지는 그가 지녔던 품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스티븐스는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켄튼은 스티븐스의 아버지의 실수를 발견하고 여러 차례 그에게 보고하지만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57-60).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달링턴 홀의 주인 앞에서 시중을 들던 중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쟁반위의 다과들은 잔디밭 사방으로 쏟아지고 그는 의식을 잃게 된다(63). 이를 목격한 달링턴은 스티븐스에게 그의 아버지의 직무를 재고하기를 말하며 달링턴 홀에서 개최될 회의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62-63). 그 후 스티븐스는 아버지에게 5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던 식탁 시중의 일에서 제외시키고 쟁반 나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항을 나열한 목록을 전달한다(65-66). 이전의 위대한 집사

는 자신이 지닌 보석과 같은 품위를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다. 켄튼이 스티븐스에게 쓴 편지에 묘사하였듯, 스티븐스의 아버지는 자신이 넘어진 잔디의 계단을 ‘마치 떨어뜨린 귀한 보석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조심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스티븐스 시니어(Stevens Senior)를 바라보는 그의 아들은 영국만 지닐 수 있다고 그가 말했던 위대한 집사가 지녔던 품위를 상실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스티븐스 시니어의 일화를 통해 영원할 것 같았던 위대함도, 영국만의 전통도 결국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시구로는 영국 민족이 지닌 전통을 해체하는 것으로 세계문학의 면모를 그의 작품에서 보여준다.

하지만 스티븐스가 믿고 있던 품위의 의미는 변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시구로는 스위프트와 인터뷰에서 스티븐스는 품위를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 감정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Shaffer, Wong 37). 그랬기에 집사의 직무를 다하느라 자신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켄튼과 사랑을 시작할 기회가 있었지만 외면했다. 그리고 달링턴이 스티븐스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페러웨이가 집을 비우는 동안 스티븐스가 여행하기를 권하면서부터 스티븐스는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된다. 그의 옛새 동안의 여행의 목적지가 켄튼이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여행의 목적은 켄튼을 만나기 위함이다. 켄튼이 보낸 편지 한 장을 오독하며 그녀가 달링턴 홀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는 여행을 하게 된다. 이시구로는 인터뷰에서 스위프트에게 스티븐스가 얻는 품위는 인간으로서 정직해지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39). 스티븐스가 여행을 하던 중 머물렀던 테일러(Taylor) 부부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품위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해리 스미스(Harry Smith)가 품위란 신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유인으로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표현하고 투표하는 것을 품위라고 했다(186). 마을 사람 해리가 말처럼 스티븐스는 집사라는 옷을 입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옷을 벗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을 알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된다. 페러웨이가 던진 농담에 뻗뻗하게 굳어버렸던 그는 유연한 방식의 대화에 적응하고자 하며 감정의 흐름을 익히려 한다. 이러한 그의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것이다. 획일한 전통의 사고에 갇혀 살아가는 것에서 다양한 문화의 사고를 수용하고 스스로를 변화하는 스티븐스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시민이라 생각된다.

### 3. 나가며

문학은 현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작품이 세계문학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문학의 특징들은 시대를 반영한 문화 현상의 부분이다. 현재는 민족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로컬의 문화가 외부로 뻗어나가기도 하며 외부의 문화가 로컬로 유입되기도 한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 중심의 문학과 주변부의 문학의 위치 아래에서 세계문학을 논하는데, 카자노바와 모레티가 주장하듯 서구 중심의 문학이 주변과 마주치며 세계문학의 장은 발생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위코워츠가 말하는 세계문학을 여러 의미로의 번역 가능성을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을 읽으며 로컬에서 발견되는 혼종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균질화, 그리고 민족성의 해체를 논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배경에서도 문화의 혼종과 균질화가 농후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작가의 시선으로 묘사된 영국을 담은 작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 현상이 발생하는 현시대를 담고 있다. 지역 간의 문화 이동은 점차 확장되어 지구상의 경계를 허물고 혼종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며, 이러한 현재를 그린 이시구로의 작품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 있는 나날』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 Work Cited

- 김용규. 「체계로서의 세계문학」, 『코기토』 79 (2016): 210-50.
- \_\_\_\_\_. 『혼중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서울: 소명출판. 2013.
- 목현정.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휴머니즘」, 『영어영문학 연구』 58.1 (2016): 41-66.
- 카자노바, 모레티. 「세계로서의 문학」,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김용규, 차동호 옮김. 서울: 현암사. 2014.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4.
- Ishiguro, Kazuo. *Never Let Me Go*. New York: Vintage, 2005.
- \_\_\_\_\_. *The Remains of the Day*. New York: Vintage, 1988.
- Moretti, Franco. *Distant Reading*. London: Verso, 2013.
- Shaffer, Brian W. Wong, Cynthia F.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UP of Mississippi, 2008.
- Sim, Wai-Chew. *Globalization and Dislocation in the Novels of Kazuo Ishiguro*. Lewiston,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6.
- Walkowitz, Rebecca L. *Born Translated: The Contemporary Novel in an Age of Worl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P, 2017.

## Abstract

## Ishiguro's *Never Let Me Go* and *The Remains of the Day* as World Literature

Yoanna Kwon

Interest in world literature, which continues from the past, is rising with globaliza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orld literature with theories of Pascale Casanova, Franco Moretti, and Rebecca L. Walkowitz. Casanova discusses world literature in the space of world literature. The center of what Casanova speaks is the space in which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operate, and the space in which the Greenwich meridian of literature determines the literary present. Moretti, like Casanova, has the West as the center of literature, but Moretti says that the literary forms in the center move around and change the surrounding literary forms. They worked to locate world literature through the structural system of world literature. In the literary space which is invisible, they assumed the space of the center and periphery and discussed world literature. Walkowitz suggests world literature with translation. In the context of world literature, as Walkowitz argues, translation can create political and cultural homogenization, and in its background, translation tends to avoid local expression or language complexity for readers' reading. Furthermore, this paper discusses the concept of world literature by reading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and *The Remains of the Day*.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s to reveal how ethnicity disappear and how hybridity and homogenization appear in the works. And by looking for the point of translation possibility of these works,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world literature in Ishiguro's works.

**Key Words**

World Literature, hybridity, homogenization, Never Let Me Go, The Remains of the Day, Kazuo Ishiguro, Rebecca L, Walkowitz



##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급진적 대항으로서의 『젠더 트러블』

이 선 현

### I. 들어가며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은 미국 학계나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 뿐 아니라 학계 밖의 정치적 실천에 있어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저작은 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와 신보수주의의 생물학주의적 입장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공격으로 읽을 수 있다. 미국의 80년대는 60년대 반문화에 대한 하나의 대항이었고, 이 대항은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버틀러는 남성의 힘을 강화시키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이원화시키는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급진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버틀러는 푸코를 받아들임으로써, 성 정체성이나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젠더와 성을 구분하던 상태에서 완전히 성이 젠더에 의해 구성된다는 쪽으로 나아가 간다.

### II.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레이거노믹스의 생물학주의적 입장

1980년대의 시작이자 십년간의 핵심적 사건을 꼽으라면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대통령 당선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sup>1)</sup>가 추진한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80년 선거를 기점으로 미국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레이건의 당선과 신보수주의의 등장은 이미 직전 시대로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70년대 신보수주의는 60년대 반문화(counter-culture)에 대한 반발로서 점차 목소리를 높이

---

1) 로널드 레이건의 ‘레이건’(Reagan)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경제 정책을 가리킨다.

는 중이었다. 60년대는 흑인 인권투쟁, 베트남 전쟁 반대 투쟁, 페미니즘 운동, 신좌파 학생운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백인 중산층 청년들의 일부가 50년대 미국의 가치관과 이상, 즉 교외주택,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직업, 단정한 옷차림과 행동, 성적 억압, 사회 순응주의라는 세계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Ryan 18). 환멸에 빠진 반항적인 청소년들은 학교를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머리를 기르고 록 음악에 심취하고 마약에 빠져들면서 부르주아적 기성 질서와 연계된 생활양식에 반대하여 대안적인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데 몰두했다(18). 이러한 기성 세대에 대한 환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형태가 히피 반문화였다. 그러나 “60년대 북미의 반문화 운동에 대해 논할 때 이 운동이 백인 중산층 남자 대학생(또는 중퇴생, 전 대학생)과 동일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Brantlinger 119). “자연으로의 귀환, 공동체와 같은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형태에 간직되어 있는 미덕으로의 복귀, (특히 성에 관련해서) ‘정숙한’ 형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요구, (보통 마약에 의지해서) 단순하고 보다 진정한 생명을 체험한다는 이상 등, 이런 여러 가치들에 바탕을 둔 반문화”(Ryan 23)는 ‘백인 중산층 남자 대학생’에 국한됨으로써 대중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지는 못했다. “급진주의를 광범위한 민중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어로 번역하는 일의 실패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같은 폭발적인 청년기의 도덕폐기론에 기인하는 것”이었다(37). 결과적으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학생들의 항의와 과격한 소요 및 이들의 문화는 당시 많은 대중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레이건은 주지사 선거 캠페인 당시 학생운동과 도시 소요에 따른 대중의 불편한 심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입으로 야기되는 국론 분열을 묘사하는 광고로 선거권을 주도했다(Mark 66). 특히 그는 학생 저항 운동이 처음부터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학내 소요를 일삼는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67). 레이건이 버클리 대학의 학생 소요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레이건을 향하게 되었다.

60년대의 반문화는 70년대 후반 신보수인 ‘뉴라이트’(New Right)의 부상과 더불어 끝나고 있었다(Rubin 25). 이들은 반문화의 ‘성적 타락’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다. 게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플로리다주의 데이드 카운티(Dade-County) 인권조례를 철폐하고자 했던 아니타 브라이언트(Anita Bryant)의 캠페인이 1977년에 성공하게 된다. 심리학자이자 바이섹슈얼 운동가였던 앨런 록웨이(Alan Rockway)는 데이드 카

운티에서 동성애자 권리 법령(차별 금지 법령)을 주민 투표에 붙였지만, 브라이언트가 이에 반대하는 ‘반-동성애 캠페인’을 펼치자 결국 주민 투표로 조레가 철폐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Save Our Children)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호전적인 동성애자들의 생활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미국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가치를 내걸었다. 브라이언트는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Steele 20)이라 선언하면서, “자신의 호전성은 ‘옳기’ 때문에 [신의 뜻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게이 운동가들의 호전성은 ‘틀렸기’ 때문에 비난해야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Fischli 267).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성 행동과 미국의 국력 쇠퇴를 연관 짓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노먼 포도레츠(Norman Podhoretz)는 브라이언트 운동이 일어난 같은 해, 논문 「유화의 문화」(“The Culture of Appeasement”)에서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현재 유화 외교 정책을 비난하며, 유화를 동성애와 연결지었다. 포도레츠는 ‘유화의 문화’에 ‘여성이 되고 싶지 않은 여성과 남성이 되고 싶지 않은 남성’을 포함시켰다(Abrams 158). “러시아에 맞서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을 동성애자 탓”으로 돌리며, “국내 무대에서의 반-게이 투쟁과 외교 정책에서의 반-공산주의 전투를 깔끔하게 연결”시켰던 것이다(Rubin 144). 이러한 반-동성애 운동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1977-78년 미시간에서는 게이 남성의 공공장소 섹스의 자유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미시간 캠퍼스에는 유니온 홀과 메이슨 홀 같은 오래된 파트너 물색 장소들이 몇 개 있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체포해 갔다. 앤 아버와 디트로이트 사이에 있는 I-94라는 트럭 정류장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체포당했다”(286). 게일 루빈(Gayle Rubin)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공원이나 자동차에서 섹스하는 이성애자를 체포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합의된 동성애 섹스에 관련된 사람의 체포를 지지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혐오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1979년 미국의 신보수주의 기독교 정치단체인 ‘도덕적 다수파’(moral majority)의 설립은 도덕, 정치가 종교와 결탁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제리 폴웰(Jerry Falwell) 목사는 플로리다와 그 외 지역에서 발생했던 동성애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 반응하여 ‘도덕적 다수파’를 설립함으로써 정치적 행동을 취했다(Stewart 139).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적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도덕적 다수파’는 “교회, 대학, 텔레비전과는 달리 폴웰로 하여금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허락”했다(139). 결과적으로 ‘도덕적 다수파’는

미국에서 동성애 권리 법안의 주요 반대자 중 하나가 되었다. 신보수주의는 도덕과 종교를 통해 “현상적으로 성장했고 눈에 띄게 발전했으며”, “70년대 후반 성적 이슈들 주변에 명백히, 성공적으로 집결”했다(Rubin 290).

60년대 반문화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작용은 1980년 선거를 우익의 승리로 이끈 주요 요인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의 레이건은 대통령 후보 지명 예비선거에서 격전 끝에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를 물리친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은 40대 대통령 선거전을 맞아 이념적 갈림길에 서있었지만, 60년대 반문화에 대한 신보수주의로의 역설적 반동은 레이건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과 그 정부가 추진한 신보수주의는 반문화의 성적 양식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81년 HIV 질환으로 알려진 에이즈가 미국과 프랑스의 게이 남성들 사이에서 발견되자, 신보수주의자들은 에이즈 발병을 남자 동성애에 내재한 위험한 본질적 증거로 보았고, “에이즈를 ‘게이 전염병’(a gay plague)으로 투사”시켰다(Thompson 21). 뿐만 아니라 레이건 정부의 수석 고문 패트릭 뷰캐넌(Patrick Buchanan)은 에이즈를 1960년대의 유산으로 위치시키려 시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성 혁명은 아이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불쌍한 동성애자들은 본성(nature)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고, 이제 본성은 끔찍한 응징을 행사하고 있다”(Shilts 311). 뷰캐넌은 동성애를 이성애적 본성을 위반하는 위협으로 간주했다.

특히 포르노그래피는 에이즈와 더불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포르노그래피를 아동에 대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반-포르노그래피 운동을 추진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미즈 위원회가 있었다. 사실 미즈 위원회보다 앞서 ‘음란과 포르노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일명 존슨위원회)는, 1970년 존슨 행정부 보고서를 통해 포르노그래피가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후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음란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1984년 레이건은 존슨 행정부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포르노그래피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Shepard 40). 1985년 레이건 정부의 법무장관 에드윈 미즈는 포르노그래피를 연구하고 연방 정책과 법률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포르노에 관한 법무장관 위원회’(Attorney General’s Commission on Pornography, 일명 미즈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했다. 미즈 위원회는 어김없이 포르노그래피를 유해한

사회악이라고 결론짓는 보수파들로 가득 차있었다(Rubin 183). 보수주의자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실제적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반포르노 운동은 페미니즘으로 폭발했다. 반포르노그래피 페미니스트들의 수사는 완전히 보수적인 성 담론에 동화되었다. 여전히 반포르노그래피 의제를 밀어붙였던 페미니스트들은 우익 정치인 및 소위 십자군과 협력하면서 노골적인 성을 담은 미디어를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추구했다(Rubin 185). 이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성 표현의 형태를 금지하려고 시도했다(Shepard 40). 1980년 당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포르노그래피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레즈비언 S&M 운동과, 반포르노 운동을 벌이며 S&M 운동을 비판하는 ‘도덕적 페미니즘’<sup>2)</sup>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도덕적 페미니즘은 포르노그래피, 여성에 대한 폭력, 폭행당한 아내, 강간 등에 대한 도덕적 우려를 표하는 반면, 레즈비언 S&M 운동가들은 이러한 우려를 섹슈얼리티가 억압되거나 경멸받는 증거로 이해했다. 버틀러에 따르면, “성에서 가부장적 권력을 극복하려는 이상을 만들어내는 도덕적 페미니즘”과 “그 이상을 향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S&M 운동”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Butler, “Lesbian” 173). 여성을 대상화한 포르노그래피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모든 형태에 반대하는 도덕적 페미니스트들은 지배가 없어진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망에 충실하지만, 그들은 상황과 욕망이 ‘지배-복종’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S&M 운동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전망을 실현시킬 수 없다(173). 버틀러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지배의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섹슈얼리티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며, 가부장적 권력이나 지배가 없는 섹슈얼리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한편 레즈비언 S&M 운동은 금융주의적 권위의 흔적 또는 죄책감을 지우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포르노그래피나 S&M적 양상에서도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대하는 도덕적 페미니스트들을 성에 반대(anti-sex)한다고까지 비판했다. 그러나 S&M 운동에서 보이는 이중적 양상은 그들이 이러한 성을 정

2) ‘도덕적 페미니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ubin, Gayle. “Sexual Politics, the New Right, and the Sexual Fringe,” What Color Is Your Handkerchief?: A Lesbian S/M Sexuality Reader. Berkeley: Samois, 1979. 28-35>를 참고할 것.

치적으로 옳고 그른 행동으로 합법화시켜서 공적으로 급진적이게 만드는 반면, 공적 영역이 거의 사라질 정도까지 사적인 환상의 삶을 찬양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S&M 운동을 공적으로 합법화하고 싶어하지만,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면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공적 침입의 위협을 지적한다. 그들의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것으로부터 너무 분리되어서, S&M의 권력관계는 S&M세계 밖의 권력관계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누군가 S&M 세계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유 선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욕망에 대한 태도에서 버틀러가 비판하는 “비-반성적 태도”(non-reflective attitude) (Butler, “Lesbian” 172)였다. S&M 레즈비언들은 합의된 선택을 수용하기를 주장하고 실제 공유된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킴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적·정치적 선택의 가능성들을 잇는다. 그들은 마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적 환상들을 작동시킨다. 버틀러가 보기에, 이상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은 S&M 레즈비언 운동이 부인하려고 했던 가부장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의 특징인 권력의 역학이다.

버틀러는 이 글에서 도덕적 페미니즘과 S&M 운동의 대화 지점이 권력의 작동에 있음을 시사한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덕적 페미니즘’이나 S&M 세계를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레즈비언 S&M 운동 모두 권력의 작동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버틀러는 S&M 운동이 환상을 깨뜨리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과 경험을 통해 권력과 정치가 재배치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비록 권력과 섹스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권력’—그리고 섹스—의 의미는 중요한 변화들을 겪는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권력도 레즈비언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가 레즈비언 경험을 통과함으로써 깊어지고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동일하게 중요하다. 지배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의 관점에서 권력을 인식하는 것은 권력을 인식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에로틱의 권력’ 역시 존재한다”(Butler, “Lesbian” 174). 버틀러는 S&M 운동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때조차 그 안에 권력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 관한 버틀러의 주장과는 별개로 80년대는 “포르노그래피가 아동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되며, 동성애는 에이즈와 혼동되고, 사도마도히즘(SM)은 에이즈 및 동성애와 하나로 여겨지고, 로큰롤과 랩은 섹스, 에이즈, 사도마도히즘과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묘사”되고 있었다(Rubin 183). 도덕과 종교, 정치가 연합된 신보수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60년대 반문화의 성적 실천에 대해 성

공황 상태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푸코의 통치성 연구로 탁월한 웬디 브라운(Wendy Brown)에 따르면, 신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불경스러운 동맹(a literally unholy alliance), 즉 통일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종교적일 뿐인 동맹으로부터 탄생한다(Brown 696). 이러한 정치와 도덕과 종교의 불경스러운 동맹은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신보수주의의 이질적 요소들이 주로 혐오 대상들을 공유함으로써 결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그러한 이상한 조각들을 함께 봉합하는 것은 국가 주도적이며 국가 입법적인 강력한 도덕-정치적 전망이다(a strong, state-led and -legislated moral-political vision)(697).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를 이전의 보수주의(conservatism)로부터 구분시키는 것은 바로 국내의 영역에서 도덕화된 국가 권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된 신보수주의와 레이건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경제침체와 직전정부의 무능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의 10년”(Thompson 7)이었던 미국의 70년대는 경기 침체 중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었고, “산업화된 아시아 경제와의 경쟁, 1973년의 오일위기, 베트남 전쟁 모두 이 현상에 기여했다”(7). 존 오만(John Orman)은 레이건과 카터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연구에서 “레이건은 결국 지미 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0년 선거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Jeffords 28). 불확실한 70년대를 지난 대중들이 보수주의자 레이건을 지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레이건은 주변의 정세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선봉에 섰다. 레이건이 추진한 경제 정책 ‘레이거노믹스’는 직전 전임자들의 거대 정부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의 태도를 취했다. 레이건 정부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거대한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무거운 세금 부과와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투자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의 본질로 파악한 것이다. 레이건 정부는 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축소시켰으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시켰다. 한편 레이건은 70년대 국외적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 강한 군국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쳤다. “베이루트에서 2백명 이상의 해병대가 죽으면서 카터 시절에 이란 인질 위기를 둘러싸고 느껴졌던 무력감과 국가적 상처가 재발되려 할 때, 레이건은 바로 이를 후에 미국의 바디-세인트조지의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레나다라는 작은 섬나라를 침공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베이루트로부터 돌렸다(30). 레이건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혁명적 움직임에 속해 있었고 공헌도 많이 했지만, 그런 움직임을 초래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것은 바로 그 움직임이었다(5).

흥미로운 것은 레이건 정부와 신보수주의의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욕망이 ‘남성성 강화’라는 생물학주의적 태도로 드러났다는 점이다.<sup>3)</sup> “레이건은 많은 사람들을 미국의 복지에 내부적인 위협을 가하는 ‘소프트 바디’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국가적 몸에서 제외시켰다. 복지수당 수령자에서 동성애자에 이르기까지, 쿠바 난민에서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레이건은 국내에서 ‘외국 테러리스트’에 맞먹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데 성공했다(Jeffords 30). 동성애자들을 공산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았듯, 레이건은 남성성과 국력을 연결시켰다. 레이저 노믹스에서 그것이 국가체(national body)와 성공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자체로서 하드 바디(hard bodies)는 국가적인 성격—영웅적이고, 공격적이고, 과단성 있는—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상징하게 되었다(Jeffords 25).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내몰렸던 카터 정부를 여성적이라고 치칭함으로써,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 구분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몸을 부정적 맥락 속에 위치시켰다.

제3세계 국가에 의해 미국이 정체에 빠졌던 카터 행정부의 유약한 시대—레이건 홍보 요원들 가운데 혹자는 심지어 ‘여성적’이라는 표현을 썼다—와는 대조적으로 레이건 시대의 미국은 적에게 굴복하기 보다는 대적하며, ‘악의 제국’을 번성하게 내버려두기보다는 맞서 싸우며, 남에게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기 위해 강화된 몸—재생된 기술군사적인 네트워크—을 사용할 줄 아는 강한 국가가 될 것 이었다. (Jeffords 25)

이러한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레이건 정부의 전략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자주 목격된다. 레이건의 지도력 하에 부활한 보수적인 사회 운동은 지난 50년 동안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이득의 많은 부분을 되돌려 놓았는데, 페미니즘(『

3)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남성성 강화’ 전략이 두드러진 영화산업에 대한 분석은, <Jeffords, Susan.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y in the Reagan Era. New Brunswick: Rutgers UP, 1994.>와 <Ryan, Michael, Douglas Kellner. Camera Politica: the Politics and Ideology of Contemporary Hollywood Film. Bloomington: Indiana UP, 1990.>를 참고할 것.

애정의 조건』), 전쟁(『람보』), 경제(『위험한 청년』) 및 사회 구조(『스타워즈 6: 제다이의 귀환』)에 관한 우익의 입장을 홍보하는 영화가 이 기간 동안 널리 보급되었다(Ryan 11). 특히 레이건 시절 영화 관객들은 강한 남성적 몸을 묘사하고 서술하는 영화에서 오는 쾌락을 집단적으로 즐겼으며, 하드 바디라는 ‘집단적 상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는 바로 할리우드 영화였다(Jeffords 27). 강하고 단단한 몸을 보여주면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람보』와 같은 영화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국가 자체를 상징하게 된 하드 바디를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준 것이다. 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가장 인기 있는 영화 『레이더스』, 『E.T.』, 『스타워즈 5: 제국의 역습』, 『스타워즈 6: 제다이의 귀환』, 『비버리 힐스 캅』, 『람보』는 보수적인 가치, 도피적 환상, 전통적인 사회형태에 대한 영화적 회귀가, 당시 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지쳐서 부활한 가부장적 가족과 남성 중심의 로맨틱 커플, 새로운 군대, 새로운 남성 영웅, 승리한 미국주의의 이미지와 동일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객들과 공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Ryan 11). 영화를 통해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레이건 정부의 전략과 관객들의 바람이 맞아떨어졌다.

### Ⅲ. 급진적 대항으로서의 『젠더 트러블』

1990년에 출간된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은 당시 페미니즘 문학 이론에 만연한 이성애적 가정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보였다. 버틀러는 초판 서문을 시작하는 문장에서 『젠더 트러블』이라는 제목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젠더의 의미를 둘러싼 현대 페미니즘 논쟁은 다시 특정한 의미의 트러블에 도달했다”(xxvii). 페미니즘 장 내에서 ‘트러블’은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논의를 통과하여, 남성 주체의 존재가 여성인 ‘타자’에 근본적으로 의존한다는 “권력의 특별한 변증법적 반전”(xxvii)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버틀러에게 권력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뒤집히는 “주체와 타자 간의 지속적인 역전관계” 이상을 의미했다. 오히려 “젠더에 대한 사유의 이분법적 틀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권력처럼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권력을 역전시키는 관점은 이원론적 틀을 영속화시키는데 일조할 뿐이었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의 10주년 개정판 서문(1999)에서 역시 자신이 그 당시 페미니즘 문학 이론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이성애적 가정을 비판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페미니즘 이론 내의 이성애적 가정이 배타적 젠더 규범

을 설정하고, 때로는 호모포비아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젠더의 경계와 타당성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젠더의 의미를 남성성/여성성의 기존 개념으로 한정짓는 이런 관점들을 반박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Butler, Gender vii). 따라서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 “어떻게 최고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인지, 또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지”(xxviii)를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젠더 트러블』이 탄생했다.

버틀러가 제시하는 최고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방법은 정체성의 어떤 다른 근원적 범주—섹스, 젠더, 몸의 이분법—를 ‘원본’이나 ‘본질’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권력 형성의 효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버틀러는 푸코가 니체를 재구성하면서 ‘계보학’이라고 지칭한 비평적 탐구형식을 취했다. “계보학적 비평은 젠더의 근원이나 여성 욕망의 내적 진리를 거부하며, 억압이 은폐한 진정하거나 진실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도 거부한다”(xxix). 흥미로운 것은 버틀러가 페미니즘 이론 내의 이성애적 가정을 비판하기 위해 계보학적 비평을 취했지만, 계보학의 방법론적 특성상 그것이 페미니즘 이론 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계보학은 이런 정체성의 범주를 기원이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연구한다”(xxix). 이 문장은 『젠더 트러블』을 80년대 레이건 정부와 신보수주의적 입장에 대한 급진적 대항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즉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레이건 정부의 생물학주의적 태도에 대한 공격,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의 이원화는 ‘진리’가 아니라 ‘효과’일 뿐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버틀러는 이 책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 책은 또한 소수자 젠더와 섹스의 실천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리 담론을 휘두르려는 모든 시도들의 뿌리를 파헤치고자 했다. 그것이 모든 소수자의 실천 행위들을 너그러운 시선에서 보아야 한다거나 심지어 찬사를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그들의 행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실천들을 대면했을 때 당혹감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방식들이었다. 가령 젠더 이분법의 붕괴는 것처럼 쇼킹하고 공포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젠더를 생각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명백히 배제되고 스스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Butler, Gender viii)

동성애나 드래그와 같은 소수자 젠더와 섹스의 실천은 당시 신보수주의가 활개를 치던 80년대에는 ‘불법적’이었고 진리에 위반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런 진리 담론 속에서 젠더 이분법을 붕괴시키는 그들의 실천은 너무도 공포스럽고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거해 버려야 할 사회악이자 암 덩어리로 여겨졌다. 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정이 인간의 자격, 살만한 것의 자격을 미리 결정해 놓은 틀 안에서 그들은 ‘인간이 아닌, 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 “젠더 규범(이상적 이분법 형태론, 몸의 이성애적 상보성, 적합하고 부적합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상과 규칙, 이중잡혼에 반대하는 순수성과 금기의 인종적 코드로 강조되는 많은 것들)이 인식 가능한 인간이 무엇인지 또 ‘실재’(real)로 간주될 것과 간주되지 않을 것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한, 젠더 규범은 몸이 어떤 주어진 합법적 표현물이 될 존재론의 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Butler, Gender xxiii). 『젠더 트러블』은 “젠더의 당연시된 지식이 실제(reality)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력적인 경계선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줌”(Butler, Gender xxiii)으로써, 이 존재론적 장의 빈약함을 드러낸다. 요컨대 버틀러는 “이런 정체성의 범주가 사실 여러 개의 산발적 출발지점을 가진 제도, 실천, 담론의 효과”(xxix)임을 명시하며, 80년대 강조되었던 남근로고스 중심주의와 강제적 이성애라는 규제적 제도를 해체시키려 한다.

페미니즘 이론, 나아가 레이건 정부와 신보수주의가 구성한 젠더 규범이 수행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버틀러는 푸코의 이론을 문제틀로 삼았다. 버틀러가 푸코의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1976)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게일 루빈을 통해서였다. 루빈은 79년 「성을 사유하기」(“Thinking Sex”)에 관한 강의를 중 일부인 뉴욕 인문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제2의 성 학회에서 『성의 역사』를 버틀러에게 소개해주었다(Rubin 285). 『성의 역사』를 처음 접한 버틀러는 이 책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546). 비록 『레즈비언 S&M』(1980)에서도 푸코의 영향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푸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용은 그보다 한참 이후인 듯 보인다. 박사 논문을 수정하여 출간한 『욕망의 주체들』(Subjects of Desire)(1987)의 99년 재판 서문에서, 버틀러는 80년대 자신의 지적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푸코의 수용을 훨씬 이후로 언급하고 있다.

저는 모리스 나탄슨(Maurice Natanson) 교수 밑에서 박사논문을 썼고, 그분은 사르트르의 저작과 메를로퐁티의 글에서 프랑스 철학이 합리적인 세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 에

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후기구조주의 사상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으나, 저는 이것을 제가 공부했던 대륙철학전통의 영역 바깥에 두었습니다...미셸 푸코의 저작과 조우한 것은 여성 학회 교수진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떠나 1983년부터 86년까지 웨슬린 대학(Wesleyan University)의 방문교수가 되고 포스트닥터를 하고 나서야, 예일 대학에 있을 때 거부했던 방식의 프랑스 이론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인문학 센터에 있었던 저는 프랑스식의 비평 이론에 노출되었고, 그 노출의 초기 단계에서 제 논문을 수정하여 1986년에 『육망의 주체들』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육망의 주체들』에서 들뢰즈, 라캉, 푸코에 관한 마지막 장은 박사 논문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이해하려고한 첫 번째 시도를 나타내며, 이들이 더 복잡한 고려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xiii-xiv)

버틀러의 첫 논평 「레즈비언 S&M」이 1980년이었고 푸코의 논의를 토대로 한 것이었음을 상기한다면, 86년 『육망의 주체들』에서 푸코를 추가하고 90년 『젠더 트러블』에서 푸코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질문해볼 가치가 있다. 「레즈비언 S&M」에서 버틀러가 푸코의 이론을 통해 레즈비언리즘과 페미니즘이 간과하고 있던 권력의 작동에 주목하기를 요청했다면, 『젠더 트러블』은 푸코의 『성의 역사』 제1권, 특히 마지막 5장에 대한 급진적 수용을 통해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나아간다. “어떻게 비규범적 성의 실천들이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특정한 성적 관행이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지를 강제하게 되었는가? 만일 젠더가 더 이상 규범적 섹슈얼리티를 통해 정리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퀴어의 맥락에서 특정한 젠더가 존재하는가?”(Butler, Gender xi). 버틀러는 80년대 초반의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운동에 대한 사고에서 시작하여 『젠더 트러블』에 이르면 섹스(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젠더(gender)의 문제로 확장해 나간다.

주지하다시피 푸코의 『성의 역사』 제1권의 5장은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존 사고에 대한 전복이다. 섹스란 생물학적인 성이자 섹슈얼리티의 기반이 되는 성인 반면, 섹슈얼리티는 성에 대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시대와 역사를 통해 달라진다는 생각이 당시까지 존재했다. 섹슈얼리티가 단단한 실체로서의 생물학적인 섹스에 기반을 두고 형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이러한 논리를 뒤집었다.

<성의 역사> 제1권 마지막 장과 <에르퀼린 바르뱅-최근 발견된 19세기 양성인간의 일기>에 부치는 짧지만 중요한 서문에서 푸코는 모든 성차의 범주화에 선행하는 성의 범주는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섹슈얼리티 양식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분절되고 이분법적인 성의 범주화를 전술적으로 생산해내면 ‘섹스’를 성적 경험, 행동, 그리고 욕망의 ‘원인’으로 가정하게 됨으로써 바로 그 생산장치의 전략적 목적을 숨길 수 있다. 푸코의 계보학적 탐구는 겉보기엔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결과’임을 폭로한다. 또한 분명한 성의 범주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모든 담론적 설명 안의 근본적이고 인과론적 작용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원인’ 같아 보이는 것이 실은 성적 경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당대의 섹슈얼리티 체제의 생산물임을 폭로한다. (31)

푸코에 따르면 섹스는 실체가 아니다. 섹스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섹슈얼리티가 만든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섹스가 권력과의 접촉면을 따라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효과를 부차적으로 생산해내는 자율적 행위 주체성(an autonomous agency)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섹스는 육체와 그 물질성, 힘, 에너지, 감각, 쾌락을 움켜지는 권력으로 조직된 섹슈얼리티의 배치 속에서 가장 사변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내재적인 요소이다”(155). 따라서 섹슈얼리티의 역사, 즉 성의 역사는 섹스의 행위주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섹스가 섹슈얼리티의 역사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버틀러는 섹스와 섹슈얼리티의 관계를 섹스와 젠더의 관계로 가져온다. 당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섹스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을 인정하고 젠더에서는 문화적인 것을 인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진보주의자들조차 남성/여성(male/female)로 구분되는 생물학적인 섹스와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으로 구분되는 사회 문화적 성인 젠더를 분리시키고 젠더의 급진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버틀러는 섹스도 젠더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젠더 트러블』의 핵심은 자연적인 성, 섹스라는 게 실제적으로 규범화된 젠더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을 통해 생물학적인 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말 중요한 것은 젠더의 문제들이라는 가장 급진적인 성정치를 보여준다.

특히 버틀러가 푸코의 이론을 수용한 것은 히피 반문화가 신보수주의로 수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할 수 있는 좋은 틀이었다. 히피 반문화는 성 억압에 대한 반발로서 성 억압설을 전제로 했는데, 이것은 성에 대한 모습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푸코에 따르면, 성에 관하여 성의 억압으로 보는 순간 성의 해방에 속기 쉬워지며, 이것은 역설적으로 성담론의 확장에 기여한다. 담론적 장치 안에서 성을 억압하는 순간 기형적인 성의 확산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억압과 해방에 초점을 두면 그것이 맞물려있는 지점을 보지 못한다. 푸코는 동전의 양면인 억압과 해방이라는 논리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히피 반문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었다. 60년대 성 해방 운동은 70년대에 성 억압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80년대에 이르면 자본주의적인 포르노로 통합되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푸코적 문제들을 통해 성 억압이 틀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피 반문화에 내재된 성 억압이 더 큰 구조 속에서 작동함으로써 80년대 성 담론 확산으로 이어졌고, 결국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제 삼을 것은 억압과 해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 자체이다. 무엇이 근원적이며, 이 구조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의문제기가 중요하다. 성 억압과 성 해방의 대립이 성 담론을 확산시키는 장치라는 사실을 알 때, 이 성 장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또 다른 저항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최고의 트러블을 일으킬 것인가,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버틀러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제기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버틀러의 ‘이론’이 어떻게 ‘정치적’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들은 버틀러의 작품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들에 따르면, 버틀러의 이론을 상아탑에서 떼어내는 것은 그 저작이 끼친 영향들을 문제화한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물질성으로 고정된 것의 중심성을 폄하하는 이론이 어떻게 ‘실제적 사람들’의 삶에 관한 정치적 행동주의에 사용될 수 있는가?(Roden 30).” 다시 말해, 그들은 ‘다양한 대륙철학자들을 다루며 대학 수준의 교육에 의존하고 또 이러한 수준을 요구하는 이론적 저작의 공명이 어떻게 학계 밖에서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 이러한 비판을 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을 들 수 있다. 특히 누스바움은 버틀러가 현학적 이론을 추구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버틀러의 글쓰기 스타일은 장황하고 모호하다. 그 글은 다양한 이론적 전통들에서 파생된 다른 이론가들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 차있다. 푸코 뿐 아니라 프로이트에 관한 최근의 연구 외에도 버틀러의 연구는 루이

알튀세르, 프랑스 레즈비언 이론가 모니크 위티그, 미국의 인류학자 게일 루빈, 자크 라캉, 오스틴, 그리고 미국 언어철학자 사울 크립케의 사 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이 인물들은 모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버틀러를 읽는 초기의 문제는 그녀의 주장의 버팀목이 많은 모순적 개념과 교리에 대한 호소라는 점을 발견하는 데 있으며, 보통 이러한 명백한 모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데 있다. (39)

누스바움에 따르면 버틀러의 현학적 글쓰기는 대중들과의 거리를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는 버틀러의 이론이 실제적 정치에 사용되기 어렵다. 특정한 철학적 글 쓰기 스타일과 버틀러의 지적 기반은 『젠더 트러블』을 정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위치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젠더 트러블』 출간 이후 제기된 의문 들은 버틀러의 이론이 80년대 미국의 성 담론에 대한 공격을 넘어 어떤 저항의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향후의 과제는 버틀러가 제시하는 젠더 수행성과 수행적 주체가 어떤 저항적 가능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젠더 트러블』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 Work Cited

- 라이언, 마이클, 더글라스 켈너. 『카메라 폴리티카: 현대 할리우드 영화의 정치학과 이데올로기』. 서울: 시각과 언어, 1988.
- 제퍼드, 수잔. 『하드 바디』. 이형식 옮김. 서울: 동문선, 2002.
- Abrams, Nathan. *Norman Podhoretz and Commentary Magazine*.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2010.
- Baughman, Judith. *American Decades: 1980-1989*. Detroit: Gale Research, 1994.
- Blantlinger, Patrick. *Crusoe's Footprints—Cultural Studies in Britain and America*. New York: Routledge, 1990.
- Brown, Wendy. “American Nightmare: Neoliberalism, Neoconservatism, and De-Democratization.” *Political Theory* 34.6 (2006): 690-714.
- Butler, Judith. “Lesbian S&M: the Politics of Dis-illusion.” *Against Sadomasochism: A Radical Feminist Analysis*, edited by Robin Linden et al. San Francisco: Frog in the Well, 1982. 168-75.
- .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2.
- . *Subjects of Desire: Hegelian Reflections in Twentieth-Century France*. New York: Columbia UP, 1999.
- Del Casino Jr., Vincent J. “Health/Sexuality/Geography.” *Geographies of Sexualities: Theory, Practices and Politics*, edited by Kath Browne, Jason Lim, Gavin Brown. Hampshire: Ashgate, 2007. 39-53.
- Fischli, Ronald. “Anita Bryant’s Stand Against ‘Militant Homosexuality’: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the Democratic Process.” *Central States Speech Journal* 30 (1979): 262-71.
- Foucault, Michel. *The Will to Knowledge: The History of Sexuality* 1. New York: Penguin, 1998.
- Jeffords, Susan.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y in the Reagan Era*. New Brunswick: Rutgers UP, 1994.
- Mark, David. *Going Dirty: The Art of Negative Campaigning*.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09.

- Roden, Frederick S. "Becoming Butlerian: On the Discursive Limits (and Potentials) of Gender Trouble." *Butler Matters*, edited by Margaret Sonser Breen, Warren J. Blumenfeld. New York: Routledge, 2005. 25-33.
- Rubin, Gayle S. *Deviations*. Durham: Duke UP, 2011.
- Ryan, Michael, Douglas Kellner. *Camera Politica: the Politics and Ideology of Contemporary Hollywood Film*. Bloomington: Indiana UP, 1990.
- Shepard, Benjamin. "History, Narrative, and Sexual Identity: Gay Liberation and Postwar Movements for Sexual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The Story of Sexual Identity: Narrative Perspectives on the Gay and Lesbian Life Course*, edited by Phillip L. Hammack, Bertram J. Cohler. New York: Oxford UP, 2009. 23-50.
- Shilts, Randy. *And the Band Played On: Politics, People and the AIDS Epidemic*. Harmondsworth: Penguin, 1989.
- Steele, Richard, Tony Fuller. "God's Crusader." *Newsweek* 6 (1977): 19-21.
- Stewart, Chuck. *Gay and Lesbian Issues: A Reference Handbook*. California: ABC-CLIO, 2003.
- Thompson, Graham. *American Culture in the 1980s*. Edinburgh: Edinburgh UP, 2007.

## Abstract

## The Emergence of Neo-conservatism and *Gender Trouble* as the Radical Resistance

Lee Seon Hyeon

Judith Butler's *Gender Trouble*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political practices as well as within American academic and feminist theories. In particular, this work can be read as the most radical attack on the biological position of the Ronald Reagan government and neo-conservatism in the 1980s. The 80s in the United States was in opposition to counter-culture of the 1960s, and this opposition worked in a way that strengthened masculinity. Butler was concerned with how she could make the most radical criticism in this political context, where Reagan intensified the binary opposition of biological men and women and solidified the strength of men. Accepting Foucault's theory, Butler points out that there is no fundamental sex or gender identity and that it is only socially constructed. Furthermore she claims that sex is historically subordinate to gender.

### Key Words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Ronald Reagan, neo-conservatism, counter-culture, Michel Foucault

## ‘미국 불사조’와 ‘버펄로’ 대신 ‘망령들의 바다’로 - 콜슨 화이트헤드의 『제1구역』 읽기

정 희 연

### I.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서사와 『제1구역』

좀비들이 만연한다. 아이티(Haiti)의 부두교(Voodoo) 민담에서 유래한 이 낯선 형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소설, 영화, TV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을 가리지도 않고 등장한다. 인간에게 달려드는 그들의 습성처럼 거의 모든 종류의 텍스트들에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좀비의 원형, 즉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깨어난 시체들이자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다른 생중사 시체들을 만들어내는 이 기이하고 끔찍한 존재는 조지 A. 로메로(George Andrew Romero)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Night of the Living Dead, 1968)으로부터 기원하지만,<sup>1)</sup> 반세기를 넘어서며 등장 빈도와 범위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특성도 다양해졌다. 가령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 일련의 “근대 좀비”들이 느린 발을 가지고 있었다면, “21세기 좀비”들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후지타 17-18). 또한 어떤 좀비들은 일정 온도 하에서만 행동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좀비들은 외계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sup>2)</sup>

SF 또는 사변물(speculative fiction)의 하위 장르로서 포스트-아포칼립스를 그려낼 때, 좀비들은 더욱 매력적인 단골손님이다. 일상이 되어버린 재앙에 대해 치밀하게 설명하기보다<sup>3)</sup> 아포칼립스 이후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1) 그러나 로메로의 작품에서 ‘좀비’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좀비는 ‘그것들’(those things)이나 ‘구울’(ghouls)로 지칭된다. ‘구울’이란 아랍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로, 묘지 주변을 배회하며 인간의 육체를 섭취한다.

2) 대표적으로, 전자는 <28일 후>(28 Days after..., 2002)에 등장하는 빠른 좀비들이다. 보다 최근의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시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킹덤>(2019)에 등장하는 역병 환자들의 행동 양상이다. 후자는 제임스 건(James Gunn)의 <슬리더>(Slither, 20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프레드릭 부엘(Frederick Buell)은 미국 문화에서 포스트-아포칼립스가 ‘미국의 새 문화적

포스트-아포칼립스 서사는 “1950년대에 영미권에서 등장한 전지구적 재난의 발생과 문명의 중단,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일련의 선구적 소설들을 그 효시로”(문형준 61) 삼고, 좀비를 포함해 자연재해, 핵, 외계인 침략, 전염병 등의 여러 세부 원인들을 갖는다. 한편 20세기까지 문학사의 전통에서 빗겨나 있었던<sup>4)</sup> 좀비 서사는 21세기에 들어서 아포칼립스적 배경과 본격적으로 결합하며 데이비드 무디(David Moody)의 『가을』(*Autumn*, 2001), 브라이언 킨(Brian Keene)의 『더 라이징』(*The Rising*, 2004), 스티븐 킹(Stephen King)의 『셀』(*Cell*, 2006)으로 출간되었고, 맥스 브룩스(Max Brooks)의 『세계대전 Z: 좀비 전쟁에 대한 구술사』(*World War Z: An Oral History of the Zombie War*, 2006)가 처음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Bishop 89).

이른바 ‘좀비산업’이 2011년까지 6억 달러의 상품가치를 구가하며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던(박혜영 재인용 5-6) 그 해에, 콜슨 화이트헤드(Colson Whitehead, 1969~)가 포스트-아포칼립스 좀비 소설을 발표한다. 데뷔작이었던 『직관주의자』(*The Intuitionist*, 1999)에서 뉴욕을 배경으로 흑인 여성 승강기 검사원과 정체성의 주제를 엮어낸 사변소설을 출간했던 그는, 자신의 여섯 번째 소설에다가 같은 도시를 배경으로 대재앙 이후의 좀비와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사고 실험하는 사변소설을 쓴다. 기존의 좀비를 다룬 (포스트) 아포칼립스 소설들이 ‘장르소설’이라는

---

우세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에서 아포칼립스적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핵에 대한 공포, 환경 문제, 석유 파동 등으로 겪었던 “통제할 수 없는 불안들”이 “억압된 채 미국의 사회적 규범과 삶의 양식으로 깊게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이는 “각성”보다는 “흥미”의 영역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10). 이어서 부엘은 21세기에 접어들며 테러와의 전쟁, 석유가격 급등, 기후변화, 2006년의 카트리나 태풍(Hurricane Katrina), 부시(George W. Bush)의 재임 시절(2001.01~2009.01) 동안의 재정 악화 등 서로 연관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다면적인 위협들이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사유의 더 깊은 구조 속으로 깔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분석한다(18). 마찬가지로 다니엘 드래즈너(Daniel W. Drazner) 역시 “대중문화는 대중의 잠재의식 차원에서 존재하거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공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좀비 역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9). 이어 그는 9·11 이후 좀비에 대한 급격하게 증가한 관심을 수치로 제시하며 “재앙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건 확실하다”(재인용)고 덧붙인다(20).

- 4) 부두고 좀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피터 헤이닝(Peter Haining)이 『좀비들!: 살아있는 시체들의 이야기』(*Zombies!: Stories of the Walking Dead*, 1985)를 편집해 출간하기 전까지, 근대적 의미의 좀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존 스킵(John Skipp)과 그레이그 스펙터(Craig Spector)가 『죽은 자들의 책』(*Book of the Dead*, 1989)를 편집해 출간하기 전까지, 선집에 포함되거나 정리되지 않았다(Bishop 89).

테두리 내에서 논의되었다면 『제1구역』은 ‘문학소설’(literary fiction)<sup>5)</sup>과의 경계를 흐리며 “종적으로 합쳐진 소설들”(generically amalgamated fictions) 중에서도 “최신 추세의 유용한 예시”(Lanzendorfer 40)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좀비 서사라는 기본 골격에다 추가된 주인공 마크 스피츠(Mark Spitz)의 전-포스트 아포칼립스적 세계에 대한 상세한 회상들과 수사적 표현들은 “상당히 우아하고, 형식적으로 완벽한 산문”(Hoberek 409)이라는 화이트헤드만의 표식으로 완성된다.

『제1구역』이 가지는 특징은 두 가지 형태의 좀비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이며, 흔히 종래의 좀비 서사들에서 익숙하듯이 그들로부터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긴장감 넘치는 사투가 소설의 주는 아니라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뉴욕 맨해튼에 등장한 좀비는 두 종류 모두 ‘망령’(dead)<sup>6)</sup>들로 통칭되나, 그 성질에 따라 ‘해골’(skel)과 ‘불박이 망령’(straggler)들로 나뉜다. 해골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좀비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불박이 망령들은 모양새는 기존의 좀비와 같지만 아포칼립스 이후에도 그들은 그들이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를 벗어나지 않으며 머물러 있다. 해골들에 비해 공격성이 적고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유용하다. 마크 스피츠가 수색대(the sweepers) 중 게리(Gary), 케이틀린(Kaitlyn)과 함께 속한 오메가 팀(Omega unit)의 한 대원으로서 유사 정부 형태의 ‘버펄로’(Buffalo)가 구획한 ‘제1구역’ 건물 내부를 살살이 뒤지며 처리하는 것들이 바로 불박이 망령들이다. 불박이 망령들은 묘하게 재앙 이후 살아남은 인간들의 면모와 닮아있다. 소설은 마크 스피츠는 수색대원으로서 겪는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에서의 일상들을 세 개의 장-「금요일」(“Friday”), 「토요일」(“Saturday”), 「일요일」(“Sunday”)—으로 구성해 느릿느릿한 속도로 따라간다.

화이트헤드는 좀비물에 대한 인기에 단순 편승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변형을 가하며,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거리를 텍스트 곳곳에 배치해둔

5) 이는 한국문학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장르소설’과 ‘본격소설’로 이해하고, 화이트헤드가 그 둘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 유의미한 작업을 발표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지적은 “SF와 ‘판타지’의 길고 위대한 전통을 가진 영미권에서도 장르소설은 리얼리즘 소설에 비해 한 단계 아래에 있다는 편견이 없지는 않”다는 점이며(문형준 59), “화이트헤드의 『제1구역』 전까지 [좀비 이야기와 소설이] 문학에서의 ‘진지한 작품들’로서 관심을 얻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Bishop 90).

6) 이하 작품과 작품 속 언급되는 용어는 국내 번역서 『제1구역』(김승욱 옮김, 은행나무, 2019)을 참조했고, 필요시 일부 수정했다.

다. 소설의 배경을 대도시의 전형으로서 손꼽을만한 뉴욕 맨해튼으로 특정한 데서 시작해, 재앙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일종의 유사 정부이자 독점 기업 형태의 버펄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있는 불박이 망령들과 또 다른 방식으로 과거이자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생존자들까지, 『제1구역』은 포스트-아포칼립스 좀비 서사의 외피를 입고도 실상 재앙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앙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거가 미래를 추동하고 있는 텍스트의 내부의 서사는 텍스트 바깥의 현재 우리의 세계를 지시하며 비판적 거울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제1구역』에서 사건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전-아포칼립스적 요소들을 살피며 과거와 같은 방식이 희망의 전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소설의 열린 결말을 통해 화이트헤드가 취하는 재앙의 시대에 대한 다른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뇌를 부수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고, 단 하나의 인간도 남지 않을 때까지 증식하는 존재”(김봉석·임지희 19) 앞에서 미래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상상될 수 없다. 맹목적인 낙관주의야말로 독일지 모른다. 오히려 포스트-아포칼립스의 미래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과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Whitehead, *Zone* 40)<sup>7)</sup> 다시 추동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II. 뉴욕 그리고 ‘미국 불사조’와 ‘버펄로’

뉴욕에 살고 싶던 남자가 조금은 달라진 뉴욕에 살고 있는 이야기인 『제1구역』은 마크 스피츠가 유년시절 방문했던 뉴욕의 기억들로 시작한다. 마크 스피츠는 과거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맨해튼 다운타운의 라피엣 가(downtown on Lafayette)의 로이드 삼촌(Uncle Lloyd)네 집에서 이미 “요동치는 도시 풍경”(Whitehead, *Zone* 12)과 “괴물 영화”를 바라보며 도시의 황량함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소년 마크 스피츠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14)에 대해 상상하며, 이곳이 “비스듬한 각도에서 바라보면” “해체”되는 것이 보이고 “빈약한 피조물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기억한다. 어린 시절부터 뉴욕에 살고 싶었던 마크 스피츠의 바람은 재앙 이후에 실현된다. “최후의 밤”(Last Night)(13) 이후 생존을 위한 일련의 고투를 거친 그가 최종적으로 당도한 곳이 맨해튼 남쪽의 제1구역이었다. 망령들이 점령했지만 이 도시의 “주소는 똑같았다. 결함 있는 사고방식도 똑같았다. 이 도시가 다른 곳으로 바뀐 것

7) 작품에 대한 인용은 Colson Whitehead. *Zone One*. London: Vintage, 2012를 따른다.

은 아니었다. 여기는 여전히 뉴욕이었다.”

화이트헤드는 지속적으로 뉴욕을 이야기해왔다. 『뉴욕의 콜로서스』(*The Colossus of New York*, 2003)와 『새그하버』(*Sag Harbor*, 2009)는 그 제목들이 이미 뉴욕을 가리키고 있고, 『직관주의자』에서는 배경이 되는 도시의 명칭이 드러나진 않지만 맨해튼이라는 사실이 유추된다. 그리고 『제1구역』에 이르러 맨해튼은 아포칼립스적 폭격을 맞게 된다. 『제1구역』에서 뉴욕은 마크 스피츠를 경유한 화이트헤드의 과거 기억이 맞물려있는 일종의 상상적 보고서다. 1970년대에 유년시절을 보내며 “지저분하고, 곳곳에 잔해들이 있고, 공공기물 파손자들이 장악한” “폐허가 된 뉴욕”을 상상했다고 밝힌 그는 『제1구역』에서 작동하는 뉴욕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월 가의 새벽 2시와 닮았다”고 말한다(Whitehead, “Destroying” 83). 화이트헤드는 익히 알려져 있고 상징적인 브로드웨이(Broadway)나 커널 가(Canal Street) 주변으로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몰아넣고 괴물들로부터 생존자들을 흠어지게 만들며 맨해튼 풍경을 변형한다(Rudin).

『제1구역』에 대한 중론은 9·11 테러라는 미국의 국가적 트라우마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제1구역』에서 뉴욕은 미국의 제유다(Bishop 90). 단순히 뉴욕 혹은 미국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불가해한 비극과 같은 사건 혹은 트라우마 후에 어떻게 문화가 희망을 재구축하고 문화 그 스스로를 재건설하는지에 대한 헌정”(Fain 173)을 포함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헌정은 문화를 구축하는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핑크빛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는 “9·11 다음에 특히 만연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소설들에서의 “미국식 낙관주의에 대한 재확인”과 “과거에 바라던 미래로부터 [앞날을] 건설하는 오랜 미국의 능력이자 치유를 가능하게 하려 역사의 상처를 읽으려는 현대 미국의 경향”(Cohen 186)을 비판한다. 화이트헤드는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대신 맨해튼을 파괴시키고 좀비들이 돌아다니게 만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존하고 있는 이전 시대의 “시스템”(Whitehead, *Zone* 237)을 제시하며 낙관주의적 추동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한다.

버펄로는 “재건의 요람”인 동시에 “나일강 같은 곳”이자 “미래를 주조하는 곳으로 떠받들어지고”(54) 있다. “시험적인 관료주의”(131)가 있고 유사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곡식 절반”(58)이 가고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뛰어난 사람”(54)들이 보내진다. 버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장인물들은 많지만, 버펄로의 외관이나 주재하는 인명수와 같은 실제적·경험적 언급들은 작품 속에

서 모두 괄호쳐져 있다. 이 유사 정부는 자신의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대신, 생존자들을 규합하고 해야 할 일들을 배당하고, 그들을 감독할 관리자를 보낸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버펄로가 희망과 낙관주의를 끊임없이 주조하는 방식으로 편제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였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자, 반쯤 정신을 놓은 난민,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때투성이의 가없는 무리가 아니라 ‘미국 불사조’였다.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불사조’로 줄여서 부르기 시작했고, 이 말이 정착지에서 인기를 끌었다. 정착지들 역시 새로이 포장되었다. 캠프 14는 ‘새로운 전망’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로어노크는 ‘활활 흐르는 개울’이 되었다. 마크 스피츠가 처음으로 경험한 민간 캠프의 이름은 ‘행복한 땅’이었다.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옆 출입문에 걸려 있는 이 이름을 보고 실제로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It was a new day. Now, the people were no longer mere survivors, half-mad refugees, a pathetic, shit-flecked, traumatized herd, but the “American Phoenix.” The more popular diminutive pheenie had taken off in the settlements, which also endured their round of cosmetics, as Camp 14 was rechristened New Vista, and Roanoke became Bubbling Brooks. Mark Spitz’s first civilian camp was Happy Acres, and indeed everyone’s mood did brighten a bit on seeing that name on the gate next to the barbed wire and electric fencing. (필자 강조; Whitehead, *Zone* 117-18)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미국 불사조”라고 부른다. 스스로를 명명하는 것에서부터 수뇌부에 의한 정착지의 변경되는 이름까지 『제1구역』은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전 시대의 정부·기업의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혼합된 양상을 보여준다. “정부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브랜드와 광고들의 논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과 대조를 이룬다”(Lanzendorfer 41). “주로 상업적 광고에 의해 생성되는 낙관적인 분위기와 기운찬 연상을 반영”(41)하고 있는 “새로운”, “활활 흐르는”, “행복한” 등의 수식어들로 정착지가 채색될 때, 자칭 “불사조”들은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실제적인 행위들의 고투들을 잊고 기업화된 유사 정부에 복무하는 자본주의적 부속품으로 전락한다는 사실도 있다.

『제1구역』에서 트로먼하우저 세쌍둥이(Tromanhauser the triplets)는 생존자들로 하여금 희망을 바라보는 무의식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파괴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Whitehead, *Zone* 63)으로서 세쌍둥이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한다. “불사조들에게 이 아기들은 희망이었다. 세쌍둥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 버펄로가 내일 역병의 백신이나 괴로운 역병의 진행 과정을 되돌리는 법을 찾아냈다고 발표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트로먼하우저 세쌍둥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64). 그러나 세쌍둥이들의 실체에 대해서도 소설은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sup>8)</sup> “빈번하게 언급되지만 결코 등장인물들로서 나타나지 않는” 세쌍둥이들은 “오직 형상으로서만 존재”하며 실상 생존자들에게보다 “기능적으로 사회 질서를 회복하려는”(Sorensen 582) 이들에 의해 고안된 정치적 책략일 여지로 남는다.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의 「토요일」의 말미에서 세쌍둥이들은 아예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셋 중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는 대화가 오가지만, 그 살아남은 아이가 셋 중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소설의 중반부를 넘어설 즈음 등장하는 버펄로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러 온 메이시 씨(Ms. Macy)는 이전 시대의 자본주의적·이데올로기적 유산들을 체화한 인물이다. 그녀의 이름이 미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유통업체의 백화점 상호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메이시 씨는 더 이상 물건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는 뉴욕의 “고급 의류 상점, 마지막 진열품”(Whitehead, *Zone* 238) 앞에서 여전히 감탄사를 내지르며 반가워하는 인물이다. 진장이 된 세계에서 “검은색 펜슬 스커트와 하얀 블라우스”(237)를 단정히 차려입고 있는 그녀는 역병 이전의 열심히 일하는 기업의 여성 임원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재현한다(Hicks 126). 메이시 씨는 버펄로와 뉴욕의 미래에 놀라울 정도의 찬사를 보내며, 유사 정부의 기치를 설파한다.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그 모든 국가수반들과 사절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룩해놓은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해봐요. 당신들은 많은 것을 해냈어요. [...] 그 상징성만 해도 정말. 이걸

8) 우선 세쌍둥이의 엄마인 도리스(Doris)가 남편을 잃고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먹으며 6개월을 버텨는지”(Whitehead, *Zone* 63)에 대해서, 즉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지만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선 캐묻지 않는다. 또한 세쌍둥이의 퇴원을 알리는 중위(the Lieutenant)는 대원들에게 “배급받은 식량 중 일부를 아이들에게 기증하고 싶다면, 나가기 전에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면 된다”(64)고 말한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을 먹을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지점은 그 누구로부터도 의문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해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Whitehead, *Zone* 245). 메이시 씨가 생존자들을 독려하는 방법은 “이 모든 게 다 그 미래를 위한 일”(244)이라고 거듭하는 것이다.

정착지의 이름이 포장되고, 아이들이 희망이 되고, 뉴욕과 미국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낙관이 주조하는 방식은 하나의 “시스템”(237)처럼 기능한다. “이 세상은 진창이 되, 위계질서, 책무, 점점 늘어나는 서류작업이 있는 잘 정돈된 진창”(237)이라는 마크 스피츠의 표현처럼, 생존자들의 근미래는 서류화된 “위계질서”, “책무”들로 덮여버린다. 그들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미래를 위한 환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한다. 책임자들은 생존자들이 처리한 일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신 서류를 넘기거나 보거나 작성한다. 도시의 풍경이 달라졌고 일의 양상이 달라졌지만, 생존자들은 ‘양말과 신발을 사야겠다’고 다짐하거나 ‘더 좋은 방위복을 입을 수 없을지’에 대해 생각한다. 공장에서는 과거의 “‘사커맘’<sup>9)</sup>들이”(37), “값싼 노동력”(58)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다. 『제1구역』의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세계는 “계속되는 불안정한 노동을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의 순간들에 관해” 꼬집는다(Martin 162). 시스템은 드러나지 않지만 선전적인 형태로 자신의 영향력을 생존자 모두를 향해 뻗힌다. 그것의 작동방식은 전-아포칼립스의 세계에서와 다르지 않고, 전-아포칼립스 세계를 다시금 구축하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그 안에서 “종말 후 스트레스 장애”(Post-Apocalyptic Stress Disorder)(Whitehead, *Zone* 81)에 시달리거나 혹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열망에 심취해 자각할 수 없는 생존자들은 “다가오는 붕괴의 신호들을 오인한다”(Hoberek 407).

### Ⅲ. ‘보통’ 사람이 망령의 바다로

데렉 마우스(Derek C. Maus)는 화이트헤드의 작품들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외성”(exceptionality)을 칭송하기보다 의미 있는 존재를 개척하는 방식을 발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논평한다(xi). 『제1구역』의 마크 스피츠야말로 예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 작품 속에서 그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은 마크 스피츠가 어린 시절부터 “전형적”인 사례, ‘대다수’의 사례, ‘평균적’인 사례”(Whitehead, *Zone* 18)에 속했다는 것, 즉 그가

9) 역주에 따르면, “전형적인 미국의 중상류층 백인 엄마”를 지칭한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a mediocre man)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전-아포칼립스적 세계에서 각각 “사회부적응자”(42)와 “모범생”(39)으로 유추되는 거리와 케이틀린과 비교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마크 스피츠처럼 보통 사람이 가지는 중간자적 위치야말로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세계를 살아갈 생존방식이 된다. ‘최후의 밤’은 전-포스트아포칼립스적 세계를 “생물학적으로 비인간화된 좀비들”과 “암울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생존자들”(Hoberekm 410)이라는 획일화된 단 두 가지의 세계로 재편한다. 이 사회구조는 계층을 조건으로 전제하지 않으며, 누구나에게 생존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절대적 범주일 때(Hicks 133), 마크 스피츠의 ‘보통성’은 이 균질화된 세계의 성질과 어울리게 살아남기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최적화된다.

화이트헤드가 오늘날에 대해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충분히 모든 종류의 좀비들로 충분한 것 같다”(“Antidote”, 101)고 언급한 것과, 마크 스피츠에 관해 “그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보통 사람”(“Destroying” 83)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생존자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다”고 말한 것은, 『제1구역』의 좀비들과 재앙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생존자들이 모두 실상 다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요일』의 초반부에 마크 스피츠는 창밖의 뉴욕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도시 시민들의 모습이 조각조각 전시되어 있었다. 불합리한 추론을 좋아하는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 같았다”(Whitehead, *Zone* 13). 이 문장은 『제1구역』의 전개방향과 주제를 메타적으로 암시하는 텍스트 내부의 제사(題詞)로 읽기에 손색이 없다. 뉴욕과 미국에다가 포스트-아포칼립스 좀비 서사를 사고 실험한 “큐레이터는 다름 아닌 바로 [화이트헤드] 자신이다”(Hoberek 409). 그리고 그는 도시 시민들이자 좀비들을 전시한다. 세계는 변했으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향한 세계 내 변하지 않은 존재들이 세계의 과거를 통해 세계를 그린다는 것. “이 도시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유의 역병이 번지고 있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홀리칸 과거의 실패자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돈 한 푼 없으면서 망상에 빠져 헤쳐 나오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 불운이 버릇이 된 사람으로 변했다”(Whitehead, *Zone* 176).

마크 스피츠와 팀원들과 뉴욕의 건물들을 수색하며 재앙 이전의 잔해들과 사람들을 만난다. “망령들은 한때 담보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고, 광고에 나오는 아침 식사 시리얼을 식탁에 올리던 사람들이었다. [...] 망령들 중에는 놀라운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매달 기부를 하고, 역시 지금

은 죽어버린 금융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퇴직연금을 현명하게 분산투자 하고, 머릿속에서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의 경계선을 자기 동네 지도와 겹쳐보던 사람들도 있었다”(41). “이런 괴물들에게서 그[마크 스피츠]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자주 있었다. 그들은 그가 알고 지냈거나 사랑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였다”(28). 오메가 팀원들은 불박이 망령들을 처리할 때마다 망령들의 과거 삶을 상상하는 놀이를 즐기지만, 망령들의 신분증을 뒤질 때마다 나타나는 마크 스피츠의 구역질-PASD 증상-은 “21세기의 삶을 보여주는 잔해”(77)가 사실은 곧 자신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괴물을 쓰러뜨리면서 각자 다른 것을 보았다”(312). “우리 자신이 그들을 소재로 만들어 낸 괴물을 볼 뿐이다”(313).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중위는 불박이 망령들과 생존자들의 관계를 날카롭게 간파한다. 생존자들은 망령들과 자신들을 구분하지만, 그는 그 환상의 뒷면을 지적한다. “나는 지금도 역병 이전의 나와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자꾸만 말해”(230). 중위는 불박이 망령들이야말로 자기네들의 방식으로 더 ‘인간적’으로, 버펄로와 미국 불사조들이 되돌리고 싶어 하는 정상 상태의 일상에 어울리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우리가 불박이 망령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해골들인데, 치료할 수도 없고. 놈들이 선택한 장소가 어디든, [...] 아마 평소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229). “놈들은 언제나 자신한테 가장 완벽한 순간을 살고 있지”(231). “세상이 변한 모습을 마침내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중위는 “버펄로가 정한 원칙을 비난하는 행위”로서 결국 “자살”을 행한다(295).

중위의 자살은 게리가 불박이 망령에 의해 공격을 받는 사건과 함께 버펄로와 미국 불사조들이 건설하려는 과거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린다. 오메가 팀은 수색 중에 과거의 화려했던 거대 도시 뉴욕과 어울리지 않는 작은 점집에 들어간다. 그곳에 집시로 보이는 불박이 망령이 있다. 그들은 으레 그래왔듯이 망령을 가지고 말장난을 친다. 그러다가 게리는 “따당 집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나요?”(331)라며 망령의 손에다 자신의 손을 올려놓는다. 그때 생존자들이 해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믿었던 불박이 망령이 그를 공격한다. 미래를 점 봐주는 과거의 집시 망령이 “그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미국의 번영이라는 꿈속에 자신을 집어넣는 몽롱한 꿈”(94)을 놓지 못하고 “불사조 낙관주의를 유지”하던 게리를 공격하는

이 사건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게리가 받은 공격은 그가 체현한 버펄로의 낙관주의가 처단당하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제1구역』은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서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Hicks 130)린다. 곧 제1구역을 지키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도시는 망령들에 의해 점령당하기 시작한다.

『제1구역』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 마크 스피츠가 마주하는 건 이전 시대의 유물처럼 존재하고 있던 불박이 망령들 대신 “존재의 무자비한 혼란이 체화된 형태”(Whitehead, *Zone* 373)의 “성난 망령들”이다.

그들이 애당초 왜 이 섬을 수리하려고 했는지 그는 이제 알 수 없었다. 깨진 유리는 깨진 유리로 놔두는 것이, 유리가 더욱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결국 가루처럼 흩어지게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여기저기 갈라진 틈새들 또한 점점 넓어지게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끝나버렸고,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있었다. 그들이 이곳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Why they'd tried to fix this island in the first place, he did not see now. Best to let the broken glass be broken glass, let it splinter into smaller pieces and dust and scatter. Let the cracks between things widen until they are no longer cracks but the new places for things. That was where they were now. The world wasn't ending: it had ended and now they were in the new place. They could not recognize it because they had never seen it before. (필자 강조; Whitehead, *Zone* 373)

화이트헤드가 암시적으로 내비치는 결론은 여기에 있다. “망가진 도시를 다시 채울 존재들”(374)은 망령들뿐이라는 것. 그는 “포스트-아포칼립스를 다룬 다른 이야기들이 선택하는 대안 대신, ‘세 번째 가능성’(a third possibility)을 선택한다”(Sorensen 561). 포스트-아포칼립스 세계는 전-아포칼립스 세계와는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없고, 소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결말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재앙 이후를 살아내며 마크 스피츠가 가졌던 ‘예외적인’ 특징은 버펄로나 미국 불사조들이 조성하거나 느끼는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피

나치가 임시적이고 모든 희망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던 마크 스피츠가 역설적이게도 유일하게 웃음을 내뱉던 순간은 장벽이 무너진 시점이었다. 그는 전-아포칼립스적 세계로의 추동을 자아내던 상상적 바람이 무너져버린 제1구역의 벽처럼 줄곧 알파해왔다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대면한다. “장벽을 통해 넘어 온 것은 망령들이 아니라 황야 그 자체였다.” 그간 “이 일이 모두 끝나면’이라든가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같은 말을 결코 하지 않”(Whitehead, *Zone 42*)았던 그는 “망령들의 바다로 걸어 들어”(375) 가기를 선택한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 한없이 보통 사람이, 재앙 이전의 보통 사람들이었던 망령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 IV. 결론

마크 스피츠는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그리는 버펄로와 미국 불사조의 낙관주의에 희망을 신지 않았지만, 종종 자신의 아이에 대해 상상하곤 한다. “목시룩이 무슨 의미예요, 아빠?” 그러자 아버지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입을 열었다. ‘미래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라는 뜻이야’(Whitehead, *Zone 174*). 여기에 화이트헤드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제1구역』을 엮은 질문이 있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느끼기 보다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Whitehead, “Rumpus” 96)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세상에 대해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야하는가? 그건 과거를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제1구역』은 9·11이 그랬듯이 “익숙한 것들 속에서 낯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베일을 벗기며” 여전히 “진행 중인 재앙의 세계”를 제시한다(Gauthier 109). 『제1구역』을 출간하며 이 작품이 “2010년경의 국가적 분위기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읽혔으면 한다”(Jones 재인용)는 바람을 덧붙였던 화이트헤드의 기대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에 들어서 더욱이 그 몸집을 불려가는 후기자본주의적 상상, 테러의 위협, 기후의 변화, 각종 바이러스들과 전염병 등이 계속해서 현대인들의 내면을 공포로 몰아넣는 와중에, 우리를 비롯한 좀비들이 언제나 도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령들의 바다 속으로 향하는 마크 스피츠는, 결국 우리들이다.

## Work Cited

- 김봉석, 임지희. 『좀비사전: 당신이 좀비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서울: 프로 파간다, 2016.
- 드래즈너, 대니얼 W. 『국제정치이론과 좀비』. 파주: 어젠다, 2013.
- 문형준. 「왜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은 인간을 살려두는가? 인류세 시대 서사로서의 포스트아포칼립스 소설」. 『안과 밖』 43 (2017): 59-78.
- 박혜영. 「콜로니얼 좀비의 귀환과 포스트콜로니얼 묵시록의 공포」. 『영미문학연구』 31 (2016): 5-33.
- 후지타, 나오야. 『좀비 사회학』. 신정우 옮김. 서울: 요다, 2017.
- Bishop, Kyle William. *How Zombies Conquered Popular Culture: The Multifarious Walking Dead in the 21st Century*.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5.
- Buell, Frederick. “Post-Apocalypse: A New U.S. Cultural Dominant.” *Frame* 26.1 (2013): 9-30.
- Cohen, Samuel S. *After the End of History: American Fiction in the 1990s*. Iowa City: U Of Iowa P, 2009.
- Dinnen, Zara. *The Digital Banal: New Media and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New York: Columbia UP, 2018.
- Drezner, Daniel W.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Zombies*. Princeton: Princeton UP, 2011.
- Fain, Kimberly. “Colson Whitehead’s *Zone One*: Postapocalyptic Zombies Take over Manhattan in the Age of Nostalgia, Despair, and Consumption.” *Street Lit: Representing the Urban Landscape*. Ed. Keenan Norris. Lanham: Scarecrow, 2014. 173-87.
- Hicks, Heather J. “‘Stop! Can you Hear the Eagle Roar?’: Zombie Kitsch and the Apocalyptic Sublime in Colson Whitehead’s *Zone One*.” *The Post-Apocalyptic Novel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dernity beyond Salvag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6. 105-35.
- Hoberek, Andrew. “Living with PASD.” Rev. of *Zone One*, by Colson Whitehead. *Contemporary Literature* 53.2 (2012): 406-13.
- Jones, Thomas. “Les Zombies, c’ est vous.” *London Review of Books*. LRB, 26

- Jan 2012. Web. 26 Jan 2020. <<https://www.lrb.co.uk/the-paper/v34/n02/thomas-jones/les-zombies-c-est-vous>>
- Lanzendorfer, Tim. "The Politics of Genre Fiction: Colson Whitehead's *Zone One*." *C21 Literature: Journal of 21st-century Writings* 3.1 (2014): 39-52.
- Martin, Theodore. *Contemporary Drift: Genre, Historicism, and the Problem of the Present*. New York: Columbia UP, 2017.
- Maus, Derek C, ed. Introduction. *Conversations with Colson Whitehead. Jackson*: UP of Mississippi, 2019. ix-xxiii.
- Rudin, Michael. "The Forbidden Thought." Rev. of *Zone One*, by Colson Whitehead. *Fiction Writers Review* 14 February 2012. Web. 01 February 2020. [<http://fictionwritersreview.com>]
- Sorensen, Leif, "Against the Post-Apocalyptic Narrative Closure in Colson Whitehead's *Zone One*." *Contemporary Literature* 55.3 (2014): 559-92.
- Whitehead, Colson. "Colson Whitehead on His New Zombie Novel, *Zone One*, Destroying New York, and Apocalyptic Capitalism." Interview by. Alyssa Rosenberg. Derek C. Maus 82-85.
- \_\_\_\_\_. "Colson Whitehead: Each Book an Antidote." Interview by. Nikesh Shukla. Derek C. Maus 98-103.
- \_\_\_\_\_. "The Rumpus Interview with Colson Whitehead" Interview by. Nancy Smith. Derek C. Maus 93-97.
- \_\_\_\_\_. *Zone one*. London: Vintage, 2012. [화이트헤드, 콜슨. 『제1구역』. 김승욱 옮김. 서울: 은행나무, 2019.]

Abstract

## Towards ‘the Sea of the Dead,’ Instead of ‘Buffalo’ and ‘the American Phoenix’

Jeong, Heeye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lson Whitehead’s the zombie post-apocalypse novel, *Zone One*, focusing on how he criticizes optimism about future and suggests different kinds of alternative on future. The novel consists of three parts with detailed protagonist’s flashbacks on New York city, spanning from “Friday” to “Sunday” after ‘Last Night.’ Mark Spitz, one member of three-man sweeper team, has been clearing zombies in eponymous ‘Zone one’ located in Manhattan with co-workers. Depicting Mark Spitz’s a routine in post-apocalyptic world, what Whitehead pays attention to is that the future driven by the past is an inappropriate way, which ‘Buffalo’ and ‘the American Phoenix’ do in the novel. Also, by leaving an open ending that Mark Spitz makes a choice to walk into ‘the sea of the dead,’ Whitehead leaves questions about the world after disaster and let us re-imagine the closure of post-apocalyptic novel. The theme of *Zone One* resonates with zombies and contemporary issues, reflecting our anxieties such as neo-liberal ideology and post-capitalistic mechanism, terrorism, climate change and viruses and contagion.

### Key Words

Colson Whitehead, *Zone One*, speculative fiction, post-apocalypse, zombie, after disaster



##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부정문 중의성 이해도에 관한 연구

김요한

### 제1장. 서론

본 논문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부정문의 중의성(ambiguity)에 관한 이해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부정(negation)은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이 옳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그 사실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언어현상이다(Brown, 2006). 이러한 부정문에서는 중의성이 일어나는데, 중의성이란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이 하나의 의미 이상을 가지는 언어현상을 말한다(Hartmann and Stork, 1976: 11). 영어 부정문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작용역(scope)에 따라서 중의성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이라고 부르고(Greenbaum and Quirk, 1990), 두 번째로 상위 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으로 인해 중의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이라고 부른다(Horn, 1985, 1989). 여기서 상위 언어적 부정이란 앞선 발화에 대하여 논평이나 수정을 가함으로 부정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 (1) a. Every student didn't solve the problem.  
b. None of the students solved the problem.  
c. Not every student solved the problem.

(Musolino, 1999: 6)

- (2) I don't like you, I love you.

(Horn, 1989: 547)

(1a)의 문장은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의 예이다. (1b)는 양화사 every가 부정어 not보다 넓은 작용역(every>not)을 가지므로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되며, (1c)는 부정어 not이 양화사 every보다 넓은 작용역(not>every)를 가지므로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2)의 문장은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의 예이다. 첫 번째 절의 'don't like you'에는 보통 'not love you'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절 'love you'라는 표현이 발화되면 한 문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이 발생하므로 중의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상위 언어적 부정은 문장 (2)와 같이 한 문장에서 중의성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첫 번째 절의 발화를 부정하고 두 번째 절의 발화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청자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이 문장을 받아들인다(Horn, 1989; Burton-Roberts, 1989).

지금까지 영어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과 관련한 연구는 양화사를 포함한 부정문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능력에 따라 해석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Lidz and Musolino, 2002; Conroy, 2008; O'Grady et al., 2009; Lee, 2009; Kim, 2010; Chung, 2013; 김소명, 곽혜영, 2018), 부정문의 화용적 중의성과 관련한 연구는 한국어에서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발생하는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를 실험하는 것이었다(노은주, 주혜리, 고성룡, 2013 Lee, 2016).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과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진 평가지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에 따른 부정문의 중의성 이해도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의성과 관련된 학습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 차이가 있는가?
2.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에 따라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 차이가 있는가?
3.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작용역 중의성, 그리고 화용적 중의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질문

및 논문의 구성을 제시하고, 2장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부정의 개념 및 부정문의 유형과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대상 및 도구, 그리고 연구 절차를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부정문 중의성 이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부정의 개념 및 유형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 (3) a. Negation is contradicting the meaning or part of the meaning of a sentence.

(Richards and Schmidt, 2002: 354)

- b. [...] the negation of a true proposition results in a false proposition; and conversely, the negation of a false proposition results in a true proposition.

(Lyons, 1977: 143)

- c. [...] negatives are considered less polite, contentious, unpleasant or downright threatening. It is one thing to tacitly add to a person's knowledge on the implicit background of non-knowledge. It is another thing altogether to challenge a person's already existing, strongly held (and often strongly asserted) belief.

(Givon, 1984: 324)

(3a)에서는 부정의 정의를 통사적으로, (3b)에서는 의미적으로, (3c)에서는 화용적으로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통사론, 의미론과 관련된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 그리고 화용론과 관련된 부정문의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정이란 문장의 의미를 반대 또는 명제를 반대하는 것을 말하며, 청자가 친숙하게 여기는 성향의 배경이나 청자가 믿고 있는 진실을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 부정의 유형을 문장 부정과 구성소 부정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하여 Jespersen(1924: 329)과 Jackendoff(1969: 218-223), 그리고 Klima(1964: 270-316)는 영어 부정의 유형을 문장 부정과 구성소 부정으로 나누었다. Jespersen(1924: 329)과 Jackendoff(1969: 218-223)는 한 문장 안에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어가 존재할 경우에 그 부정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문장 부정과 구성소 부정으로 구분을 지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Many of us didn't want the war.  
b. Not many of us wanted the war.

(Jespersen, 1924: 330)

(4a)는 부정어 not이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장 부정이라고 하고, (4b)는 부정어 not이 오직 many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소 부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로 Klima(1964)는 문장 부정과 구성소 부정을 구분하는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either-결합(either-conjoining) 여부이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5) a. Publishers will usually reject suggestions, and Writers will not accept them, **either**.  
b. He married a **not** unattractive girl, \*and you did either.  
and you did too.

(Klima, 1964: 270)

(5a)는 부정어와 함께 두 번째 절에 either가 왔을 때 정문이므로 첫 번째 조

건에 의해 해당 문장(5a)는 문장 부정이 된다. 만약 (5b)와 같이 비문이 될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부정은 문장 부정이 아니라 구성소를 부정하는 구성소 부정을 뜻한다.

두 번째 조건은 부정요소동격부가(negative appositive tag) 결합 여부이다. 예문을 보자.

(6) a. The writer will **not** accept suggestions, **not even** reasonable ones.

b. There was some rain **not** long ago, **\*not even** in the desert.  
even in the desert.

(Klima, 1964: 262-263)

(6a)는 부정문과 함께 부정요소동격인 not even이 부가됐을 때 정문이므로 두 번째 조건에 의해 해당 문장(6a)는 문장 부정이라고 할 수 있고, (6b)와 같이 not even이 부가됐을 때 비문이 될 경우에는 부정어가 구성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구성소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 조건은 not을 포함하지 않는 부가의문문(tag-questions without 'not') 결합 여부이다.

(7) a. Writers will **never** accept suggestions, **will** they?

b. He had spoken with her **not** many hours earlier, **\*had** he?  
hadn't he?

(Klima, 1964: 263)

(7a)는 부가의문문으로 will이 왔을 때 정문이 된다, 즉 세 번째 조건인 not을 포함하지 않는 부가의문문이 왔을 때 정문이 되므로 (7a)는 문장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7b)와 같이 not을 포함하지 않는 부가의문문 had가 왔지만, 비문이 될 경우에는 부정어가 문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구성소를 부정하는 구성소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neither 부가문(neither-tags)의 결합 여부이다.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8) a. Writers will **never** accept suggestions, and **neither** will publishers.

- b. He found something interesting there **not** long ago, \*and **neither** did she.  
and so did she.  
(Klima, 1964: 265)

(8a)와 같이 뒷 절에 neither will publishers라는 문장이 왔을 때에 정문이 될 경우에는 네 번째 조건에 의해 앞 절의 부정어 never가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8b)와 같이 뒷 절에 neither를 포함하는 절이 왔지만, 비문이 될 경우 앞 절의 부정어 not이 구성소를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Horn(1989)과 Burton-Roberts(1989, 1999)는 부정의 유형을 기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구분하였다. 기술적 부정이란 진리 조건적 의미인 명제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Horn, 1985, 1989; Burton-Roberts, 1989). Horn(1985, 1989)은 상위 언어적 부정을 명제를 부정하는 기술적 부정과 다르게 이전 발화의 함축과 같은 화용적 측면을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상위 언어적 부정은 문장에서 잘못된 복수형 또는 강세를 부정, 그리고 사용역(resister)을 부정하는 등으로 알 수가 있는데,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9) a. I didn't manage to trap two monGEESE, I managed to trap two monGOOSEs.  
b. He didn't call the [pɒ'lis], he called the [pɒli's].  
c. I'm not a 'colored lady' - I'm a black woman!  
(Horn 1989: 371-373)

(9a)의 예문은 mongoose의 잘못된 복수 형태소 monGEESE를 부정하는 것이고, (9b)는 police의 잘못된 강세 [pɒ'lis]를 부정하는 것이다. (9c)의 예문이 부정하는 것은 각 담화 맥락(discourse context) 안에서 다른 화자에 의해 사용된 사용역(resister)이라고 Horn(1989)은 말했다.

## 2.2. 부정문의 작용역 중의성

### 2.2.1. 부정어와 양상조동사

부정어와 양상 조동사(modal auxiliary verbs)의 관계에 따라 작용역 중의성

이 발생한다(Greenbaum and Quirk 1990). 양상조동사는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인식 양상 조동사(epistemic modal auxiliary verb)와 의무 양상 조동사(deontic modal auxiliary verb)로 나뉜다(Quirk et al., 1985:119).

한편, 양상조동사는 부정어와 함께 쓰일 경우 부정어의 작용역이 양상 조동사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Huddleston and Pullum, 2002). Huddleston and Pullum(2002)은 부정어가 양상 조동사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양상 조동사를 부정하는 것을 외적부정이라 하고, 양상 조동사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정어가 본동사를 부정하는 것을 내적부정이라고 하였다. 양상 조동사에는 내적 부정만 나타나는 조동사가 있는 반면, 외적 부정만 나타나는 조동사가 있고, 내적부정과 외적부정 모두 일어나는 조동사가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 (10) a. You can't be serious.  
       = It is **not possible that** you are serious.  
 b. You don't have to pay that fine.  
       = You are **not obliged to** pay that fine.  
 c. You musn't keep us waiting.  
       = It is **necessary that you don't** keep us waiting.  
 d. I will not know you when you return.  
       = I **predict I don't** know you when you return.  
 e. You shouldn't tell lies.  
       = You are **obliged not to** tell lies.

(Greenbaum and Quirk, 1990: 229)

(10a)와 (10b)는 부정어 not과 양상 조동사can과 have to의 의미를 포함하여 양상 조동사를 부정하는 외적부정이 일어났다. (10c)-(10e)는 모두 양상 조동사를 포함하지 않고, 본동사를 부정하는 내적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적부정과 내적부정이 모두 일어나는 may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 (11) a. You may not come.  
       b. You are **not allowed to** come.

c. It is **possible that you don't** come.

(Greenbaum and Quirk, 1990: 228)

문장 (11)은 양상 조동사 *may*가 문장에서 갖는 기능에 따라 양상 조동사를 부정하는 외적부정(11b)와 본동사를 부정하는 내적부정(11c)로 나뉘는데, 이러한 경우 중의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1b)의 문장을 해석하면 ‘너는 오면 안 된다.’는 의무 양상 조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11c)는 ‘너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인식 양상 조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위의 예문을 표를 통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상 조동사와 부정어와의 관계(김한창 1982: 50)\*

Modal Auxiliary Verbs	Epistemic Modality	Deontic Modality
<b>can not</b>	not+can(not possible)	not+can(not permitted)
<b>may not</b>	may+not(possible not)	not+may(not permitted)
<b>must not</b>	must+not(necessary not)	must+not(obliged not)
<b>not have to</b>	not+have to(not necessary)	not+have to(not obliged)
<b>will not</b>	will+not (predict not)	will+not(willing not/insist on not)
<b>should not</b>	should+not(necessary not)	should+not(obliged not)

\* 여기서 NOT+MODAL은 외적부정, MODAL+NOT는 내적부정을 표시한다.

### 2.2.2 부정어와 부사어구

부정어가 부사어구의 의미적 범위 밖에 있게 되면 부정어가 넓은 작용역(wide scope)을 가진다고 하며, 부사어구의 의미적 범위 안에 있게 되면 부정어가 좁은 작용역(narrow scope)을 가진다고 한다. 예문을 보도록 하자.

(12) a. I don't really know him. ['It is not the real truth that I know him',  
ie 'I don't know him *well*']

b. I really don't know him. ['The real truth is that I don't know him',  
ie 'I don't know him *at all*']

(Quirk et al., 1985: 587)

(12a)는 부정어가 부사구 *really* 앞에 왔기 때문에 부사구 범위 밖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정어가 부사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이 되는 반면에, (12b)는 부정어가 부사구 뒤에 왔기 때문에 부사구 범위 안에 있게 되고, 부정어가 부사구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사구가 문장의 말미에 위치할 경우에 부정의 영역에 포함한다. 그러나 부사구에 강세가 주어짐에 따라 부정의 작용역 밖으로 놓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작용역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Huddleston and Pullum, 2002: 794-795). 아래의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13) a. Liz didn't delete the backup file intentionally.  
 b. Liz deleted the backup file, but it was not intentionally.  
 c. Intentionally, Liz did not delete the backup file.

(Huddleston and Pullum, 2002: 794-795)

(13a)의 문장은 일반적으로 (13b)와 같은 해석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13a)의 부사구 *intentionally*에 강세를 두게 되면, (13c)와 같은 넓은 작용역을 가지게 되는 해석을 가지게 되므로 작용역 중의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2.2.3 부정어와 양화사

부정어가 양화사의 의미적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따라 작용역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Kwak, 2010; Musolino, 1999; Lasnik, 1972).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4) a. Every horse didn't jump over the fence.  
 b. Any horses didn't jump over the fence.  
 c. Some horses jump over the fence, but not others.

(Musolino, 1999: 243)

(14a)의 문장은 전칭 양화사 *every*가 주어자리에 위치한 경우이고 작용역 중의성이 일어난 문장이다. 전칭 양화사 *every*가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게 될 경우(*every*>*not*)에 (14b)의 해석 '어떠한 말들도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다 즉, 한 마리의 말도 예외 없이 모든 말들이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칭 양화사 every가 부정어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지게 될 경우(not>every) (14c)의 해석 ‘몇몇 말들은 울타리를 넘었지만, 나머지는 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양화사 some이 주어 자리에 위치한 예문을 보도록 하겠다.

(15) a. Some students didn't solve the problem.

b. Some students are such that they didn't solve the problem.

(Musolino, 1999: 6-7)

some students는 반드시 부정의 영역 밖에 놓이게 됨으로 (20b)와 같이 부정어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몇몇 학생들은 문제를 풀지 못한 그런 것이다.’)을 갖게 된다.

양화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작용역 증의성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전칭양화사 ‘all/every’가 목적어 자리에 올 경우 다음과 같다.

(16) a. Hannah didn't eat all/every apple.

b. It is not the case that Hannah ate all the apples/every apple.

c. Hanna ate none of the apples.

(Kwak, 2010: 7)

전칭양화사 ‘all/every’가 부정어보다 좁은 작용역(not>every/all)을 가지게 되면, (16b)와 같이 ‘한나가 모든 사과를 다 먹은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가지게 되고, (16c)처럼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every/all>not)을 가지게 되면 ‘한나는 사과를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양화사 some이 목적어 자리에 온 경우이다.

(17) a. The students didn't solve some problems.

b. There exists some problems that the students didn't solve.

(Musolino 1999: 6-7)

양화사 some은 주어 자리에 있든지 목적어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정어

와 함께 쓰일 경우 부정어의 작용역 밖에 위치하게 됨으로 (23b)와 같은 해석이 된다. 해석을 하면 “학생들이 풀지 못한 몇 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지금까지 부정어와 양상 조동사, 부사어구, 양화사가 작용역에 따라 중의성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2.3에서는 부정문의 중의성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 2.3. 부정문의 화용적 중의성

이 장에서는 Horn(1985, 1989)의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일어나는 화용적 중의성에 대하여 대화함축과 척도(scalar)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 2.3.1. 부정어와 대화함축

Grice(1975)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문장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어떤 내용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암시적인 의미를 함축(implication)이라고 하였다. Grice(1975)는 적정조건을 대화 문맥 내에서 특정화자의 믿음, 기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조건으로 간주하고 예비적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적 조건(essential condi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적정조건은 Grice의 대화상의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협동원칙은 화자와 청자사이에는 대화가 진행되어 가는 방법을 서로 제어하는 일방적인 협동원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일반원칙이며 이 원칙은 네 가지 대화격률(conversational maxims)에 근거한 것이다.

#### (18) Conversational Maxims (Grice, 1975: 45-46)

##### A. Quantity

- a.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 b.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 required.

##### B. Quality

- a.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b.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 C. Relation

Be relevant

## D. Manner

- a.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 b. Avoid ambiguity.
- c. Be brief.
- d. Be orderly.

(18)를 요약하면, 대화에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자기가 진실하다고 믿는 대로 전후관계에 적합하도록 간단명료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Horn(1989)은 문장에서 화용적 중의성이 일어나는 이유를 Grice(1975: 41-58)가 제시한 네 가지 대화격률을 의도적으로 여기는 상위 언어적 부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격률인 ‘질’과 ‘관련성’을 어긴 경우를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a: Who was that lady I saw you with last night?

b: That was no lady - that was my wife!

(Horn, 1989: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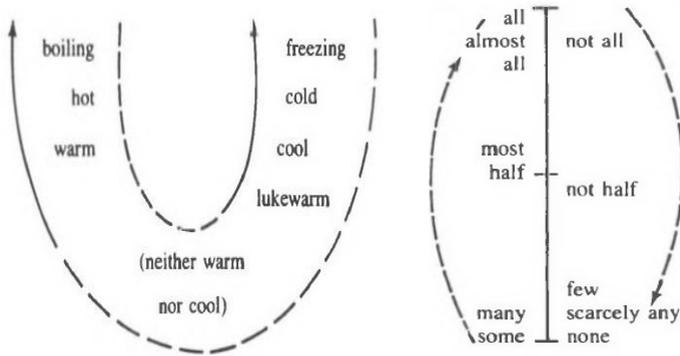
(19b)의 대답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제 만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아내였다.”가 되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보통 (19b)의 아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다(Horn, 1989: 373). 오히려 (19)의 대화를 대화함축의 원리로 본다면, (19a) 화자는 어젯밤 만났던 그 사람이 아내, 엄마, 누이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 이외의 사람을 함축하고 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9b)의 화자는 자기 아내가 숙녀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화는 표면적으로는 (19b)의 화자가 두 번째(질)와 세 번째 격률(관련성)을 어기고 있다하더라도, 여기서 부정되는 내용은 논리적 명제가 아닌 (19a)가 지니고 있던 함축이다. 따라서 (19a)와 (19b)간에는 어떠한 대화상의 모순도 발생하지 않으며 성공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2.3.2. 부정어와 척도

언어에는 *happy*, *warm*, *three* 와 같이 척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으며, 이

러한 단어들을 Horn(1989: 244)은 눈금(gradation)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1>을 통해 온도와 양의 눈금을 살펴보자.

<그림1> 온도와 양의 그래데이션 (Horn, 1989: 244)



<그림1>의 척도를 표현하는 단어들과 부정어와 함께 쓰일 경우 일반적으로 'less than'의 의미를 가진다(Horn, 1989: 242).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20) a. It is not happy.
- b. It is not warm.
- c. It is not three.

(Horn, 1989: 244)

(20)의 각각의 문장들은 'it is not at least happy.', 'it is not at least warm.', 그리고 'it is not at least three'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의 일반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어 not 다음에 나타나는 척도를 표현하는 단어에 강세(pitch accent)를 받게 되고, 이어지는 후속절에 정확한 눈금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게 될 때 오히려 'more than'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정을 상위 언어적 부정이라고 하며,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21a-c)의 문장은 화용적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

- (21) a. I'm not happy, I'm ecstatic.

- b. It is not warm out, it's downright hot.  
 c. He doesn't have three children, he has four.

(Horn, 1989: 384)

(29a) 문장에서 happy에 강세가 오고, 이어지는 후속절에 ecstatic 이라는 척도상 정확한 눈금을 나타내는 표현이 옴으로써, 부정의 일반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happy 단어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선행절의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단언(assertability)에 대한 부정을 부정하는 상위 언어적 부정이 일어남으로 화용적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 (29b)와 (29c) 같은 경우에도 warm과 three에 강세가 오고, 후속절에 척도상 보다 적확한 표현이 오게 됨으로써, 앞절의 단언을 부정하는 상위 언어적부정으로 'more than'의 의미를 가지면서 화용적 중의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 2.4. 선행연구

2.4에서는 부정문의 중의성 연구를 양화사가 포함된 영어 부정문의 해석 선호도 연구와 화용적 중의성과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중 양화사를 포함한 영어 부정문의 해석 선호도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가설로 동형성(isomorphism) 가설과 언어 처리기 기반 가설(processing-based account)이 있었는데, 두 가설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양화사가 포함된 영어 부정문의 해석 선호도와 관련하여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거짓 판별을 통해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다(Lidz and Musolino, 2002; Lee, 2009; O'Grady et al., 2009; 김소명, 곽혜영, 2018). 먼저, Lidz and Musolino(2002), Conroy(2008), 그리고 Chung(2013)은 동형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었다. 동형성 가설이란 문장의 의미 표상(semantic representation)는 표면 구문 구조(surface structure)에서의 선형 순서(linear order)와 일치한다는 것인데, 양화사가 목적어에 포함된 부정문에서는 부분부정의 의미 구조가 표면 구문 구조에서의 선형 순서와 일치함으로써 부분부정의 의미를 더 선호하게 되고, 양화사가 주어자리에 위치하였고, 부정어보다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 구문 구조에서의 선형 순서가 의미 구조와 일치하는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O'Grady et al.(2009), Lee(2009)와 김소명, 곽혜영(2018)은 언어 처리

기 기반 가설을 내세웠는데, 문장요소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사구의 문장 내 위치, 한정사의 종류, 문맥 등과 같은 다양한 단서들을 통하여 그 명사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가설에 따르면, 효율성에 기반을 둔 언어처리기(efficiency-based processor)가 상대적으로 언어처리비용(processing cost)이 낮은 의미의 해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O'Grady et al.(2009)과 김소명, 곽혜영(2018)의 실험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전체부정(양화사>not)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Lee(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과 영어 모국어 화자 모두 전체부정 해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언어 처리기 기반 가설에 의해서 언어 처리 비용이 높은 부분 부정(not>양화사)의 의미는 작업기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처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해석은 전체부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부정문에서의 화용적 중의성과 관련한 실험 연구들이 있었다. 상위 언어적 부정문과 기술적 부정문의 객관적인 의미성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은주, 주혜리, 고성룡(2013)은 평가를 통하여, Lee(2016)는 기술적 부정, 상위 언어적 부정과 관련된 문항들을 중심으로 뇌의 반응을 실험하는 ERP(event-related potential)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두 실험 모두 의미성 차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는데, 노은주, 주혜리, 고성룡(2013)은 기술적 부정에 비해 상위 언어적 부정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다라고 하였으며, Lee(2016)는 기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간의 뇌파간의 뚜렷한 차이를 통해 기존의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험연구임을 밝혔다.

### 제3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부정문의 중의성 해석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능력, 작용역 중의성 이해도, 화용적 중의성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정된 연구대상, 연구 도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1. 연구 대상과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부산·경남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성인 학습자 32명

(여자 26명, 남자 6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대학생 18명, 대학원생 14명으로, 이들의 전공은 영어 관련 전공(영문학, 영어학, 번역학, 영어교육학)을 가진 학습자는 총 20명이었고, 영어가 아닌 다른 전공을 가진 학습자는 12명이다. 영어 능력과 중의성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은 TOEIC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집계 결과 상 그룹(10명), 중 그룹(15명), 하 그룹(7명)으로 나뉘어졌다. 세 그룹의 일원배치분산 분석 결과  $p=.000(p<.05)$ 으로 세 그룹이 영어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집단임을 알 수가 있었다.

연구 도구로는 Quirk(1990), Lasnick(1972), Lakoff(1970), Horn(1989), 노은주, 주혜리, 고성룡(2013)들을 통해 발췌한 문장들로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총 40개의 문항 중 작용역 중의성에 관한 문항은 20개의 문항으로, 화용적 중의성에 관한 문항은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용역 중의성에 관한 문항 중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항은 12개이고,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 문항 8개로 구성했다. 또한 화용적 중의성 평가지는 ‘용인 가능/불가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고, 용인이 가능하다면, 왜 용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유도 함께 서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평가지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제4장. 연구결과 분석 및 논의

### 4.1.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에 대한 분석

상·중·하 세 그룹에서 추출한 설문지 답안은 양화사 관련 8문항에 각 1점이, 그리고 양상 조동사 관련 5문항에 각 1점이, 마지막으로 부사어구 관련 7문항에 각 1점이 배정되어 20점 만점이 최고점으로 정해졌다.

영어 유형별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 분석과 사후다중비교(post-hoc)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의 확률이 .005보다 낮으므로 집단 간(상·중·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다중비교를 통해서도 각 그룹 간 양화사, 양상 조동사, 부사어구 작용역 이해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양화사, 양상 조동사, 부사어구 작용역에 관한 문항에서  $p<.05$ 로 나타나 작용역 중의성에 있어서

세 그룹 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세 그룹 간의 작용역 중의성과 관련한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2>를 통하여 살펴보자.

<표 2> 부정의 양화사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 정답률(%)

	N	every (주어)	all (주어)	two (주어)	some (주어)	every (목적어)	all (목적어)	two (목적어)	some (목적어)
상그룹	10	70	60	80	100	80	70	70	100
중그룹	15	40	27	20	80	33	33	13	73
하그룹	7	0	0	0	85	29	0	0	71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영어 능력과 상관없이 양화사 some이 포함된 부정문의 정답률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작용역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높고, 양화사의 위치에 따라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으로 선호도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형성 가설을 주장했던 Lidz and Musolino(2002)와 Conroy(2008), Chung(2013)의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영어 능력이 낮을수록 작용역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양화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기존의 한국인 성인 학습자들이 보여준 의미 해석 선호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O'Grady et al., 2009; 김소명, 곽혜영 2018).

다음은 양상 조동사의 작용역에 관한 중의성 이해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부정의 양상 조동사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 정답률(%)

	N	should	must	may	will	can
상그룹	10	10	90	60	80	90
중그룹	15	27	53	27	40	20
하그룹	7	0	71	7	33	0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양화사 작용역 중의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양상 조동사의 작용역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특별히 상그룹에서는 should를 제외한 양상 조동사에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다음은 부사어구의 작용역에 관한 중의성 이해도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부정의 부사어구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 정답률(%)

	N	clearly	deliberately	accidentally	intentionally	suddenly	purposely	definitely
상그룹	10	20	10	20	80	100	0	20
중그룹	15	13	13	7	53	67	0	27
하그룹	7	0	0	0	29	71	71	71

<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 문항에서 상그룹이 높은 정답율을 보였기 때문에,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부사어구가 문장 말미에 왔을 때와 부사어구가 부정어 뒤에 왔을 때에는 부정어가 부사어구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부사어구가 부정어 앞에 있을 때에는 부사어구가 부정어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4.2.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분석

설문지 문항은 총 20개로 모두 화용적 중의성이 띄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인이 가능한 문장들이다. 용인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평가 기준은 ‘용인불가능’이라고 응답을 한 경우는 0점, ‘용인가능’이라고 응답을 했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서 잘 이해한 이유가 아닐 경우 0.5점, 마지막으로 ‘용인가능’ 하다고 응답하면서, 이유를 화용적 중의성을 잘 이해한 이유를 작성하였을 경우 1점이 배정되어 총 20점 만점이 최고점으로 정해졌다.

영어 능력에 따른 화용적중의성의 이해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 분석과 사후다중비교(post-hoc)를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이 .05보다

낮으므로 집단 간(상·중·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후다중비교를 통해 각 그룹 간에 화용적 중의성 이해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상그룹과 중그룹, 그리고 상그룹과 하그룹 사이에서는 유의확률이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중그룹과 하그룹 사이에서는  $p > .05$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1)-(40) 까지 세 그룹의 점수표의 비율(%) 표는 다음과 같다.

<표 5>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 문항 응답 점수 분포율(%)

그룹 표기	형식 용인가능+ 적절한 이유 (1점)	용인가능+적절하지 못한 이유 (0.5점)	용인가능+ 이유 없음 (0.5점)	용인불가 (0점)	총합
상그룹	33	6	26	35	100
중그룹	11	23	11	55	100
하그룹	0	9	49	42	100

\* 반올림 소수점 첫째자리

세 그룹 중에서 상그룹이 1점의 점수를 획득한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세 그룹 중에서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그룹의 경우는 용인불가로 응답한 비율이 55%로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그룹의 경우는 용인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그룹의 경우 용인불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므로 세 그룹 중에서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그룹의 경우는 용인가능하다는 응답률이 중그룹에 비해 높지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0.5점의 비율이 49%를 차지하고, 무엇보다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며 용인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0%이기 때문에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는 중그룹보다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세 그룹 중 상그룹이 화용적 중의성 이해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중그룹이 높고, 하그룹이 이해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중그룹과 하그룹 사이의 이해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세 그룹들 간의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 차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상그룹이며, 중그룹의 경우 상그룹과 비슷한 이해도를 보이기는 하나 적절한 이유에 대한 기재가 부족하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하그룹의 경우는 용인이 불가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중그룹에 비해 높지만, 그럼에도 적절한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중그룹보다 이해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 4.3. 영어능력과 부정의 중의성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인 영어능력(상·중·하그룹), 작용역 중의성과 화용적 중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사후다중비교(post-hoc)를 실시하였다. 앞서 연구결과를 통하여서 영어능력과 작용역 중의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화용적 중의성과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부터 영어 능력과 작용역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그리고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 간의 일원배치분산 분석 결과의 유의확률은 .05보다 낮으므로 영어 능력과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평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 다중비교를 통해 그룹간 작용역과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 확률이 상그룹과 중그룹, 그리고 상그룹과 하그룹 사이에서는 유의확률이 .05 보다 낮기 때문에 영어 능력에 따라 작용역/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중그룹과 하그룹 사이에는 유의확률이 .05보다 높기 때문에 영어 능력에 따라 작용역/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pearson상관관계

	영어능력	작용역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
영어능력	1	.757**	.302
작용역 중의성	.757**	1	.561**
화용적 중의성	.302	.561**	1

p<0.01\*\*

위의 표에서와 같이 영어 능력과 작용역 중의성 사이에 .714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영어 능력과 화용적 중의성 간에는 상관계수가 .302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화용적 중의성과 작용역 중의성 간에는 각각 상관계수가 .561로 영어 능력과 화용적 중의성과의 상관관계보다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영어 능력별로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각 그룹별로 pearson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그룹은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점수와 화용적 중의성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717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중그룹의 부정의 작용역 점수와 화용적 중의성 점수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는 -.206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앞전의 실험 결과 분석에서는 화용적 중의성 이해도가 상그룹과 비슷했다고 나왔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이해도와 별개로 화용적 중의성 점수에 있어서 중그룹이 낮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하그룹의 부정의 작용역 점수와 화용적 중의성 점수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는 .570으로 중그룹에 비해 작용역 중의성과 화용적 중의성의 상관관계가 높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종합해보면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상그룹에서만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상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그룹에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제5장. 결론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 부정문의 중요성은 글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정어 not과 양화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Lidz and Musolino, 2002; Conroy, 2008; O'Grady et al., 2009; Lee, 2009; Kim, 2010; Chung, 2013; 김소명, 곽혜영, 2018)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상위 언어적 부정을 통한 화용적 중의성과 관련된 실험연구(노은주, 주혜리, 고성룡, 2013; Lee, 2016)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작용역 중의성과 화용적 중의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부정문 중의성의 이해도를 가늠해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았다. 실험 결과 영어 능력에 따라 작용역 중의성의 이해도, 그리고 화용적 중의성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중 양화사와 양성조동사에 있어서 영어 능력에 따른 이해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반면에, 부사어구 작용역 중의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낮았다. 그러나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상그룹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에서 나타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이해도 차이는 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중그룹과 하그룹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그룹의 경우 용인이 가능하지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비율이 세 그룹 중 가장 높으며, 1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0%이기 때문에, 하그룹이 중그룹보다 더 나은 이해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그룹이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 가장 낮은 이해도를 보였고, 상그룹이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영어능력과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 분석과 사후다중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어 능력과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평균 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그룹과 하그룹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변량 상

관분석을 통하여 Pearson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영어능력과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영어능력과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 사이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과 화용적 중의성 간에는 영어 능력별로 알아보았을 때 상그룹에서는 부정의 작용역/화용적 중의성 사이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두 그룹에서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 번째로 본 논문은 부산·경남에 소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32명을 중심으로 실험연구를 한 것이므로 한국인 학습자들 전체를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제한점은 한국인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차이를 고려해 평가문항 아래에 해당 문항에 관한 한글 해석을 표시해두어서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실제 분석 결과 한글 해석에 의존하여 문제를 푼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세 번째는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 평가와 관련하여, 용인 가능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항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의 부정의 화용적 중의성에 대한 이해도 측정에 있어 정확성에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가능/불가능’ ‘이유’ 등과 같은 기재형식의 평가보다는 뇌파를 측정하는 ERP(event-related potential) 실험이나 시선을 추적하는 Eye-tracking 실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실험일 것이라 생각된다.

## Work Cited

- 김소명, 곽혜영. 2018.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중립적 상황에서의 수량 양화사를 포함한 영어 부정문의 선호 의미에 관한 연구. 『영어학』 18, 535-555.
- 김한창. 1982. *영어 범주동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노은주, 주혜리, 고성룡 (2013), 한국어 상위언어 부정과 기술적 부정의 의미성 차이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언어와 언어학』 60, 55-80.
- Brown, H.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ew York: Longman.
- Burton-Roberts, N. 1989. On Horn's Dilemma: Presupposition and Negation. *Journal of Linguistics* 25, 95-125.
- Burton-Roberts, N. 1999. Presupposition-Cancellation and Metalinguistic Negation: A Reply to Carston. *Journal of Linguistics* 35, 347-364.
- Carston, R. 1996. Metalinguistic Negation and Echoic Use. *Journal of Pragmatics* 25, 309-330.
- Chung, E. S. 2013. Sources of Difficulty in L2 Scope Judgments. *Second Language Research* 29(3), 385-310.
- Conroy, A. 2008. *The Role of Verification Strategies in Semantic Ambiguity Resolution in Children and Adul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Foolen, A. 1991.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Pragmatics* 1, 217-237.
- Givon, T. 1978. Negation in Language: Pragmatics, Function, Ontology. I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69-112.
- Givon, T. 1984. *Syntax Vol. 1: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reenbaum, S. and R. Quirk. 1990. *A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Grice,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L. Jerry (eds.), *Syntax and Semantics 3*.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Horn, R.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Ambiguity. *Language* 61,

- 121-174.
- Horn, R.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rtmann, R. and F. Stork. 1972.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Applied Science Publishers.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ckendoff, R. 1969. An Interpretive Theory of Neg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5, 218-241.
- Klima, E. 1964. Negation in English. In Fodor, J. and J. Katz (eds.), *The Structure of Languag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246-323.
- Kim, M. S. 2010. Korean EFL Learners' Interpretation of Quantifier-Negation Scope Interaction in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1), 163-183.
- Kwak, H. Y. 2010. *Scope Interpretation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umeral Quantifiers and Neg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Lasnick, H. 1972. *Analysis of Negation in English*. Ph.D. dissertation, MIT.
- Lee, S. Y. 2009. *Interpreting Scope Ambiguity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Process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Lee, C. M. 2016. Metalinguistically Negated versus Descriptively Negated Adverbials: ERP and Other Evidence. *Language, Cognition, and Mind* 1, 229-255.
- Lidz, J. and J. Musolino. 2002. Children's Command of Quantification. *Cognition* 84, 113-154.
- Lyons, J. 1977. *Semantics 1*.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 J. 1867. *An Examination of Sir William Hamilton's Philosophy*. London: Longman.

- Morgan, A. 1847. *Formal Logic*. London: Taylor and Walton.
- Musolino, J. 1999. *Universal Grammar and the Acquisition of Semantic Knowledg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Acquisition of Quantifier-negation Interaction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O'Grady, W., M. S. Lee and H. Y. Kwak. 2009. Emergentism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itchie, W. and T. Bhatia (eds.), *The New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69-88.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ichards J. C. and R. Schmidt. 2002.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3rd ed.)*. London: Longman.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Understanding of Negation Ambiguity by Korean EFL Learners**

Yohan Kim

The purpose of paper is to investigate the Korean English learners's understanding of scope and pragmatic ambiguity in English negation. To measure this, English negation ambiguity questionnaire were created. 32 Korean English learner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They were divided into the three groups (advanced, intermediate, and novice) according to English proficiency level. The follow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 three groups of Korean English learners had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scope negation ambiguity( $p$ -value $<0.05$  each): the higher the English proficiency, the higher the understanding of scope negation ambiguity for English quantifiers and modal auxiliary verbs except adverbs. Also, three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gmatic negation ambiguity except between intermediate and novice Korean English learners. Second, the significance of the correlation between scope negation ambiguity and pragmatic negation ambiguity is revealed for the only advanced Korean learners( $p$ -value 0.717).

However, as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the result should be refined by more researches. First, only 32 Korean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which cannot reflect every Korean student. Also, participants tend to depend on Korean interpretation in the questionnaire. Last,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pragmatic ambiguity in negation, the standard of the evaluation is properly not considered, which might affect the result.

**Key Words**

negation, scope ambiguity, pragmatic ambiguity, metalinguistic negation, English, Korean EFL learners

##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박재은

### 1. 서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학이 번역의 주요 소재로 쓰이며 20세기 이후 국제화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도 여전히 주요 번역 소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브라이언 넬슨이 “문학번역은 인간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 중 한 부분”(Brian Nelson 2009)이라고 했듯이 작가에 의해 그려진 문학 작품의 미학적 세계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 사고체계, 그리고 역사적 경험 등을 번역하는 일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세계인들의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만남의 장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번역은 현대인들이 미학적 가치를 지닌 문학의 번역작품을 읽고 깊이 사유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을 잃어버린 메마른 인간성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번역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며, 문학번역은 특히 더 까다롭다. 원문의 모든 요소를 그대로 번역문에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번역가라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상의 등가로 최상의 번역을 만들어 독자들이 원저자의 메시지와 그 속에 담긴 미학적 요소를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기술번역과 같이 단순히 직역으로 번역했을 경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줄 수 없으므로 문학번역은 더더욱 쉽지 않다(최진혁 2008). 한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 영국, 폴란드 등 22개국에 출판되면서 2012년에 맨 아시아 문학상의 영예를, 또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영어번역본이 2016년에 영어로 번역된 출간 작품 중 최고작에 수여되는 맨부커상 인터내셔널의 영예를 안은 이후 한층 더 한

국 내 문학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현재 한국 문학 번역 문화가 안고 있는 번역오류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번역오류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비평하기보다는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 즉 번역가 개인의 결정으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번역작품의 독자들이 번역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읽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어 할 만큼의 감동이 있는 번역에 대한 비평도 함께 하여 더욱 성공적인 번역전략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난 세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비영어권 세계문학 대표작들의 많은 부분이 영어 번역 텍스트의 한국어 증역본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미 영어 번역 텍스트의 증역을 거치면서 충실성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를 세계명작의 우리말 번역본을 읽으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아왔다는 점”(이형진 2008)에서 착안하여 본 소고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소고는 영국 작가 줄리언 반즈의 『The Sense of an Ending』(2011)을 전문번역가 최세희가 번역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영한 문학번역전략에 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후 2장에서는 문학번역과 소설번역, 문학번역비평과 번역전략에 관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3장에서는 분석에 쓰일 텍스트와 원작자 및 번역가를 소개하고,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한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 부분을 살펴보면서 번역가가 사용한 번역전략에 관해, 5장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에 관해 고찰해 볼 것이다. 본 소고는 한 작품의 번역 텍스트 내에서 연구된 내용이므로 분석 결과 도출된 번역전략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생산적인 문학번역비평에 관한 후속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2. 문학번역과 문학번역비평

### 2.1. 문학번역

원작의 언어를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원작이 의미하는 바를 번역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보나 의사전달을 위한 기술번역이면 몰라도 문학번역은 원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의 문체에 맞추어 해석학적, 언어 철학적, 미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번역해내야 하므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번역가에게 주어지는 번역의 자유는 어디까지일 것인가? 특히 문학성이 높은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자유로운 번역을 함으로써 작가의 문체와 문학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해 그저 충실하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번역가가 번역의 자유를 누리되, 원천문화의 독자들이 원문텍스트를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을 번역 텍스트를 읽는 목표문화의 독자들에게서도 끌어낼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옳다(변선희 2002). 너무 지나친 자유를 누린 나머지 원작의 문학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학적 글쓰기의 규범을 지키면서 원작의 장르, 원작자의 문체, 원작자가 의도하는바, 서사 방법에 따라 문학성 구현을 목표로 한 문학번역이 올바른 문학 번역가가 할 일이다.

소설번역은 독자들이 선호하는 장르로써 문학번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설이 가진 무제한적 형식의 자유로움과 일상언어와 맥을 같이하는 소설 언어의 자유로움으로 인해 번역작업에 있어 번역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왕성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재미있어 보이지만 소설번역은 그리 만만치 않다. 소설 언어는 시어에 비해 개별적인 독립성은 약하지만, 각각의 어휘들이 모여서 이루는 허구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다면체와도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번역의 각 단어의 등가성· 문장구조의 등가성· 문장의 의미적 등가성은 전체 텍스트의 등가성 하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소설의 짜임새를 구성하는 이야기, 묘사, 서술 층위의 등가성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설 속에서는 같은 사건이라 해도 다양한 구성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사건의 구성방식에 따라 독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설번역은 언어의 등가체가 아닌 역동적 구조의 등가체를 번역하는 작업이며, 단일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서술적 층위에서 해석한 결과를 번역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다. 번역가가 스토리 전개에만 치중하여 번역한다면 과잉번역이나 결핍번역에 의한 번역오류가 생겨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렇듯 까다로운 문학번역을 하는 번역가들이 실제 번역에서 가지는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 어려움이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번역 이론을 응용한 번역 텍스트 연구를 통해 번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번역전략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문학번역비평인 것이다.

## 2.2. 문학번역비평

번역비평은 번역 수준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번역가에게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주고, 독자들의 작품해석을 도우며, 특정 시대의 특정 주제에 관련된 번역에 관한 생각에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다. 번역비평을 통해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은 제대로 된 번역물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올바른 번역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번역에 대한 평가적, 비평적 성찰로 이해되는 번역비평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평이 꼭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비평에서는 긍정적인 비평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번역비평이 ‘수정해야 할 번역’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따라야 할 번역’에 관한 비평을 통해 성공적인 번역전략에 대한 방법을 고찰한다면 좋은 번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전성기 2007). 하지만, 번역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에 번역비평으로 인한 성과가 그동안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면과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번역가들(전문번역가, 비전문 번역가)의 번역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번역비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비평은 원문 외적인 것들과 언어 외적인 것을 고려한 문학성에 비춘 비평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번역가와 번역비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번역비평을 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번역 작품을 비평할 때 중요시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충실성과 가독성일 것이다. 이상적인 좋은 번역이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번역일 것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충실성과 가독성은 상하 관계가 아닌 선후 관계로서 충실성이 전제된 가독성의 실현이어야 좋은 번역인 것이다(김경희 2010). 본 소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실성은 의미의 충실성에 더불어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임을 밝혀둔다.

## 2.3. 충실성과 가독성

충실성에 대해 수잔 바스넷(Susan Bassnett)은 “번역가가 원작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연관된 것이지, 원작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종속적 개념에 의존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고, 루이스 켈리(Louis Kelly)는 “원저자의 단어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의미의 충실함을 중심적 가치로 인식”했으며,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는 “목표 언어의 문법구조에 적절하도록 번역하면서 원천 텍

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재현하려는 번역 방법”이라고 했다. 문학을 번역한다는 것은 원천 텍스트에 나열된 원래의 시니피앙들을 목표 텍스트에서 그에 상응하는 시니피앙으로 대치하는 단순한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복잡한 의미가 있다. 앙투안 베르만(Antoine Berman)이 얘기했듯이, 비문학 번역은 단순한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문학번역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문학번역의 대상인 “작품”은 원래 쓰인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원천 언어, 목표 언어)를 여러 측면에서 마주치게 만든다. 번역가는 문학 작품을 번역하기 전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먼저 파악한 후, 어떤 번역전략으로 작업을 할지 선택하고, 이후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목표문화에 맞도록 충실하게 번역해야 한다.

해석이론 지지자인 스페인 번역학자 휘르파또 알비르(A. Hurtado-Albir)는 의미 충실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독자가 사용하는 목표 언어에 충실함, 번역 대상인 독자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말하며, 이 중 한 가지에만 충실하고 다른 요소를 무시한다면 원작의 의미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번역가는 원문텍스트에 최대한 충실하게 일대일 대응으로 번역하여 독자들이 마치 외국어 텍스트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목표 언어와 목표문화에 맞게끔 번역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한 “의역”을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예전에는 원천 텍스트를 완벽하게 직역하는 번역을 충실한 번역이라 여겼지만, 지금에 와서는 원저자의 의도, 원문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가 완성도 높은 번역으로 인정받는다. 즉, 충실한 번역은 언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속한 사회의 문화까지 함께 번역하는 것이다. 특히 문학 작품의 번역은 문화번역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은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떠나는 머나먼 여행과도 같은 가슴 설레는 작업이기도 하다. 낯설고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완벽한 언어 구사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역사·문화·사회 전반에 걸친 사전 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권미선 2007:120-121).” 번역학자 뉴마크도 번역가는 원저자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한 번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인지하면서 번역에 임해야 하며, 원문의 형태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실어 원작의 문화적 특성과 이국적 상황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충실성을 고려한 번역은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번역오류를 최소화하고, 문화적 차이

로 인해 발생하는 낯선 내용이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여 독자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다문화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며, 의도적으로 이국적인 요소를 포함해 번역함으로써 독자들이 번역된 해외작품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게 해주는 번역이다.

반면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은 목표문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저자의 의도와 작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적절한 표현의 등가를 찾아 원저자의 의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번역가가 창작의 자유를 너무 누린 나머지 독자들이 원저자의 메시지가 아닌 번역가의 생각을 읽는 것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독성을 위해 번역가는 직역을 택해야 할까 의역을 택해야 할까? 조르주 무넝은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 ‘원작에 묻어 있는 시대의 향취’, ‘원작과의 문화적 거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번역이 직역이라고 하고, 가독성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문을 존중하는 번역이 의역이라고 했다. 라드미랄(Ladmira)은 시니피앙에 매달리는 출발론자들은 랑그 차원의 번역인 직역을 한다고 했고, 시니피앙을 존중하는 도착론자들은 파롤 차원의 번역인 의역을 한다고 했다. 앙투안 베르만(Antoine Berman)과 앙리 매쇼닉(H. Meschonnic)은 둘 다 문학 작품의 작품성, 이국성, 낯섦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직역론을 주장했다. 이들이 번역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용적 텍스트들이 아니라 문학 작품이나 성경 같은 나름의 작품성이 있는 텍스트들인데, 이것을 의역한다면 작품성·이국성·낯섦이 훼손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인 것이다.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 직역이 맞는지 의역이 맞는지에 관한 치열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희재가 자신의 저서인 『번역의 탄생』(2009)에서 번역가들은 번역 시 가장 먼저 문장을 어떤 식으로 번역해야 할지에 관한 번역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했듯이 직역이나 의역이나의 선택은 오롯이 번역가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가독성 있는 번역을 위해서 번역가는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목표문화 내 통용되는 목표 언어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야 하고, 원문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목표 텍스트 독자들을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번역물을 읽을 때 번역 텍스트가 원래 다른 언어로 쓰였다는 사실과 번역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원문텍스트 문화권의 낯선 상황을 목표문화에 친숙한 상황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가독성 있는 번역문은 잘 읽히고 언어적·문체적 생경함이 사라지고, 목표 텍스트 자체가 번역이 아니

라 원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번역가가 번역문 텍스트 문화권에 사는 독자들에게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번역가가 원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가장 적절한 표현을 번역문 텍스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이은숙 2008).

언어학자 사보리가 이야기한 좋은 번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인 “이올배반적 12개 격률”<sup>1)</sup>과 더불어 17세기 프랑스의 대학자 메나즈가 가독적이고 매끄러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을 두고 이야기한 “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Belle Infidele)”<sup>2)</sup>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충실성과 가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번역은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가독성에 너무 치우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반대로 충실성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못난이 모과가 된다. 좋은 번역은 모든 번역가의 꿈이다. 좋은 번역을 위한 번역가의 임무는 원천 텍스트의 독자가 느꼈을 것과 가장 가까운 독서 효과를 위해 매끄럽고 유창한 한국어로 목표 텍스트의 독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목표 텍스트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원천 텍스트의 언어적·문화적 이질감을 최대한 알기 쉽게 번역하여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거리감을 최소화하는 번역이 좋은 번역인 것이다.

#### 2.4. 이국화와 자국화

독일의 철학자 슐라이어마허는 번역가는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문학번역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슐라이어마허는 독자를 저자에게 접근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으며 로렌스 베누티도 그와의 의견을 같이한다. 베누티는 번역가의 가시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

1) 사보리의 이올배반적 12개 격률: 1. 번역은 원문의 단어를 드러내야 한다. 2. 번역은 원문의 사상을 드러내야 한다. 3. 번역은 원작처럼 읽혀야 한다. 4. 번역은 번역처럼 읽혀야 한다. 5. 번역은 원작의 문체를 반영해야 한다. 6. 번역은 번역의 문체를 가져야 한다. 7. 번역은 원작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8. 번역은 번역과 동시대의 것으로 읽어야 한다. 9.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도 상관없다. 10. 번역은 원문에 덧붙이거나 생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11. 운문의 번역은 산문이어야 한다. 12. 운문의 번역은 운문이어야 한다.

2) 17세기 프랑스는 원문에 충실하지 않아도 이국의 작품들을 최대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었는데, 당시 가독적인 번역으로 유명했던 번역가 페로 다블랑쿠(Nicolas Perrot D'Ablandcourt, 1606-1664)의 번역을 메나즈가 이렇게 비판했다. “그의 번역은 내가 투르에서 깊이 사랑한 여자를 연상시킨다. 아름답지만 부정한 여인이었다(이향, 2008, p.32).”

번역전략, 즉 ‘이국화’와 ‘자국화’를 소개했는데 이 전략들은 번역할 텍스트의 선정과 적용할 번역 방법의 선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는 자국화가 영미 문화권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따라 자신의 목표 언어 및 문화적 가치에 맞추어 이국 텍스트를 축소하는 것으로 보고 영미의 번역문화에서 지배적으로 보이는 자국화 현상을 개탄했다. 자국화는 목표 텍스트에서의 이국적 특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유창하며 불가시성을 지닌 번역을 하는 것이며, 가능한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번역전략이다. 자국화가 가능한 텍스트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목표문화의 문학 정전에 충실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국화는 목표 언어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에 의해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이국 텍스트를 선정하여 번역할 때 가능한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하도록 하는 번역전략이다. 이국 텍스트의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받아들여 지게끔 목표 언어의 문화적 가치에 압력을 가해 자민족 일탈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를 이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민족 중심적인 번역의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베누티는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국화 전략을 통해서 영어권 국가의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인 폭력적 자국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누티가 ‘저항성’이라고도 부르는 이국화 전략은 목표 언어의 관점에서 유창하지 않거나 낯설게 번역하는 것으로, 목표문화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원천 텍스트의 이국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조함으로써 번역가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다. 그러나 결국 번역은 원천 텍스트를 목표 문화로 옮기는 것이며 가시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지배적인 목표문화의 가치로부터 일탈해야 하는데, 드러날 만큼 가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일부 자국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베누티는 인지하고 있다.

### 3. 분석텍스트\_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 3.1. 작가\_ 줄리언 반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The Sense of an Ending)(2011) 이전에 맨부커상 후보에 세 번이나 올랐던 올해 75세 영국 작가 줄리언 패트릭 반즈(Julian Patrick Barnes, 1946~)는 잉글랜드 레스터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고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템즈 강변의 사립학교인 런

던 시립 학교를 나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현대 어문학을 전공했다. 1968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3년간 옥스퍼드 영어사전 부록 편찬에 참여했으며, 정치·문학 평론지 『뉴스테이즈먼』(New Statesman)의 문학 담당 편집위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일요신문 『옵저버』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요커』(New Yorker) 등에 문학, TV 프로그램, 요리와 레스토랑 관련 평론을 쓰면서 필력을 과시했다. 아내의 성을 따라 댄 캐버너(Dan Kavanagh)라는 필명으로 잠깐이었지만 범죄소설을 쓰기도 했다. 반즈가 쓴 추리소설로는 『야마위 도시』(Fiddle City)(1981), 『깃뽀기』(Putting the Boot In)(1985), 『몰락의 길』(Going to the Dogs)(1987)이 있다. 1980년에 나온 첫 장편 『메트로랜드』(Metroland)(1980)는 작가 자신이 십대 때 런던 메트로폴리탄 지하철을 타고 런던 시립 학교에 다녔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 런던 교외에서 성장해 파리 유학을 거쳐 결혼에 이르는 청년의 삶을 일인칭 시점에서 펼쳐낸 이야기로, 출간 당시부터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1997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후 반즈는 두 눈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통찰력을 보이며, 영국의 “카멜레온 소설가”로 불렸다. 그의 번뜩이는 지성, 유머와 재치, 친구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수필가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들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과 소설의 경제적 매력은 그를 수필가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능력을 발휘하여, 수필 같은 소설, 소설 같은 수필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소설을 고안한 포스트모던 소설가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고, 그 첫 결실이 바로 그의 출세작 『플로베르의 앵무새』(Flaubert's Parrot) (1984)였다. 그러나 반즈가 포스트모던 소설가로서의 색깔만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류 소설과 함께 전통적인 장르 소설에도 초점을 맞춘다. 반즈는 포스트모던 작가답게 엘리트 문학과 대중문학,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 간의 괴리감을 거부하고, 장르 간의 경계도 허문다. 절충주의를 선호하여 하나의 패러다임에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형식과 틀을 혼용한다. 절대와 보편을 거부하는 그는 아이러니, 병치, 치환, 콜라주, 여담 등 다양한 스타일의 혼용을 마음껏 사용한다.

이후 『10과 ½장으로 써낸 세계사』(A History of the World in 10½ Chapters, 1989), 『잉글랜드, 잉글랜드』(England, England, 1998), 『아서와 조지』(Arthur & George, 2005),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The Sense of an Ending, 2011)등 여러 화제작을 펴내면서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 마틴 에이미스(Martin Amis), 이언 매큐언(Ian McEwan),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표적인 영국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반즈는 첫 소설을 포함

하여 총 스물다섯 편의 저서를 출간했는데, 이 가운데 그의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것은 단연 『플로베르의 앵무새』(Flaubert's Parrot)(1984)이다. 이 작품은 이후 『잉글랜드, 잉글랜드』(England, England)(1998), 또 『아서와 조지』(Arthur & George)(2005)와 마찬가지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고, 1985년 제프리 파버 기념상, 1986년 프랑스의 메디치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어느 노년의 은퇴한 영국인 의사가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다고 믿어지는 박재 앵무새의 행방을 찾아 나서는 이 이야기는 반즈의 여러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제, 즉 진정한 과거는 포착될 수 없다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에 맞는 비선형적, 단편적 구성을 보여준다. 본 소고의 텍스트로 선정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도 반즈의 단골 주제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작가에게 마침내 영예로운 맨부커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수상 후에 이뤄진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시간과 기억에 관해 쓰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기억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기억이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יי죠. 이 책은 이제껏 믿어온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잘못 안 것이었다는 사실을 삶의 어느 시점에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맨부커상 수상 이전에도 프랑스 메디치상, E.M. 포스터상, 독일 구텐베르크상, 이탈리아 그린차네 카부르상, 프랑스 페미니상, 오스트리아 국가 대상, 세익스피어상 등, 자국인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반즈는 ‘전후 영국이 낳은 가장 지성적이고 재기 넘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은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오가는 심오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즈는 자신의 해박한 식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삶의 부조리를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즈는 프랑스와 프랑스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진 작가로 유명한데, 이런 감수성의 형성에는 프랑스어 교사였던 부모와 그가 대학에서 공부한 프랑스 문학, 그리고 1년간 프랑스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일이 지대한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더 분명한 사실은 프랑스 정부와 국민이 그의 프랑스 사랑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문학상 외에 눈에 띄는 화답의 표시는 2017년 1월에 “프랑스에 대한 애정과 프랑스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린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세 차례에 걸쳐 슈발리에 문예 훈장, 오피시에 문예 훈장, 코망되르 문예 훈장을 서훈하기도 했다. 반즈는 영국에서 못지않게 프랑스에서 널리 읽히는 작가 중 하나인데, 이것은 물론 그가 자신의 작품 여기서

기에 ‘프랑스적 소재’를 썼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갈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문체와 소설 쓰기에 활용되는 다양한 산문 형식, 또 수필과 허구적 이야기의 교직 구조 등이 진실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접근과 더불어 지나치게 진지한 것을 피하는 현대 독자의 미적 취향에 잘 부합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독자들이 계속해서 반즈를 찾는 이유일 것이다. 맨부커상 수상으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반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본 소고에서 소개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의 작품세계를 가장 집약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2. 줄리언 반즈와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계승과 발전이나 아니면 모더니즘의 전면 부정과 도전이나라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지만 문학의 경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계승발전과 더불어 대립과 적대 관계’라는 절충주의 입장이 가능하다. 문학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2차 세계대전 후의 문학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통적 실험성을 지닌 모더니즘의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더니즘과 다른 다양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많은 비평가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모더니즘의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도 모더니즘의 초월이라는 상충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소설은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도덕적 교훈이나 이상적 사회구현 문제나 개인의 심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 포스트모던 소설에 나타난 주체나 자아의 불투명성은 모더니즘 소설과 연장 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지만, 모더니즘 소설이 불명료한 삶에서 주관적인 질서부여를 추구했다면 포스트모던 소설은 그런 주관적 질서를 거부하고 불명료한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소설은 작가 스스로가 소설이란 허구적 구조물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예술의 창조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던 소설은 반모방론적 특성을 보이며, 따라서 반사실주의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설 형식이 인간 삶의 경험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히 실재와 일치시키려는 모방 충동의 표현이라면 포스트모던 소설가들은 우리가 머무르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그려낸다는 점에서 예술성을 질게 띠고 있다. 포스트모던 소설가들은 작가의 주관과 편견을 은닉하지 않으며, 작품이 작가에 의해서 꾸며진 허구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전통적이고 사실적이면서도 잘 짜인 소설 형식에서 벗어나 불

확실하고 모호한 분위기, 미완의 결말, 의미의 공백 등을 통해서 저자, 화자, 독자가 함께 역동적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지향한다. 작가의 음성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닫힌 소설이 아니라, “적극적 독자 참여 소설” 또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말하는 “쓰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미의 다양성 때문에 해석이 열려 있으므로 독자의 능동적인 글 읽기를 요구한다.

줄리언 반즈는 현재 영국 소설계에서 소위 매직 리얼리즘을 주도하는 그룹 중 한 사람으로, 한동안 전 세계를 흥분시켰던 『악마의 시』(1988)로 회교권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살만 루시디, 폭력과 섹스 문제를 인간성의 통찰로 풀어낸 『속죄』(2008)의 작가 이언 매큐언, 현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신랄하게 그려낸 『머니』(1984)의 작가 마틴 에이미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의 포스트모던 작가이다. 비전통적인 소설을 쓰는 모험을 즐기고 있는 반즈는 운문과 구별되는 것이 소설이며, 소설의 한 형식으로 픽션, 에세이, 다큐멘터리 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식의 산문을 수용한다. “소설은 매우 폭넓고 관대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는 형식”이라는 반즈의 말대로 그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폭을 크게 넓힌 작가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나의 책들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즈의 말로 그가 쓴 작품들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소설이 인생에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설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반즈의 말처럼 그의 작품에는 읽어서 즐거운 스토리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충격적이며 매력적인 표현이 있기에 절대 지루하지 않다. “당신은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싶을 것이다”라는 비평가 앤스미스의 격찬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반즈는 개념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 작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소설이 탈구조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즈의 이야기들은 우습고, 비참하고, 풍자적이고, 황당하며 웃기면서 울리고, 울리면서 웃기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특징이 있으면서도, 상이한 이야기들에 대한 반복되는 이미지와 모티프를 통해 주제를 도출해내는 전통적인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 3.3. 전문번역가\_ 최세희

국민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대중음악 칼럼니스트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세희는 번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졸업 후 파트타임 잡지 번역을 시작으로 번역 일을 접하게 된다. 이후 잡지 번역을 하면서

알게 된 편집자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음악에 관한 소설 작품을 번역하면서 작품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영화 웹진 ‘위클리인 조이씨네’ 편집장, 문화 웹진 ‘컬티즌’과 음악 웹진 ‘웨이브’ 기자, 잡지 ‘GQ’의 번역가, 잡지 ‘GO’의 칼럼니스트, 잡지 ‘루엘’의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번역작품으로는 줄리언 반즈의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과, 그레고리 갈런트의 『약해지지만 앓는다면 괜찮은 인생이야』, 제니퍼 이건의 『깡패단의 방문』, 『맨해튼 비치』, 『킵』, 『인비저블 서커스』, 케이티 로빈슨의 『커밍홈』, 척 와이너의 『에미넴의 고백』, 온 아이비데 린드크비스트의 『래티민』과 『언데드 다루는 법』, 폴리 호메스의 『블루베리 잼을 만드는 계절』, 조이 고블의 『예술가를 학대하라』, J. 스콧 버거슨의 『발칙한 한국학』, 필립 톨레다노의 『아버지와 함께 한 마지막 날들』, 크레이그 테일러의 『런더너』, n+1의 『힙스터에 주의하라』, 밥 엑스타인의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들에 붙이는 각주』, 소피 블래콜의 『그때 말할걸 그랬어』, 저넷 윌스의 『더 글라스 캐슬』, 그레이스 보니의 『독립수업』, 그리고 앤서니 도어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등 다수의 영미문학작품 등이 있다. 그녀가 말하는 문학번역은 작가의 고유한 문체, 작품에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작가가 구사하고 있는 문체를 원문에 가깝게 한국어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다. 그래서 번역한 작품이 출간된 이후에도 혹시 실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에 계속해서 재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최세희는 지금까지 줄리언 반즈의 작품 중 세 작품인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번역하면서 작가의 문체에는 익숙하다 할지라도 작품별 고유함이 있기에 매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다. 이는 반즈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로서 실행한 실험적 정신이 반영된 작품들이라는 번역가의 작가 이해가 작품 번역 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세희는 2015년 10월에 모교인 국민대학교 웹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문학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세계라고 생각해요. 번역은 그런 것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옮겨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외국어라는 것은 단순히 문법적 구조가 다른 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세계도 달라요. 그것을 우리 세계에 맞게, 그러면서도 그 특성은 가급적 유지를 하면서 옮기는 것이 재미있죠. 한편의 책을 끝내면 그만큼 배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고충은 항상 일상적으로 느

기는 건데,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했다고 해도 결국은 문장과의 싸움이에요. 때때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이 생기죠. 아직 프로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번역하는 대상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제대로 지려면 한국어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최근 한 번역가분이 한국 문학을 읽지 않는 번역가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아주 공감해요.”

(최세희 “uni.K.” Internet: www.webzine.kookmin.ac.kr, Oct. 23, 2015) [Dec. 22, 2019]

#### 4. 텍스트 분석\_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

2011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줄리언 반즈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The Sense of an Ending)(2011)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나가는 죽음에 대한, 특히 자살에 관한 이야기다. 1장은 주인공 토니가 1인칭 시점으로 학창시절부터 은퇴 시기까지를 회고하고 있다. 토니의 은퇴 후의 이야기를 하는 2장에 비해 다소 적은 분량이지만, 주요 등장인물들의 증점적 특징을 말해주는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특징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친구 에이드리언의 자살을 공조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작가인 줄리언 반즈의 화제의 맨부커상 수상작 『The Sense of an Ending』(2011)을 번역가 최세희가 번역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일부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학성을 잘 반영한, 문학성에 충실한 성공적인 번역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소설의 첫 장면으로써 할아버지가 된 주인공 토니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진학 후 베로니카와 사귀던 시절, 베로니카의 집에서 보냈던 어느 주말, 베로니카를 친구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했던 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베로니카와 재회한 날, 친구 에이드리언이 죽던 날을 상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TT1: 특별한 순서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반들반들한** 손목 안쪽.

뜨거운 프라이팬이 젖은 싱크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지면서 솟아오르는 증기.

방울방울 떨어져 수채구멍 속을 빙글빙글 돌다가, 층고 높은 집의 기다란 흡통 전체를 타고 흘러내려 가는 정액.

터무니없게도 상류로 치닫는 강물, 그 **물살과 너울**을 쫓는 여섯 개의 회중전등.

또 다른 강, 거센 바람이 수면에 물살을 일으켜 물길을 읽을 수 없는 드넓은 잿빛 강.

잠긴 문 뒤의, 오래전에 차갑게 식은 목욕물.

마지막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본 것과 언제나 똑같은 것은 없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11)

**ST1: I remember, in no particular order:**

- a shiny inner wrist;
- steam rising from a wet sink as a hot frying pan is laughingly tossed into it;
- gouts of sperm circling a plughole, before being sluiced down the full length of a tall house;
- a river rushing nonsensically upstream, its wave and wash lit by half a dozen chasing torchbeams;
- another river, broad and grey, the direction of its flow disguised by a stiff wind exciting the surface;
- bathwater long gone cold behind a locked door.

This last isn't something I actually saw, but what you end up remembering isn't always the same as what you have witnessed.

(*The Sense of an Ending* 3)

번역가는 첫 도입 부분부터 도치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우리말 어순에 맞추면서도 콤마를 사용하여 두서없이 떠오르는 기억을 보여주듯 한 문장을 돌로 나눈 원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려는 번역가의 번역전략이 바로 보이는 부분이며, 이후 더 읽어 내려가고 싶은 독자의 마음을 끌어낸다. 기억 조각들을 나누는 붙임표는 삭제하고 세미콜론은 마침표로 변경하여 국문의 형식으로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다듬는다. “shiny”를 “반들반들한”으로 번역한 것은 번역가가 소설 전체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토니는 고등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한 우정의 약속으로 손목시계를 손목 안쪽으로 착용했던 흔적이 남았음을 알고 있기에 적절한 의미 등가성을 가진 표현을 찾은 것이다. 소설번역은 문장 단위의 번역이 아니라 복합적 층위의 번역임을 번역가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ave and wash”를 “물살과 너울”로 번역한 부분은 “wa-”로 운율을 맞춘 시적 요소

를 우리말의 운문형식인 각운으로 맞추어 적절하게 잘 번역하여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broad and grey”를 “드넓은 잿빛 강”으로 번역한 부분은 “강”을 첨가하여 문장의 맨 뒤로 재배치 함으로써 시적 느낌과 함께 독자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마지막 부분의 “isn’t always the same”을 “언제나 똑같지 않다”가 아니라 “언제나 똑같지는 않은 법이다”로 번역한 것은 이 소설의 원작자인 반즈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기억의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나타낸 것으로 번역가가 문학적 충실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인공 토니가 베로니카와 헤어진 얼마 후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토니가 사나운 말들로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배신에 분풀이하듯 쓴 저주 편지다. 이후 토니는 이 편지가 에이드리언을 죽게 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편지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

**TT2:** 에이드리언에게, 아니,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베로니카, 개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과연, 너희들은 서로 천상배필이니 모쪼록 그 기쁨을 실컷 누리길 바라  
마지않아. 서로에게 한없이 빠져든 나머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도 영  
원히 지속되길. 내가 너희를 소개해준 날을 저주하게 되길. 필연적으로  
맞게 될 결과로 너희가 헤어질 때 꼭 그러길 바라 마지않아. 나는 육 개  
월 후라고 보지만, 너희 둘의 자존심을 합친다면 일 년으로 늘어날 테  
고, 그만큼 둘 다 만신창이가 될 테니 이 아니 좋겠어. 각자의 인간관계  
에 독처럼 작용하는 고통이 평생 이어지길, 사실 마음 한편으론 너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길 바라고 있어. 이유인즉 내가 시간이 대대손손 이  
어지며 복수를 가한다는 걸 굳건히 믿는 인간이라 그래. **예술작품을 보  
라고.** 그러나 복수의 과녁은 그 조준이 정확해야 하는 법. 너희 둘이 딱  
그에 해당된단 말이지(그러나 너희는 **위대한 예술품**이라기보단 만화가  
의 낙서에 지나지 않지). 그러니 너희에게 그런 걸 바랄 수는 없는 노릇.  
너희의 양해를 구하며 시어를 동원해보자면, 순진무구한 새 생명으로 하  
여금 자신이 운우지정으로 인한 결실임을 깨닫는 짐을 지운다는 건 불  
공정한 처사일 테니 말이야. 그러니, 베로니카, 에이드리언의 새끼손가락  
만한 자리에 **듀렉스**를 끼워줄 때마다 빈틈없이 잘 씌우려무나. 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으려나? 덕담도 이쯤 해야겠군. 너희 각자에게 적확  
한 사실 두엇을 들려주도록 하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165-166)

ST2: Dear Adrian- or rather, Dear Adrian and Veronica (hello, **Bitch**, and welcome to this letter), Well you certainly deserve one another and I wish you much joy. I hope you get so involved that the mutual damage will be permanent. I hope you regret the day I introduced you. And I hope that when you break up, as you inevitably will- I give you six months, which your shared pride will extend to a year, all the better for fucking you up, says I- you are left with a lifetime of bitterness that will poison your subsequent relationships. Part of me hopes you'll have a child, because I'm a great believer in time's revenge, yea un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next. See Great Art. But revenge must be on the right people, i.e. you two (and you're not **great art**, just a cartoonist's doodle). So I don't wish you that. It would be unjust to inflict on some innocent foetus the prospect of discovering that it was the fruit of your loins, if you'll excuse the poeticism. So keep rolling **the Durex** on to his spindly cock, Veronica. Or perhaps you haven't let him go that far yet? Still, enough of the courtesies. I have just a few precise things to say to each of you. (*The Sense of an Ending* 95)

클리포드 랜더스가 그의 책 『문학번역의 세계』(2001)에서 말했듯이, 비속어는 유사한 감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목표 언어에 맞게 적절히 번역하면 되는 것이다. 번역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독자들의 품위나 고상함을 상상해서 임의대로 원작 내 비속어의 적합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는 특히 문학 번역가에게는 금물이다. 문학 텍스트의 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회의 문화, 도덕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멋대로 단어나 문장을 삭제하는 것은 원작의 내용과 문학성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번역가는 그럴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토니가 쓴 이 편지는 격한 감정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가에 의해 고의로 사용된 장치이므로 원문의 특징이며 적절한 등가성을 가진 표현으로 반드시 번역되어야 한다. “bitch”를 “개같은 년”으로 번역한 것이 과잉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소설 후반부에 드러나게 되는 충격적인 반전을 고려한 번역가의 과감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저주 편지가 에이드리언을 죽게 만든 원흉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과잉번역이 오히려 작품의 이해와 맞물린 번역가의 번역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Great Art”는 “위대한 예술”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토니의 저주를 받을 미래의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로 “you’re not great art”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비꼬는 말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 반즈의 위트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멋진 그림이 나올 테니 보라고”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나, 작가의 문체를 살리기 위한 번역가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또, 영국 브랜드인 “듀렉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콘돔 브랜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라면 모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번역가는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음차로 번역하고 주석을 사용하는 것도 전체 맥락에 방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차라리 듀렉스의 상위 개념인 “콘돔”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수도 있으나, 번역가는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원문에 쓰인 그대로 “듀렉스”를 고집한다. 모든 독자의 즉각적인 이해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원문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듀렉스라는 단어 하나로 토니에게 새겨진 베로니카의 이미지와 에이드리언과의 탐탁지 않은 새로운 관계, 그리고 그녀와 그 둘의 관계에 대한 경멸을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번역가의 번역전략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T3:** 베로니카: 공동서한이라, 그의 까탈과 네 악의가 뒤섞여 있으니 것 참 재미있군. 가히 두 재원의 혼인이라고나 할까. 너의 사회적 우위와 그의 지적 우위 간의 한판승부라고 해도 되고 말이지. 그러나 나를 (한동안) 뛰어넘은 것처럼 에이드리언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내가 머리 굴리는 게 훨씬 보이는걸. 그를 소외시키고, 그의 옛 친구들과 절연시키고, 너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단기적으로는 먹힐 수도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친구가 내가 더없이 **지리멸렬한** 인간임을 깨닫기 전에 임신하는 건 시간문제겠지. 그리고 설령 그를 닦달한 끝에 그가 그 사실을 실토한다 해도, 너는 평생에 걸쳐 네 논리를 교정받을 수 있을 테고,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까탈을 떠는 것도, 아니꼽게 점잔 빼는 너 때문에 몰래 한숨이 터지는 것도 즐거이 고대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의 나로선 너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시간은 그럴 수 있지. 시간이 말해줄 거야. 시간은 늘 그렇거든. **너희에게 계절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기원컨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너희의 머릿통에 산성비가 쏟아지기를.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168-169)

**ST3:** Veronica: interesting, that joint letter. Your malice mixed with his priggishness. Quite a marriage of talents. Like your sense of social superiority versus his sense of intellectual superiority. But don't think you can outsmart Adrian as you (for a time) outsmarted me. I can see your tactics- isolate him, cut him off from his old friends, make him dependent on you, etc., etc. That might work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It's just a question of whether you can get pregnant before he discovers you're **a bore**. And even if you do nail him down, you can look forward to a lifetime of having your logic corrected, to breakfast-table pedantry and stifled yawns at your airs and graces. I can't do anything to you now, but time can. Time will tell. It always does.

**Compliment of the season to you**, and may the acid rain fall on your joint and anointed heads. (*The Sense of an Ending* 97)

번역가는 “a bore”를 “지리멸렬한 인간”으로 번역했는데, 원래 “지리멸렬”의 사전적인 뜻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다. 이 맥락에서 “a bore”는 “지루한 인간” 정도로 번역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번역가는 여기서 또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루한 인간에서 더 나아가 토니가 인식하고 있는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베로니카의 성격을 목표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ompliment of the season to you”를 “너희에게 계절 인사를 보낸다”로 번역한 것은 영국식 영어 표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생긴 적절하지 못한 번역으로 보인다. 계절 인사가 아니라 평소에 안부를 묻는 표현으로 적절한 의미 등가성을 가진 우리말 표현 중 “복 많이 받아라”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둘 사이의 사이가 틀어졌으면 하고 비꼬는 어조로써 반어적으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작가의 문체를 그대로 옮기고자 하는 번역가의 열정이 만든 오류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맥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므로 독자들의 텍스트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보인다. 충실성이라는 준거에 근거해 지적된 번역의 오류에도 오히려 번역 텍스트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문학번역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수없이 많았던 (이형진 2008) 것처럼, 문학번역비평가가 번역가의 작은 실수 하나하나에 집중한 나머지 오류 찾기에 치우친 편향된 비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TT4: 에이드리언: 너도 이미 그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 요물**이라는 사실쯤은 알았겠지. 하지만 내 생각에 너는 그녀가 '자신의 원칙에 얽매어 발버둥 치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 타일렀을 것 같군. 그래서 철학자인 너의 **회색 세포**를 동원해 그녀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모양인 듯해. 만약 여자가 아직 너한테 **'갈 데까지 가는 단계'**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헤어질 것을 권고하는 바일세. 그러면 여자는 너한테 모든 걸 내주지 못해 안달이 나서 흠뻑 젖은 팬티만 입고 콘돔을 든 채 너희 집 앞을 전전할걸. 하지만 남자 잡아먹는다는 것 또한 은유 아니겠어. 그 여자는 너의 내적 자아를 조종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아는 감출 위인이지. 내 여기 정신과 의사들에게 제출할 만한 정확한 소견서- 한 주의 어느 요일이나에 따라 **천양지차**가 될 수는 있지만-를 남길 테니, 다 필요 없고 그 여자가 자기 자신 말고는 세상 어느 누구의 감정이나 정서적 삶을 생각할 능력이 없음을 알길 바라. 그 여자 어머니까지도 나에게 자기 딸을 경계하라 주의를 줬었지. 내가 너라면, **'모친'**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볼걸? 오래전에 그 여자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물론, 베로니카 몰래 해야겠지. 그 이유는 말이야, 썩을, 그 여자는 만사를 제멋대로 휘둘러야 **성에 차는 종자**라서 그래. 예, 또, **히세덩어리**이기도 하니, 명심하라고. 그 여자가 너와 어울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네가 조만간 네 이름을 딴 케임브리지 문학사학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네가 **재형님**과 그의 상류층 친구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기억해? **바야호로** 네가 어울리고자 하는 **부류**가 그들인가? 그렇다 한들 잊지 말고 시간을 두고 그 여자를 관찰하라고. 그 여자는 날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 또한 경멸하게 될 터이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166-168)

ST4: Adrian: you already know she's a cockteaser, of course- though I expect you told yourself she was engaged in a Struggle With Her Principles, which you as a philosopher would employ your grey cells to help her overcome. If she hasn't let you Go All The Way yet, I suggest you break up with her, and she'll be round your place with sodden knickers and a three-pack, eager to give it away. But cockteasing is also a metaphor: she is someone who will manipulate your inner self while holding hers back from you. I leave a precise diagnosis to the headshrinkers- which might vary according to the day of the week- and merely note her inability to imagine

anyone else's feelings or emotional life. Even her own mother warned me against her. If I were you, I'd check things out with Mum- ask her about damage a long way back. Of course, you'll have to do this behind Veronica's back, because boy is that girl a control freak. Oh, and she's also a snob, as you must be aware, who only took up with you because you were soon to have BA Cantab after your name. Remember how much you despised Brother Jack and his posh friends? Is that who you want to run with now? But don't forget: give her time, and she'll look down on you just as she looks down on me. (*The Sense of an Ending* 96)

번역 텍스트 전체에 흐르는 자연스럽고 개성 넘치는 한국어 표현들이 눈에 띈다. “남자 잡아먹는 요물”, “회색세포”, “갈 데까지 가는 단계”, “천양지차”, “모친”, “성에 차는 종자”, “허세덩어리”, “잭 형님”, “바야호로”, “부류” 등 모두 번역가가 언어적, 의미적, 문학적 등가를 가진 한국어 표현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듯하다. 이렇듯 단어 대 단어의 등가가 최적의 등가가 아님을 알고 있는 번역가는 원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문학번역비평가는 번역문 텍스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번역가의 이러한 노력도 반드시 비평에 담아야 할 것이다.

## 5. 결론

문학번역 중에서도 소설번역은 복합적 층위를 고려한 번역이어야 하므로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문학번역비평은 번역 텍스트의 오류를 찾아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에 치중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번역가의 오역, 사소한 누락, 압축, 문단 생략, 부적절하거나 생소한 어휘, 구두점 오류, 자의적인 단락 구분, 직역투 구문 등의 번역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오류들이 번역의 충실성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오히려 소설 작품이 가진 문학성을 간과한 채 언어적,

의미적 충실성만 고려한 번역이 원작의 가치와 원작의 독자들이 가지는 감동을 번역 텍스트를 읽을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원문 충실성을 고려한 번역이 선행된 후 목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독성을 갖춘 번역이야말로 좋은 번역의 첫걸음을 걷는 것이나, 문학번역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의 텍스트성과 상호 텍스트성을 고려하고 더불어 작가가 작품 속에 담아낸 미학을 잘 살려내어 그것의 문학성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번역이 될 것이다. 완벽한 등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고 가능한 원문에 가까운 문학적 등가를 찾을 수 있는 번역을 위해 문학번역비평은 이제 더는 번역 텍스트가 가진 오류를 찾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학성에 충실한 번역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좀 더 생산적인 비평을 해야만 할 것이다.

## Work Cited

- 김경희. “문학번역에서의 충실성 문제.” *통역과 번역*. 12.1(2010):23-24
- 김명균. 『영국 문학과 번역』.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9.
- 김윤진, 손지봉 외. 『문학 번역의 이해』. 서울: 북스토리, (2007)
- 권미선. “번역, 모순된 작업.” *번역비평*.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120-121
- 반즈, 줄리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최세희 옮김. 파주: 다산책방, (2012)
- 변선희. “문학번역의 열린 특성.”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6(2002):89-90
- 이은숙. “문학번역평가에 대한 고찰:충실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3.2 (2011):110
- 이정화, 우정민, 박선화 편 『부커상과 영소설의 자취 50년』. 동인, 2019: 100-124.
- 이향. 『번역이란 무엇인가』. 파주:살림, (2008)
- 이형진. “특집:번역과 번역비평의 과제; 문학번역 평가의 딜레마와 번역비평의 방향.” *안과밖*, 24.0(2008):86-113
- 이희재.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2009)
- 전성기. “번역비평과 해석.” *불어불문학연구*. 한국불어불문학회. (2007):281-282
- 최진혁. “문학번역의 언어 내외적 접근-『프랑켄슈타인』 번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16
- Barnes, Julian. *The Sense of an Ending*. London: Vintage, 2011.
- Bassnett, Susan.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2.
- Connor, Steven. “Postmodernism and literature.”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ism* (2004):62-81.
- Landers, Clifford.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1.
-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5):1.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008.
- Nelson, Brian. “Preface:Translation Lost and Found.” *Australian Journal of French Studies*: Victoria, 47.1(2009):3.
- uniK. (Internet: [www.webzine.kookmin.ac.kr](http://www.webzine.kookmin.ac.kr), Oct. 23, 2015) [Dec. 22, 2019]

## Abstract

## Literacy-Bearing Translation: Focusing on Julian Barnes' *The Sense of an Ending*

Park Jae Eun

Literary translation is inevitable for a revival of humanism which the modern people have been lost for long time. Reading the translated literature that has aesthetic values and reasoning the people-oriented traditional values in it will help the barren human-souls regain the life. However, we already know the fact that the perfect rendering between two different languages is something we cannot achieve, and literary translation is especially trickier than others. That is because extracting every element from the original text and projecting it onto the translated text is extremely difficult even for an outstanding translator. Therefore, the optimum translation with the ideal equivalence is the best option for the translators, so the readers can understand and accommodate the author's intention and the aesthetic factors which the original text bears. Noticing that the interest in literary translation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these days, errors in translation cannot be ignored and a solution to it needs to be come up with. As concerns the criticism only on errors might not be always the answer, but the criticism on the translated text that reflects the literacy of the original text well and still moves the readers' hearts making them feel like reading it all over again or recommending it to someone else to read will be able to provide us more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non-English World Literature re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have still touched the Korean hearts, some errors in translation might not be a problem as long as it is faithful to the literacy of the original text. This paper will discuss about some of the text of Julian Barnes' Man Booker

Prize awarded novel *The Sense of an Ending* (2011), which is translated into Korean by a professional translator, Choi Sehui, analyzing the successful translation strategies in terms of literacy.

**Key Words**

literacy, literature value,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ies, literature criticism, professional translation



## 공손 표현에 대한 경어법 번역 전략 - 텍스트의 (대화체) 문장을 중심으로-

이 속 자

### I. 서론

공손과 공손 이론은 레이코프(Lakeoff, 1973)의 공손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사회언어학계뿐만 아니라 학제적 연구 차원에서 많은 타학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공손과 공손 이론은 번역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실제로 번역에 종사하는 이에게도 더 나은 번역을 하도록 좋은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학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연구 분야이다.

공손이 세계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손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역공동체나 나라마다 약간 다르거나 또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각 지역공동체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적, 관습적, 제도적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Thomas, 1995: 168). 예를 들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보통 수평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영어에서는 언어의 사용만으로 그것이 공손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는 공손이 영어의 문법 범주에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 공손 표현을 위한 특별한 문법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151). 반면 수직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어에서는 언어의 사용만으로도 보통 그것이 공손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공손이 보통 경어법이라는 특별한 문법 장치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150). 하지만 경어법을 사용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서 공손 표현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는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현상인 언어 자체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도 고려하기 때문이다(157).

본 연구는 원천텍스트<sup>1)</sup>와 목표텍스트<sup>2)</sup>를 모두 이용하되, 두 가지 관점을 들

---

1) 원천텍스트(Source Text). 간단히 ST로 표기하기도 한다.

어 연구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원천텍스트에 대한 (목표텍스트의) 충실성 관점인데, 이것은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공손 표현을 목표텍스트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원천텍스트에서의 공손 표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들 중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공손 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고, 목표텍스트에서의 원천텍스트의 공손 표현 구현 여부는 한국어 경어법을 적용한 번역전략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두 번째 관점은 목표텍스트에 대한 (목표독자의) 충실성 관점이다. 이는 목표텍스트들로만 비교분석하여 목표텍스트만으로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이 인물이나 인물 간 관계 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오역에 대한 논의도 관점을 달리하여 약간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과 한국어 경어법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반 고희 관련 선정 텍스트 및 텍스트 선정 이유에 대해 알아보며, 4장에서는 원천텍스트의 공손 표현 구현 여부와 목표텍스트에서의 공손 표현 구현 여부를 알아보는 동시에 목표텍스트로만 비교분석하여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이 목표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1987)은 고프만(Goffman, 1967)이 제시한 체면(face)이라는 주요 개념에서 시작한다. 고프만(1967: 5)에 따르면, 체면은 각 문화의 차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의사소통 당사자들이 지니기를 원하는 공적인 자아상(public self-image), 즉 개인의 자기 이미지(individual self-image)를 말한다.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고프만의 체면을 더욱 구별하여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으로 발전시켰는데, 적극적인 체면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과 잘 지내면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는 욕구이고, 소극적인 체면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침해나 방해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이다(62).

---

2) 목표텍스트(Target Text). 간단히 TT로 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운과 레빈슨(1987)은 또 체면은 쉽게 위협받거나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s: FTAs, 이하 FTA)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공식으로 구체화하여 체면위협행위의 크기를 다음의 수치로 나타낸다.

$$W_x = D(S, H) + P(H, S) + R_x \quad \dots (76)$$

브라운과 레빈슨(1987)에 따르면, FTA의 크기 W(Weightness)는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는 D(Distance)와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가지는 상대적 힘의 크기 P(Power) 및 특정한 문화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절대적 크기 R(Ranking)로 나타나는 세 변수의 합이다. 여기서 S는 화자(Speaker)를, H는 청자(Hearer)를 나타낸다. 또 FTA의 크기 W는 이 세 변수의 합이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나며, 그럴 경우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W가 클수록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76-78).

## 2.2. 한국어 경어법

국어 목표텍스트에 영어 원천텍스트의 공손 표현이 거의 유사하게 구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목표텍스트에서는 한국어 경어법을 적용하여 알아본다. 이는 영어에서 사용된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 이론(1987)이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와 함께 한국어에는 공손 표현을 위한 특별 문법 장치인 경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종류의 경어법 체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정수(2006)의 경어법 체계를 가져와 적용하고자 한다. 서정수(2006)는 경어법 체계에 따른 현대의 청자 대우 양식과 등급을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있는데, 아래의 <표 1>과 <표 2>는 이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경어법의 격식체(서정수, 2006: 995)]

등급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칭유법
존대	아주 높임 (합쇼체)	브니다 습니다 옵니다 니이다 올시다	오리다	브니까 습니까 옵니까 나이까	십시오 소서 옵소서 시지요	십시다
	예사 높임 (하오체)	오 소 우 구려	리다	오 소 우 구려	오 소 우	오 브시다
비존대	예사 낮춤 (하게체)	네 르세	므세	는가 느가	게 게나	세
	아주 낮춤 (해라체)	(느)다 (느)구나	마	니 (느)냐 라	어라 려무나 렴	차(꾸나)

[표 2. 경어법의 비격식체 (서정수, 2006: 996)]

등급		서술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칭유법
존대	두루높임 (해요체)	어요 지요 (느)군요 르걸요	르께요	어요 지요 (느)가요 르까요	어요 지요	어요 지요
비존대	두루낮춤 (해체)	어 지 군	르께 지	어 지 나	어 지	어 지

서정수(2006)의 경어법 격식체와 비격식체 분류법에 따르면 경어법을 적용한 번역전략은 구체적으로 격식체 존대 아주높임, 격식체 존대 예사높임, 비격식체 존대 두루높임, 격식체 비존대 예사낮춤, 격식체 비존대 아주낮춤, 비격식체 비존대 두루낮춤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간단히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로도 불린다. 하지만 서정수의 경어법 적용 번

역전략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바로 존대와 비존대이다.

### Ⅲ. 반 고흐 관련 선정 텍스트

#### 3.1. 반 고흐 관련 선정 텍스트

반 고흐 관련 텍스트는 한국어로 번역된 서로 다른 목표텍스트만으로도 30여 종에 이른다.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정된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반 고흐 관련 선정 텍스트 (원서 출판년도 순)]

책구분	제목	저자/역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ST1	Van Gogh and Gauguin	Bradley Collins	Westview (2001)	TT1의 원서. 반 고흐 역사책이자 정신분석학적 연구서
TT1	반 고흐 vs 폴 고갱	이은희	다빈치(2002)	ST1의 한국어 번역서
ST2	The Love of Many Things: Life of Vincent Van Gogh	David Sweetman	Hodder and Stoughton Ltd.(1990)	TT2의 원서. 반 고흐 평전
TT2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2. 아름다운 영혼 빈센트 반 고흐	이종욱	한길아트 (2003)	ST2의 한국어 번역서
ST3	Lust for Life	Irving Stone	Mandarin (1989)	TT3의 원서. 반 고흐 전기적 소설
TT3	빈센트, 빈센트, 빈센트 반 고흐 (하)	최승자	까치(1997)	ST3의 한국어 번역서

#### 3.2. 텍스트 선정 이유

반 고흐 관련 텍스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저작권 문제로 반 고흐 관련 텍스트는 하나의 원천텍스트에 대해 하나의 한국어 목표텍스트만 존재한다. 하지만 반 고흐와 관련된 많은 원천텍스트는 반 고흐 사후 그가 쓴 편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까닭에 서로 다른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체)

문장이 중복되어 각 원천텍스트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동일문장이나 동일인물에 대해 목표텍스트에 따라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텍스트만으로도 비교분석하여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이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 간 관계 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반 고흐 관련 텍스트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목표독자가 원천문화의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원천문화의 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막연히 알고 있다거나, 또는 알고 있다 해도 목표독자의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목표텍스트만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인물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의 결과가 그러한 목표독자에게 일률적이 아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실존인물에 대한 파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번역전략에 따른 영향이므로 번역학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반 고흐 관련 텍스트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 임하게 된 것이다.

#### IV. 사례 분석

##### <사례 1>

파리에 머물고 있던 반 고흐는 동생 테오의 도움으로 아를로 내려가 ‘노란집’을 얻어 생활하던 중, 자신이 평소 존경하고 흠모하던 폴 고갱을 자신의 집에 같이 살면서 스승으로 모셔 함께 그림그리기를 원한다. 이에 동생 테오가 폴 고갱의 모든 경제적 빚을 갚아주는 대신 그의 그림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폴 고갱을 아를로 오게 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폴 고갱이 자꾸 머뭇거리며 시간을 끌자, 이에 반 고흐는 폴 고갱이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게 된다. 아래 내용은 그러한 편지들 중 하나로, 반 고흐가 폴 고갱을 위해 그의 방을 직접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는 문장 중 하나이다.

I have expressly made a decoration for the room you will be staying in, a poet's garden. (ST1: 99)

특별히 자네가 지낼 방을 장식하려고 시인의 정원을 그렸네.

(TT1: 155)

먼저 <사례 1>의 원천텍스트에 공손 표현이 구현되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브라운과 레빈슨(1987)이 제시한 FTA 크기  $W$ 를 알아보고자 하며,  $W$ 의 크기에 따라 공손 표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화자는 반 고호이고 청자는 폴 고갱이다. 이들 간의 사회적 거리  $D$ 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앞의 설명에서처럼, 반 고호는 폴 고갱의 예술세계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흠모하여 함께 동거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지만 청자 폴 고갱은 시간을 자꾸 끌며 머뭇거린다. 머뭇거린다는 표현에서 이들의 사회적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폴 고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반 고호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이므로, 편지를 쓰는 당시의 이들의 사회적 거리  $D$ 는 적다고 본다. 또한 반 고호가 폴 고갱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간접적으로 폴 고갱이 아를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화자의 부담  $R$ 은 크다고 보며, 반대로 반 고호와 아를에서의 동거 결정권은 폴 고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청자의 힘  $P$ 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FTA의 크기  $W$ 는 크다고 본다. 이로 인해 화자의 입장에서는 공손 표현이 필요하며 화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화자의 발화에는 공손 표현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례 1>의 목표텍스트에 관한 분석으로,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공손 표현이 경어법의 어떤 번역전략을 통해 목표텍스트에 구현되는지와, 맥락을 따져 그러한 경어법 번역전략<sup>3)</sup>이 공손 표현을 구현하는지 알아보자. 여기서도 화자는 반 고호이고 청자는 폴 고갱이다.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존재하므로 먼저 이들의 나이 관계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나이는 반 고호가 폴 고갱보다 5살 적으며, 사회적 신분 관계도 이 편지를 주고받을 당시의 반 고호는 무명화가이고 폴 고갱은 상대적으로 유명화가이다. 힘의 관계는 청자가 동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자인 반 고호보다 청자인 폴 고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번역가는 화자 발화에 대한 경어법 청자대우 적용에서 격식체 비존대 예사 낮춤(하계체), 즉 비존대를 적용하는데, 이는 나이 차이를 무시한 경어법 번역전략이다. 하지만 나이 차이를 무시한 경어법 번역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텍스트는 공손 표현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화자의 발화가 의도하

3) 사례분석에 사용된 동일인물 간 (대화체) 문장의 경어법 번역전략은 주어진 각 목표텍스트 전체를 통해 모두 각각 같음을 밝힌다.

는 맥락을 살펴볼 때 화자는 청자가 화자의 집에 오기를 기대하므로 청자를 위해 청자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청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공손 표현을 구현한다고 본다.

### <사례 2>

다음의 또 다른 목표텍스트는 위의 <사례 1>과 동일한 편지 내용을 번역하고 있지만 <사례1>과는 달리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한다.

I have expressly made a decoration for the room you will be staying in, a poet's garden. (ST2: 280)

당신이 머물 방을 특별히 장식했습니다. 시인의 정원. (TT2: 181)

<사례2>에 대한 목표텍스트의 분석 결과는 <사례1>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사례1>과는 달리 적용된 경어법의 번역 전략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즉, 화자는 청자가 화자의 집에 오기를 기대하므로 청자를 위해 청자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심과 존경심을 드러내기 위해 경어법 청자대우 적용에서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합쇼체), 즉 존대를 사용하여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 극진한 공손을 표현함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목표텍스트에서도 화자의 말화에는 공손 표현이 구현된다고 본다.

앞의 <사례 1>과 <사례 2>는 반 고흐가 폴 고갱에게 보내는 동일한 편지의 내용 중 동일한 일부이다. 하지만 사용된 원천텍스트도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목표텍스트들도 공손 표현에 대해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하여 구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론에서도 말했듯, 목표독자가 원천문화의 반 고흐와 폴 고갱 등의 실존인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면 각 목표텍스트가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목표독자가 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또는 막연히 알고 있다면, 그래서 위의 목표텍스트 중 하나만 읽고 텍스트에 나온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면, 목표독자의 지식의 정도나 관점에 따라 아래의 [표 4]와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4. 목표독자의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 관계 파악 1]

화자 ⇒ 청자 반 고희 ⇒ 폴 고갱		<사례 1>	<사례 2>
경어법 번역전략		격식체 비존대 예사 낮춤 (하계체). (비존대)	격식체 존대 아주 높임 (합쇼체). (존대)
목표독자의 지식 정도와 관점에 따른 가능성	나이 관계	반 고희 < 폴 고갱 (텍스트 맥락을 통해 유추)	반 고희 < 폴 고갱 (텍스트의 명시적 설명)
	대인 관계	친한 사이. 수평적 관계	거리감 있는 사이. 수직적 관계
	고호 성격	평범한 성격 아님 (당돌 ∨ 건방 ∨ 괴팍)	평범한 성격 (겸손 ∨ 예의바름 ∨ 공손)

즉, 목표텍스트에서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목표독자의 지식 정도와 관점에 따라 <사례1>에서는 반 고희가 폴 고갱보다 5살이나 적음에도 비존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서로 친하거나 수평적 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은 폴 고갱에게 비존대를 사용하는 반 고희에 대해 반 고희가 평범한 성격이 아닌 당돌하거나 건방지거나 괴팍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파악할 가능성도 제공한다. 이에 반해 <사례2>의 경우는 나이가 5살 많은 폴 고갱에게 존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서로 거리감이 있는 사이이거나 수직적 관계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은 폴 고갱에게 존대를 사용하는 반 고희의 성격이 겸손하거나 예의바르거나 공손한 인품을 지닌 일반적인 성격, 즉 평범한 성격이라고 여길 가능성도 제공한다.

여기서 잠깐 주제를 벗어나, 번역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인 오역 문제에 대해 미약하나마 조금 논의해보고자 한다. 강주현(2009)은 『번역출판』 텍스트를 통해 반 고희가 폴 고갱에게 비존대, 즉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오역이라고 주장한다(156). 강주현(2009)은 반 고희가 폴 고갱에게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한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반 고희의 비존대에 대해 오역으로 단정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폴 고갱(1848년생)이 반 고희(1853년생)보다 나이가 5살 더 많으며, 둘째, 한국의 정서에서 5살 정도 차이면 존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번역가는 번역을 하기 전에 폴 고갱과 반 고희의 예술적 관계를 조사해야 하고, 넷째, 조사를 통해 반 고희가 폴 고갱을 무척 존경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연상인데다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평어를 사용하

지는 않았을 거라면서(ibid.: 156) 오역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강주현의 논리는 타당하지만 반 고희의 경어법 비존대 번역전략을 단순히 오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번역전략 의도를 번역가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지 않은 이상 함부로 오역으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반 고희와 폴 고갱의 나이차와 존경한 것을 알았다 해도 번역가가 그들의 친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경어법 비존대 번역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는 반 고희의 개성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또는 “동생 테오가 유럽 최대 화랑의 화상이기 때문에 폴 고갱이 동생의 존재를 의식하여”(콜린스, 2004: 75) 자신에게 계산적으로 잘 대해준다고 생각하고 동생의 힘을 은연 중 내세워 비존대를 사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폴 고갱이 반 고희를 막역하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앞질러 그를 ”너, 자네(tu)“라고 말을 터는 몇몇 편지를 보내어 그로 인해 폴 고갱과의 다툼이 있었다”(94)는 기록을 고려할 때, 이런 식의 비존대가 반 고희에게서 아니 나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오역에 대한 논의보다 본 연구를 통해 목표텍스트에서 반 고희가 폴 고갱에게 존대를 사용할 경우와 비존대를 사용할 경우, 원천텍스트에 드러난 공손 표현은 모든 목표텍스트에서 그대로 전달되지만, 앞의 [표 1]의 설명처럼, 반 고희에 대한 인물의 성격 파악과 반 고희와 폴 고갱 간의 대인관계 파악에 있어서는 목표텍스트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목표독자에게 미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사례 3>

아래의 내용은 소설로 구현된 반 고희 관련 텍스트이다. 파리에 올라와 동생 테오 집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화가 공부를 하던 반 고희는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여느 때처럼 화가들이 잘 가는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폴 고갱을 보게 된다. 그러자 동생 테오는 평소 폴 고갱을 존경하고 흠모하던 형 반 고희에게 폴 고갱을 직접 소개해 주는데, 바로 이 장면이다.

“... Hello, here’s a friend of mine I want you to meet. Good evening, Paul; how are you?”

“Very well, thanks, Theo.”

"May I present my brother, Vincent Van Gogh? Vincent, this is Paul Gauguin. Sit down, Paul, and have one of your inevitable absinthes."

(ST3: 272-73)

"... 아, 오랜만이군요. 형, 형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내 친구들 중 한 명이 왔어. 안녕하세요, 폴. 어떻게 지내요?"

"썸 잘 지내지. 고맙군, 테오."

"나의 형,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할까요? 형, 폴 고갱이야. 폴, 앉아요. 앉아서 당신이 언제나 마시는 압생트나 한 잔 마시죠."

(TT3: 451-52)

참고로 소설 형태로 된 이 원천텍스트에는 반 고흐와 폴 고갱 및 테오의 나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동생 테오가 20대 초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대 화랑의 대화상이 되어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화가들 세계에서 아주 주요한 인물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화상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폴 고갱에 대해서도 역시 나이를 비롯한 많은 것을 세세히 밝히지 않은 채 묘사와 대화체 문장으로 텍스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반 고흐와 폴 고갱이 처음 만나 소개받는 장면인 위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나이나 관계 및 사회적 신분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바로 위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원천텍스트에서 모두 유명한 실존인물이기 때문에 원천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원작자가 그들에 대해 나이를 비롯한 세세한 정보를 생략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목표텍스트를 읽는 목표독자는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잘 모른다거나 나이관계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이 없다 해도, 보통의 경우, 맥락을 통해 나이관계의 상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목표텍스트의 경우, 목표독자가 원천문화의 그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또한 목표텍스트의 맥락으로도 그들의 나이관계나 사회적 신분관계를 알기 힘든 경우라면, 그들이 나누는 대화체 문장의 경어법 번역전략에만 의존하여 그들의 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천텍스트에서는 명시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테오와 폴 고갱의 사회적 신분관계에 있어서 테오가 훨씬 높음을 원천독자는 암시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목표텍스트에는 이러한 관계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목표텍스트를 읽는 목표독자는 경어법 번역전략만으로 그들의 사회적 신분관계를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다.

이제 <사례 3>의 원천텍스트에 공손 표현이 구현되는지 알아보자. 여기서 화자와 청자는 테오와 폴 고갱 모두이다. 먼저 테오가 화자이고 폴 고갱이 청자인 경우를 살펴보자. 테오는 이미 20대 초에 유럽 사회에서 명성을 얻은 힘 있는 화상이고 폴 고갱은 화가로서 약간의 명성을 얻은 상태이지만 대화상인 테오를 통해 자신의 그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폴 고갱에게 테오란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둘 간의 사회적 거리는 화상과 화가의 관계로 약간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서로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무명화가인 형 반 고흐에게 유명화가 폴 고갱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므로 유명한 화가인 청자의 힘이 더 크다고 본다. 또한 형 반 고흐가 흠모하고 존경하는 폴 고갱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므로 화자의 부담은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FTA의 크기인  $W$ 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화자의 발화에는 공손 표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형 반 고흐를 청자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청자의 안부를 물은 다음 자신의 형을 소개해도 되느냐고 물은 후 형을 소개한 후 청자를 배려하여 청자가 항상 마시는 압생트를 주문하는 것을 볼 때 화자의 발화에는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므로 공손 표현이 구현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폴 고갱이 화자이고 테오가 청자인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사회적 거리는 약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테오가 유럽의 대화상이자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폴 고갱이 유명화가이지만 테오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청자 테오의 힘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화자 폴 고갱은 테오를 대할 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여기서 화자의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FTA의 크기  $W$ 는 전체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자 폴 고갱이 청자 테오를 대하는 발화 내용에는 공손 표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화자 폴 고갱이 테오의 안부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여 그의 안부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여 대답하는 모습에서 청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화자의 발화에는 공손 표현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즉,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서로의 대화에는 화자와 청자의 입장 모두에서 공손 표현이 구현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례3>에 나타난 목표텍스트에도 공손 표현이 구현되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이들의 나이 관계는 테오가 폴 고갱보다 9살 적다. 테오는 유럽의 대화상이고 폴 고갱은 유명화가이므로 테오와 폴 고갱의 사회적 신분관계는 테오와 폴 고갱이 같거나 또는 테오가 폴 고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힘의 관계는 테오가 무명화가인 형 반 고흐를 유명화가인 폴 고갱에게 소개하는 맥락이므로 테오와 폴 고갱이 같거나 또는 테오보다 폴 고갱이 더 크다고 본다. 먼저, 화자 테오가 청자 폴 고갱에게 하는 발화에서 경어법의 번역 전략을 찾아보면 비격식체 존대 두루 높임(해요체), 즉 존대이며, 이는 나이 관계를 고려한 번역전략이다. 또한 화자가 발화한 의도의 맥락을 찾아보면 형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청자인 폴 고갱의 안부를 묻는 배려심을 표현한 후 형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청자에게 자기 형을 소개해도 되는지 물음으로써 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함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손 표현이 구현된다고 본다. 한편 화자인 폴 고갱이 청자 테오에게 하는 발화의 경어법 번역전략은 비격식체 비존대 두루 낮춤(해체), 즉 비존대이며, 이는 나이 관계를 고려한 번역 전략이다. 비록 비존대를 사용했지만 화자가 청자의 안부에 대답하고 감사 인사를 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세워주므로 역시 화자의 발화에도 공손 표현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즉, 목표텍스트에 나타난 두 인물의 발화에서 경어법의 번역 전략을 존대를 사용하든 비존대를 사용하든 화자의 입장에 선 인물은 원천텍스트에서처럼 모두 청자에 대한 공손 표현을 구현하고 있다.

#### <사례 4>

다음 내용은 폴 고갱이 평소 반 고흐와 테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는 폴 고갱과 테오와의 대인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자 한다.

Gauguin adopted an intimate tone with Vincent. He would, for example, begin letters to his fellow artist with "Mon cher Vincent" while addressing Theo, the professional dealer, as "Mon cher Monsieur Van Gogh."

(ST1: 75)

고갱은 고흐에게 다정했다. 예를 들어 고갱은 화상인 테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친애하는 반 고흐 씨에게"라는 호칭을 썼지만, 고흐에게는 "친애하는 빈센트에게"라고 썼다.

(TT1: 121)

위의 원천텍스트에서 폴 고갱이 테오에게 호칭을 붙인 이름("Mon cher Monsieur Van Gogh")을 사용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그가 평소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테오를 대했을 가능성이 많음을 암시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폴 고갱은 유럽의 최대 화랑 화상인 테오에게 평소의 대화 시에도 공손 표현을 구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테오와 관련된 번역을 할 때 폴 고갱이 테오에게 하는 평소의 대화체 문장도 모두 존대를 사용하는 경어법 번역전략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앞의 <사례 3>에서는 한국문화에 맞춰 그들의 사회적 신분관계보다는 나이관계를 더 고려하여 폴 고갱이 테오에게 비존대를 사용하는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로 한국사회에서 나이를 더 중요시하여 상대방을 대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성격으로 폴 고갱의 성격을 이해하거나 또는 나이만 따질 뿐 사회적 신분관계를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서 폴 고갱이 개성이 강한 성격으로 치부할 목표독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위 원천텍스트 내용의 사실에만 기초하여 목표텍스트에서 폴 고갱이 테오에게 존대를 사용하는 경어법 번역전략을 사용할 경우, 비존대를 사용한 <사례 3>과 달리 목표독자는 폴 고갱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테오에게 공손 표현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폴 고갱은 나이보다 그들 간의 사회적 신분관계를 더 고려했음을 알 수 있으며, 폴 고갱이 사회적 신분관계를 더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그림을 팔아주고 전시회도 열어주어 자신의 경제력과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래 화상에게 공손을 표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므로 목표독자에게 폴 고갱이라는 인물은 반 고흐와는 달리 실리에 밝은 성격의 인물로 파악될 가능성도 제공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공손을 표하는 모습에서 폴 고갱이 예의가 있는 점잖은 성격의 인물로 파악될 가능성도 제공한다.

위의 <사례 3>과 <사례 4>를 통해 아래와 같은 [표 5]를 얻을 수 있다.

[표 5. 목표독자의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 관계 파악 2]

		〈사례 3〉		〈사례 4〉
<b>화자 ⇒ 청자</b>		테오 ⇒ 폴 고갱	폴 고갱 ⇒ 테오	폴 고갱 ⇒ 테오
<b>경어법 번역전략</b>		비격식체 존대 두루 높임(해요체). (존대)	비격식체 비존대 두루 낮춤(해체). (비존대)	존칭 호칭어 + 합쇼체(하오체, 해요체) (존대)
<b>목표독자의 지식정도 와 관점에 따른 가능성</b>	<b>나이 관계</b>	테오 < 폴 고갱 (텍스트 맥락을 통해 유추)		
	<b>대인 관계</b>	친한 사이 (동생과 형 같은 사이). 수평적 관계		거리감 있는 사이 (직업적 거래 관계). 수직적 관계
	<b>사회적 관계</b>	테오 ≤ 폴 고갱		테오 > 폴 고갱
	<b>고갱 성격</b>	평범하거나 개성 강한 성격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보다 나이관계를 더 중시)		실리적 또는 점잖은 성격 (상대방의 나이관계보다 사회적 신분을 더 중시)

위의 네 가지 사례분석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표 6]도 얻을 수 있다.

[표 6. 목표텍스트의 경어법 번역전략과 그 영향]

화자 ⇒ 청자	ST의 인물 간 나이관계	TT의 인물 간 나이관계	ST의 사회적 신분관계	TT의 사회적 신분관계	TT 대인 관계	경어법 번역 전략	TT 공손 표현
고흐 ⇒ 고갱	고흐<고갱	고흐<고갱	고흐<고갱	고흐<고갱	수직적	존대	비슷
		고흐≥고갱	고흐<고갱	고흐≥고갱	수평적	비존대	
고갱 ⇒ 테오	고갱>테오	고갱>테오	테오≥고갱	고갱<테오	수직적	존대	비슷
		고갱≥테오		수평적	비존대		
테오 ⇒ 고갱	테오<고갱	테오<고갱	테오≥고갱	테오≤고갱	수평적	존대	비슷

[표 6]에서 알 수 있듯, 서로 다른 원천텍스트(ST)라 해도 주어진 동일한 (대 화체) 문장에 모두 공손 표현이 구현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서로 다른 목표텍

스트(TT)들도 경어법 번역전략으로 존대를 사용하든 비존대를 사용하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손 표현이 구현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이라 해도 경어법 번역전략에서 존대를 사용한 경우와 비존대를 사용한 경우, 동일한 각 인물에 대한 성격이나 인물 간의 대인관계 파악에서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즉, 원천텍스트에서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그들의 사회적 신분관계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맥락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목표텍스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사용하는 존대와 비존대의 경어법 번역전략에 따라 목표독자는 동일 인물의 성격이나 그들의 대인관계를 서로 다르게 파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실제 인물일 경우, 존대와 비존대의 경어법 번역전략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즉, 목표텍스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존대를 사용할 경우, 원천텍스트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나 그들의 사회적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목표텍스트의 화자는 예의바른 공손하거나 실리에 밝은 성격의 인물로 파악될 가능성과 함께 이들의 대인관계가 수직적으로 비취질 가능성이 높으며 때에 따라 실제와는 달리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적고 신분관계에서도 낮은 위치의 인물로 파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달리 목표텍스트에서 화자가 비존대를 사용할 경우, 실제로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적고 신분관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독자에게 화자의 나이가 더 많거나 같으며 그로 인해 이들의 대인관계를 수평적으로 해석하여 서로 친한 관계로 볼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목표독자가 청자의 나이를 알고 있을 경우 화자가 평범하지 않은 개성 강한 성격의 인물로 파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 V. 결론

보통 수평적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영어에서는 언어의 사용만으로 그것이 공손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며, 이와 반대로 보통 수직적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한국어에서는 언어의 사용만으로도 보통 그것이 공손을 표현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영어에는 공손을 위한 특별한 문법장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어에는 특별한 문법장치인 경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텍스트의 공손 표현의 (대화체) 문장을 한국어 경어법을

적용하여 번역할 때,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으로 구현할 경우, 목표독자의 지식 정도, 즉 목표독자의 원천문화에 대한 이해나 원천문화의 인물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을 경우, 또는 원천문화에 대한 이해나 원천문화의 인물들에 대해 안다 해도 목표독자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경어법 번역 전략을 구현한 경우와는 달리 목표독자는 각 목표텍스트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나 인물 간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는 여지를 제공받아, 때에 따라 목표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경어법의 번역전략은 번역학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인 오역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논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번역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경어법 적용을 둘러싼 번역전략에 대해, 오역으로 논의하기보다 서로 다른 경어법 번역전략이 야기할 수도 있는 그 영향에 대해, 그 영향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오역에 대한 논의도 번역가의 번역전략에 대해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비하지만 조금 언급해보았다.

## Work Cited

- 강주현 외 21명, 『번역출판』,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9.
- 박우찬, 『고흐와 돈, 그리고 비즈니스』, 서울: 재원, 2010.
- 서정수,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2006.
- 신성림 옮김, 『반 고흐』, 서울: 창해, 2000; Damperat, M & Mathieu, C & None, M. *l'ABCdaire de Van Gogh*, Paris: Flammarion SA, 1997.
- 이은희 옮김, 『반 고흐 vs 폴 고갱』, 서울: 다빈치, 2002; Collins, B, *Van Gogh and Gauguin*, Oxford: Westview, 2001.
- 이종욱 옮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2. 아름다운 영혼 빈센트 반 고흐』, 과주: 한길아트, 2003; Sweetman, D, *The Love of Many Things: Life of Vincent Van Gogh*, Hodder and Stoughton Ltd., 1990.
- 이택광, 『반 고흐와 고갱의 유토피아』, 과주: ㈜아트북스, 2014.
- 정지윤 옮김, 『반 고흐: 고독 속에 피워낸 노란 해바라기』, 서울: 마르니에북스, 2007; Crispino, E, *Van Gogh Firenze*, Milano: Giunti Editore S.P.A, 2005.
- 최승자 옮김, 『빈센트, 빈센트, 빈센트 반 고흐(하)』, 서울: 까치, 1997; Stone, I, *Lust for Life*, London: Mandarin, 1989.
- 편집부 엮음, 『반 고흐 마지막 3년』, 서울: 책생각, 2012.
- Brown, P. & Levinson S.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Collins, B. *Van Gogh and Gauguin*, Oxford: Westview, 2004.
- Goffman, E. *Introduction Ritual: Essay on Face-to-Face Behaviour*,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967.
- Lakoff, R.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1973.
- Stone, I. *Lust for Life*, London: Mandarin, 1989.
- Sweetman, D. *The Love of Many Things: Life of Vincent Van Gogh*, Hodder and Stoughton Ltd, 1990.
- Thomas, J. *Meaning in interaction: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London; New York: Longman, 1995.

**Abstract**

## **Translation Strategies of Korean Honorific System for Polite Expressions: Focusing on (Dialogue) Sentenc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e, Suk Ja**

In this study, some English texts related with the artist Vincent Van Gogh and their corresponding Korean translations are selected to analyse the following with two viewpoints of fidelity for the original texts and target readers: first, what translation strategies of Korean honorific system are used to implement polite expressions of (dialogue) sentences in the originals; and second, for target readers, whether the effects are similar to those of different target texts or not when used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of Korean honorific system for different target texts. From contrastive analyses of the target texts,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teness is expressed all the target texts even if different translation strategies of Korean honorific system are used, but that the character's personality or attitud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uld be different from target texts according to the knowledge level or viewpoint of target readers about people in the original culture of the original texts.

**Key Words**

translation strategies, Korean honorific system, polite expressions, interpersonal relationship, viewpoints.



# 상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한 아동문학의 재번역 양상에 관한 소고

## -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반영도를 중심으로

이 혜 은

### I. 서론

본 연구는 상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한 아동문학의 재번역 현상에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을 접목하여, 재번역을 거치면서 번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양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명확한 변화가 없다면 어떤 유사성을 보이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상위연령층’의 아동이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의 아동을 칭하는 말로 본 연구가 근본적으로 기반을 둔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본 연구의 기반이 된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해당 연구자는 기존에 제시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이 아동문학 번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인지,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학에서도 발견되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성승은(2010)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을 6가지 정리한 후 그중 네 가지의 특성 즉, 1) 언어적 단순화 2)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3) 도착어 규범 중심, 4) 외연화를 연구 범위로 삼고 상위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미 명작 번역서와 동일 작품의 성인대상 번역서 속 문장 단순화와 문화소 번역 방식, 인유의 번역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성승은(2010)은 연구를 위해 세운 세 가지 가설, 즉 ‘아동 대상 번역서가 성인대상 번역서에 비해 문화소 보존 비율과 인유 보존 비율이 낮을 것이며 문장이 더 단순화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두 연령대 간에 실질적인 번역 전략의 선호도 차이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상위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번역 전략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번역 전략이 결국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만을 보이는 것임을 밝혀주는 결과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상위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가 적었다는 점에 주목해 상위연령층 아동을 목표로 번역된 번역서를 다룸으로써 해당 연구 영역에 양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성승은(2010)의 연구에 크게 기반하나 다음의 이유에서 해당 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제외되거나 직접적인 분석틀로 기능하지 못한 특성인 ‘내용의 단순화’를 다룬다. 둘째로, 성승은(2010)이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네 가지를 선택해 이를 엮어 새로운 분석틀을 만들어냈다면 본 연구는 번역의 특성 자체를 분석틀로 삼는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국내 번역학연구에서 재번역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아동문학의 재번역을 연구한 논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아동문학 작가인 로알드 달의 『Matilda』(1988, Puffin Books)를 번역한 『마틸다』 2000년도 본, 2018년도 본 번역서를 각각 TT1과 TT2로 삼고 두 도서의 첫 다섯 장을 비교 분석한다.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정리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중 세 가지를 꼽아 1) 언어적 단순화와 2) 도착어 규범 중심, 3)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을 분석틀로 삼을 것이다. 각각의 분석틀에 따라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문학 번역서 TT1과 TT2는 내용과 문장 구조의 단순화에 있어서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보이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둘째. 아동문학 번역서 TT1과 TT2는 외래어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보이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셋째. 아동문학 번역서 TT1과 TT2는 문화소 번역 전략에 있어서 차이점 또는 유사점을 보이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르고, 유사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연구 질문과 관련해서 일정한 가설을 세우지 않은 것은 재번역 자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지향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경향이 높고 재번역 되는 과정에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므로 재번역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그리하여 세 가지 연구 질문만을 설정하였으며 첫 번째 분석틀인 언어적 단순화로는 내용의 단순화와 문장 구조의 단순화를 다룰 것

이고 두 번째 분석 틀인 도착어 규범 중심으로는 외래어 지양을 고려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화소의 번역 전략 방식을 비교하겠다. 각 분석 틀에 대한 자세한 연구방법은 III 연구 방법 부분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 II. 선행 연구

2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의 핵심 개념인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과 재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와의 연관성을 찾고 연구의 틀을 형성해 간다.

### 2.1.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관련 선행 연구

성승은(2010)은 자신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를 참고해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6가지를 정리한 바 있다. 6가지 특성은 각각 1) 언어적 단순화, 2)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3) 도착어 규범 중심, 4) 외연화, 5) 리듬의 중요성, 6) 성인의 이데올로기 반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단순화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도착어 규범 중심을 원용한다.

첫 번째 분석 틀인 언어적 단순화의 첫 하위분류인 내용의 단순화에 관해서 Steffensen(2003)은 스웨덴의 동화 작가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Mio, min Mio』(1954)를 ST로 삼고 1955년 덴마크어로 번역된 책을 TT로 삼아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번역서에서 분량이 원문보다 줄어들고, 통사 구조와 내용이 단순화되었으며 문체가 전환된 것을 발견했다. 분량이 줄어드는 구체적 사례로는 동격 요소 간 접속사를 생략하여 각 요소를 간결하게 부각하는 수사적 방법인 ‘asyndeton’이 번역서에서는 제거되면서 문장의 길이가 줄어든 예시가 주어졌고 작가의 글쓰기 특징인 풍부한 형상화(imagery)가 간결화되는 예시가 주어졌다. 문체의 전환 사례로는 강한 긍정문이 감탄문으로 바뀐 예시가 제시됐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Steffensen이 관찰을 통해 제시한 단순화 양상 중 예비 조사 시 두 번역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내용의 단순화’를 기준으로 TT1과 TT2를 비교할 것이다. Steffensen (2003: 111)에서 제시된 내용의 단순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a. ST: „Jag hatade tant Edla for att hon sa sa om min far. Kanske

- det var sant, att min mor dog, nar jag foddess. Men jag visste att min far inte var nagon slusk”,
- b. TT: „Jeg hadede tante Edel, fordi hun sagde det om min far. Jeg vidste, at min far ikke var en slubbert”.
- c. Back Translation (BT): „I hated Aunt Hulda for speaking like that about my father. Perhaps it was true that my mother died when I was born, but I knew that my father wasn't a good-for-nothing”.
- d. 한국어 번역 : 나는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아주머니가 미웠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다가 죽었다는 건 진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건달이 아니다.

(Lindgren 1954: 11)

위의 인용 부분에서 볼 수 있듯 (1c)의 밑줄 그어진 절이 TT에서는 완전히 생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내용의 단순화를 절의 단순화로 상정하고 나아가 분석의 편리성을 위해 완전한 문장의 생략을 고려할 것이다. 다음으로 언어적 단순화의 두 번째 하위부류로 문장 구조의 단순화를 선택했는데 이는 문장 길이보다 문장 구조의 복잡성이 가독성에 더 영향을 준다는(Puurtinen, 1998; 성승은, 2010: 38에서 재인용) 기존의 연구에 기반해 분석 틀로 선정했다. 문장 구조와 관련해 성승은(2010)은 종속절과 관계절을 틀로 하여 해당 절들이 독립된 절로 분리되어 번역된 것을 단순화로 정의, 아동 대상 및 성인대상 번역서 내 양상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틀을 빌려와 종속절과 관계절의 단순화 여부를 비교할 것이다. 성승은(2010)은 종속절을 고려할 때 논리적인 주종관계를 분명히 가지는 종속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을 다루기로 하였으며 문용(2008)의 범주를 빌려왔다.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that, wheter, if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if, suppose(조건), because, as, since(이유), so that, in order that(목적), so ... that, such ... that(결과), when, while, as, before, after, till, until (시간) 등

(문용, 2008: 460-478; 성승은, 2010: 121에서 재인용)

성승은(2010)은 텍스트 분석 시 and, but과 같은 등위접속사로 이어진 문장도

나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발견했으나 해당 종류의 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말의 통사 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영어의 문장만을 고려한 것이며, 해당 문장이 번역될 때 우리말 구조가 아니라 제시되는 정보의 순서대로 번역되는 경우만 문장 구조의 단순화로 간주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판단에 따라 종속접속사나 관계사로 이어진 문장일지라도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 자체가 한국어의 주요 통사 구조인 미괄식 문장, 즉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나오는 구조를 가질 시에는 해당 문장이 우리말의 통사 구조가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 분석 틀인 도착어 규범 중심과 관련해서 성승은(2010)은 기존의 연구나 이론을 통해 국내에서 상위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글은 한자어, 외래어 지양과 단순한 문장 구조 또는 단 문장의 사용을 강조함을 알아냈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의 사용 빈도를 비교할 것이다.

세 번째 분석 틀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특성 또한 성승은(2010)의 연구에 기반해 두 텍스트 간 문화소의 번역을 비교하였다. 성승은(2010)은 Aixela(1996)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후, 이해를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영어 관련’ 항목을 추가해 7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성승은(2010)이 제시한 7가지 항목인 1) 지명·기관명, 2) 문학 작품, 3) 역사·성경·신화, 4) 음식·의복, 5) 관습·제도, 6) 영어 관련, 7) 도량형 중 예비 조사 시 거의 관찰되지 않은 관습·제도 항목과 영어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1)번 항목에 Aixela(1996)와 이근희(2003)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인명을 추가하여 총 5가지 항목을 고려할 것이다. 한편, 문화소의 번역 전략에 관해서는 성승은(2010)이 주석 설명과 본문 내 설명, 생략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한 Landers(2001)와 ST 보존, 설명 첨가, TT 표현으로의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제시한 Tymoczko(2007)를 참고해 5가지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두 텍스트의 번역 전략을 비교할 것이다.

## 2.2. 재번역 관련 선행 연구

재번역과 관련해서는 재번역의 정의부터 기존 연구에서 학자들이 제시한 재번역 가설에 이르기까지 박소영(2017)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임순정(2010)은 자신의 논문에서 재번역을 중역이나 원전 번역을 통하여 이미 도착어 국가에 소개된 작품을 새로이 번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재번역은 최초의 번역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Berman(1990)은 재번역이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서 언

급하였는데 재번역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발생한다고 말하였고 ‘the road of experience(경험의 길)’라는 용어를 들어 원천텍스트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Berman은 재번역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함에 대해 논의하며 재번역을 거칠수록 번역본이 “이국화 전략을 취해 원문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Berman, 1990: 1-7; 박소영, 2017: 18에서 재인용)고 말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재번역 가설은 위에서 제시한 Berman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최초의 번역은 목표텍스트 문화에 특정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도착어 텍스트의 규범 중심으로 번역되나 이후의 번역에서는 원천텍스트 중심의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가설이다(Bensimon, 1990; Chesterman, 2000 등; 박소영, 2017: 35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에 반하는 논의들도 있었는데 박소영(2017)이 인용한 Koskinen과 Paloposki(2003)는 최초의 번역이 항상 자국화 특징을 보이는 것도, 이후의 번역들이 모두 이국화 특징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Desmidt는 아동문학 번역의 경우, 초기에 나온 번역이 최근에 나온 것보다 원천텍스트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에 제기된 재번역가설을 뒤집는 논의를 제시했으며 (2009: 671; 박소영, 2017: 37에서 재인용), 직접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도 했다. 이는 문체 측면과 관련하여 마틸다 번역서에서도 실제로 관찰된 점이다. 고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재번역을 통해 가독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또는 충실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번역이 바뀔 것이라는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인 가설을 세우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특정한 가설을 세우지 않고,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정도가 재번역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술하고자 하며 출판사로부터 사전에 얻은 정보와 재번역과 관련해 고려해볼 수 있는 맥락 등을 엮어 양상 변화에 대한 이유를 추론하는 식으로 연구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3장에서는 분석 대상 도서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전 조사 시 두 TT 텍스트인 『마틸다』를 출간한 시공사(시공주니어)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재번역에 관한 답변을 정리한 후,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 분석 틀 각각에 해당하는 연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겠다.

### 3.1. 분석 대상 도서 및 출판사 예비 조사

본 연구에서는 로알드 달의 『Matilda』(1988, Puffin Books)를 ST(Source Text)로 삼고 해당 도서의 국내 번역본인 『마틸다』(2000, 시공사; 김난령)와 개정판인 『마틸다』(2018, 시공사; 김난령)를 각각 TT1과 TT2로 삼아 재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두 번역서는 18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각각 번역되었으므로 연구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역서의 번역가가 김난령 씨로 동일하다는 점은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의 분석 범위로 는 TT1과 TT2 모두 총 스물한 장 분량 중 첫 다섯 장을 분석할 것이고 구체 적으로는 TT1의 경우 총 302페이지 중 64페이지를, TT2의 경우 총 304페이지 중 65페이지를 분석했다.

『Matilda』는 비범한 지능과 초능력을 가진 5살 소녀 마틸다가 자신을 인정하 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하고 억압하는 부모에 맞서, 또 잔인하고 폭군 같은 트 런치볼 교장에 맞서 대항하며 통쾌한 복수를 하고 끝내 행복을 성취해내는 내 용의 아동용 소설이다. 시공사에서 출간된 두 텍스트의 표지를 보면 알 수 있듯 마틸다는 국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번역된 책이며 따 라서 상위연령층 아동에 관해 연구하려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 본 연구 에서 다룬 마틸다 번역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시공사(시공주니어) 측과 이메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결과, 마틸다 TT2(2018)는 원서의 출간 30주년 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게 됐다. 개정판 번역 시 출판사와 번역가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언어적 측면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했고 등장인물의 성 격과 특성을 말투와 인칭대명사 등에 적절히 반영하는 식으로 번역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TT1에서 ‘마틸다의 부모님’, ‘트런치볼 교장 선생님’으로 표현되 던 것이 TT2에서는 인물들의 무자비한 성격을 반영하여 존칭을 제거한 ‘마틸다 의 부모’, ‘트런치볼 교장’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 또한, TT1에는 없던 ‘윤기이의 말’이 TT2에 새로이 생겼는데 이를 통해 원서 내의 유머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재번역 했음을 확인했다. 출판사 예비 조사를 거친 결과, 재번역 현상은 복합적 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맥락 아래 놓여있어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만으로는 재번역에 따른 변화 양상을 모두 논의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알게 되 었다. 조사 내용 중 작품의 여러 함의를 고려하여 등장인물의 말투나 인칭대명 사 등을 수정한 부분과 내용 전개에 핵심이 되는 등장인물 간의 대립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 부분은 재번역을 통해 출판사와 번역가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며 본 연구는 이 점을 고려해 결과 분석 시 특성 반영과 함께 충실성에 대해 적절히 논의할 것이다.

## 3.2. 분석틀

### 3.2.1. 언어적 단순화

언어적 단순화의 첫 번째 하위부류인 내용의 단순화는 Steffensen(2003)의 연구에 기반해 그가 아동문학 번역서에서 발견한 단순화 양상 중 예비 조사 시 마틸다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완전한 문장의 생략’을 기준으로 TT1과 TT2를 비교 분석한다. 따라서 마틸다에서 단어나 구가 생략된 사례도 일부 발견됐으나 이는 주요 논의에서 제외한다. 마틸다 번역서 내용 중 문장으로 고려된 것과 고려되지 않은 것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 문장 생략으로 간주한 예시

- a. ST: “You must be very clever to find a use for something that costs nothing,” she said.
- b. TT1: 생략
- c. TT2: “공짜로 얻은 걸 쓸모 있게 쓸 줄 아신다니, 아빠는 정말 똑똑하세요. (생략)”

(Dahl: 22)

(2c)에서 주어진 문장 뒤에 ‘(생략)’을 적은 이유는 『마틸다』에서 발견된 번역상의 특징 때문이다. 두 번역서 모두 본문이 여러 문장으로 나뉘어 있어도, 그것이 한 인물의 발화면 따옴표 안에 해당 문장들을 묶어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장 부호를 통해 번역서에서도 엄연히 다른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분석 시 개별 문장으로 취급했다.

#### (3) 문장 생략으로 간주하지 않은 예시

- a. ST: … preferably into the next county or even further than that.
- b. TT1: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보내 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
- c. TT2: 되도록 다른 지방이나 더 먼 곳으로 보내 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

(Dahl: 10)

(3a)의 ‘or even further than that’이라는 구가 (3b)에 해당하는 TT1에서는 생략되었으나 TT2에서는 번역되었다. (3c)에 비해 (3b)의 정보 손실량이 막대하지 않음에도 해당 구가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재번역 과정에서 충실성이 강조되었음을 알게 한다. 언어적 단순화의 두 번째 하위부류인 문장 구조의 단순화는 성승은(2010)의 연구에 기반해 종속절과 관계절을 찾은 후 해당 절이 독립되었거나 생략된 경우에 구조가 단순화되었다고 보고, 두 텍스트의 단순화 여부를 비교한다. 추후 상술하겠지만 종속절이 단순화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종속절의 단순화 예시

- a. ST: "Did you know", Mrs Phelps said, "that public libraries like this allow you to borrow books and take them home?"
- b. TT1: “너 이거 알고 있니?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책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빌려 준다는 걸 말이다.”
- c. TT2: “이거 알고 있니? 이런 공공 도서관에서는 책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게 빌려준다.”

(Dahl: 19)

(4a)의 ST에서 종속접속사 that으로 이어진 명사절을 포함한 문장이 TT1과 TT2 모두에서 두 문장으로 나뉘어 번역됨으로써 that 이하의 절이 미괄형 문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절로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절이 단순화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관계절의 단순화 예시

- a. ST: ... there remained a whole lot of small patches of brown leathery stuff that no amount of washing would get off.
- b. TT1: ... 이마 쪽에는 아무리 씻고 닦고 해 봤자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갈색 가죽 조각들이 가득 남아 있었다.
- c. TT2: 그리고 이마 쪽에는 갈색 가죽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아무리 씻고 닦고 해 봤자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Dahl: 36)

(5a)의 ST에서 that으로 이어진 관계 대명사 절이 TT1에서는 우리말의 좌분

지 구조<sup>1)</sup>에 따라 번역된 데 비해 TT2에서는 원문에서 정보가 제시된 순서대로 번역되면서 that 이하의 관계절이 독립된 절로 번역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말의 구조와 다른 구조를 가진 영어 문장이 절과 절로 분리됨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되는 경우를 문장 구조 단순화의 핵심 사례로 간주하므로 원서에 나오는 문장 자체가 한국어의 통사 구조인 미괄형 문장 구조를 따르는 경우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 밖에도 독립된 절로 분리하는 것이 흔히 적용되는 앓는 진주어 that이 포함된 문장, 예비 조사 시 두 텍스트의 첫 다섯 장에서 모두 단순화가 일어나지 앓는 동격의 that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 3.2.2. 도착어 규범 중심

도착어 규범 중심으로는 외래어 지양 여부를 고려하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규정한다. 이때 흔히 음차 번역되며 『마틸다』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차 번역된 고유명사는 논의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6) 음차 번역된 고유명사의 예시

- a. 인명: TT1 - 마틸다, 막시밀리안, 베네사, 워우드 ...  
TT2 - 마틸다, 막시밀리안, 버네사, 워우드 ...
- b. 지명: TT1 - 아일랜드버리 ...  
TT2 - 에일즈베리 ...
- c. 도서명: TT1 - ‘니콜라스 니클비’, ‘올리버 트위스트’, ‘제인 에어’ ...  
TT2 - ‘니콜라스 니클비’, ‘올리버 트위스트’, ‘제인 에어’ ...

(6a)와 (6c)에서 동일한 인명 또는 도서명에 대한 TT1과 TT2의 번역이 일부 다른 것은 외래어 표기법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6b)의 TT1 아일랜드버리는

1) 최기호, 김미형, 임소형(2004)에 따르면(성승은, 2010: 76에서 재인용) 우리말의 구조에는 미괄형 문장 외에도 좌분지 구조가 있는데 이는 문장의 수식 관계가 왼쪽에서 성립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 형용사절이 명사 뒤에 나오는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절이 앞에 나열된 후 명사가 나온다는 것이다.

ST 속 ‘Aylesbury’의 발음을 잘못 인식하여 오역한 것임을 밝힌다. 본 연구는 (6)의 예시처럼 음차 번역된 고유명사는 『마틸다』에 나오는 다른 외래어인 ‘나이프’나 ‘텔레비전’, ‘재킷’ 등에 비해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도 외래어지만 주석이 함께 나온 경우는 외래어로 쓰였다고보다는 원문을 충실히 옮기는 과정에서 아동 독자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문화적 지식을 함양시키려 한 의도가 더 컸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3.2.3.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에 관련해서는 성승은(2010)의 연구에 기반해 TT1과 TT2의 문화소 번역을 비교한다. 문화소의 범위는 성승은(2010)이 제시한 범위 중 예비 조사 시 마틸다에서 관찰되지 않은 ‘관습·제도’와 ‘언어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Aixela(1996)와 이근희(2003) 등에서 제시된 ‘인명’ 항목을 추가한 1) 번 항목을 고유명사로 개명하여 총 5가지 항목 1) 고유명사, 2) 문학 작품, 3) 역사·성경·신화, 4) 음식·의복, 5) 도량형으로 구성된다. 문화소 번역 전략도 마찬가지로 성승은(2010)이 기존의 연구를 엮어 제시한 5가지 전략 분류 1) ST 보존, 2) ST + 주석 설명, 3) ST + 본문 내 설명, 4) TT 표현으로의 대체(이하 TT 표현), 5) 생략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ST + 본문 내 설명 전략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7) ST + 본문 내 설명 전략의 예시

- a. ST: I tell you, I felt exactly like that other brilliant fellow must have felt when he discovered penicillin.
- b. TT1: 그런 느낌은 말이야, 머리 좋은 친구가 무슨 페니실린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 c. TT2: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 좋은 친구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발견했을 때 가졌을 법한 느낌이랄까?

(Dahl: 21)

(7a)의 ST에서 고유명사 항목에 해당하는 문화소 ‘penicillin’이 TT1에서는 보존되었으나 재번역 되었을 때는 본문 내에 ‘항생제’라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 IV.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각각의 분석 틀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 설계에서 설정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다.

### 4.1. 언어적 단순화 결과 분석

#### 4.1.1. 내용의 단순화

분석 결과 TT1과 TT2의 총 생략 문장 수는 각각 10문장과 4문장으로 TT1보다 TT2에서 내용의 단순화가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텍스트의 생략 문장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용의 단순화	TT1 (2000)	TT2 (2018)
TT1, TT2 모두에서 생략된 문장	3	3
TT1에서 생략되었다가 TT2에서 번역된 문장	7	-
TT1에서 번역되었다가 TT2에서 생략된 문장	-	1
총합	10	4

<표 1> 재번역에 따른 내용 단순화 양상 비교

<표 1>에서 볼 수 있듯 두 텍스트 모두에서 생략된 ST 문장이 총 3개였으며 TT1에서 생략된 문장의 반 이상인 일곱 문장이 TT2에서는 번역되었다. 이는 재번역을 통해 원문 내용에 대한 충실성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TT2에서 복구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8) TT1에서 생략되었다가 TT2에서 번역된 문장의 예시
- a. ST: He seemed to have inherited his father's love of crookery.
  - b. TT1: 생략
  - c. TT2: 아빠의 사기꾼 기질을 물려받은 모양이었다.

(Dahl: 23-24)

해당 문장은 사기를 쳐서 중고차를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아빠의 속임수를 마틸다의 오빠인 마이클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문장으로, 마틸다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도덕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표현하는 효과를 가진다. 고로 이 문장을 TT2에서 복구했다는 점은 출판사 예비 조사에서 확인했듯 출판사와 번역가가 재번역 시 등장인물의 성격을 더 살리고자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런 아빠의 계략에 대해 마틸다가 'It's disgusting.'이라며 강한 반감을 표하는 문장도 TT2에서는 번역되었다.

성승은(2010)이 출판사 예비 조사를 통해 한 출판사로부터 확인한 번역 지침에 따르면, 문장이 길거나 수식어 등에 의해 지나치게 길어지는 만연체 문장일 경우 해당 문장은 가독성을 저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마틸다는 재번역을 거치면서 새로이 번역된 문장의 절반 이상이 열 개 단어 미만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문장들이므로 TT2에서 가독성의 저하 또한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TT1에서는 번역됐던 것이 재번역을 거치면서 TT2에서 생략된 경우도 한 차례 있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9) TT1에서 번역되었다가 TT2에서 생략된 문장의 예시

- a. ST: "Don't do that! Let go! You'll take half the skin off my forehead!"
- b. TT1: “으아-아-악! 그러지 말고 그냥 뒤! 내 머리 가죽을 벗겨낼 참이야?”
- c. TT2: “으아아악! (생략) 그냥 뒤! 내 머리 가죽을 벗겨 낼 참이야?”

(Dahl: 32)

이 문장은 마틸다가 아빠의 모자 안에 초강력 접착제를 발라 처음으로 아빠에게 복수를 한 장에 나온 대사로, 머리카락에 붙어버린 모자를 억지로 잡아당기려는 워우드 부인을 향해 워우드 씨가 외치는 대사이다. 재번역됨에 따라 Don't do that! 이라는 문장이 생략되었으나 내용상 다음 문장인 Let go! 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장의 생략과 흔히 결부되는 충실성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두 텍스트에서 생략된 총 문장의 수는 열한 개이며 각 문장을 이루는 단어 수는 다음과 같았다.

단어 수	문장 수
5단어 미만	4
5단어 이상 - 10단어 미만	5
10단어 이상	2
총합	11

<표 2> 생략된 문장의 단어 수

전체 문장 중 두 문장만이 열 개 단어 이상으로 이뤄져 있었고 절반 이상은 열 개 단어 미만으로 구성돼 있었다. 『마틸다』 TT1과 TT2에서 생략된 문장들은 이렇듯 비교적 짧은 문장이었는데, 대부분 예시(9)처럼 앞뒤 문장만으로도 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또는 주변적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 생략이 일어났다. 정리하자면 재번역을 통해 내용의 단순화 특성은 TT1에서 TT2로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향상되었다.

#### 4.1.2. 문장 구조의 단순화

문장 구조의 단순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ST 첫 다섯 장을 살펴본 결과, 종속절과 관계절의 수는 각각 53개와 44개로 총 97개의 절을 발견했다. 그중 TT1과 TT2에서 종속절과 관계절이 독립된 절로 번역되어 단순화된 수는 다음과 같다.

총 절의 수(ST)		단순화된 절의 수(TT)	
		TT1	TT2
종속절	53	9 (17%)	8 (15.1%)
관계절	44	11 (25%)	8 (18.2%)

<표 3> 단순화된 절의 수 비교

분석 결과, TT1과 TT2 모두에서 종속절, 관계절이 단순화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성승은(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사항으로, 성승은이 조사한 아동 대상 번역서에서는 종속절이 17.94%만 단순화되었으며 관계절은 34.52%만 단순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마틸다 ST 속 문장은 성승은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보다 만연체 문장이 상대적으로 적고 절을 이끄는 관계사나 종속접속사 뒤에

나오는 단어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장 구조의 단순화도 내용의 단순화와 마찬가지로 TT1보다 TT2에서 그 비율이 더 낮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단순화 양상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장 구조의 단순화		TT1 (2000)	TT2 (2018)
종속절	TT1에서는 분리되었다가 TT2에서 분리되지 않은 절	1	-
	TT1에서는 분리되지 않았다가 TT2에서 분리된 절	-	1
관계절	TT1에서는 분리되었다가 TT2에서 분리되지 않은 절	5	-
	TT1에서는 분리되지 않았다가 TT2에서 분리된 절	-	1

<표 4> 재번역에 따른 문장 구조 단순화 양상 비교

종속절과 관계절 중에서는 관계절이 TT1에서는 독립된 절로 분리되었던 것이 TT2에서 단순화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다섯 개 절 중 두 개 절의 사례는 해당 관계절이나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 자체가 생략됨에 따라 단순화가 된 사례이므로 정확히 절이 독립된 경우는 다섯 개 절 대비 한 개 절이 아닌 세 개 절 대비 한 개 절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을 논의할 때 Puurtinen(1998; 성승은, 2010: 38에서 재인용)이 문장 구조의 복잡성이 문장 길이보다 가독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과 독자층 고려를 중시하는 아동문학 번역이 언어적 단순화를 특성으로 가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처럼 문장 구조가 재번역을 통해 덜 단순화되면 가독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TT2에서는 특히 관계절의 경우 TT1에서 단순화되었던 절이 TT2에서 단순화되지 않은 사례가 그 역의 경우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절과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의 가독성이 저하되지 않았으며 일부 경우에는 가독성이 TT1보다 더 향상되는 경향도 관찰됐다. 우선 종속절의 경우, TT1에서 분리되었다가 TT2에서 분리되지 않은 절의

개수는 하나였는데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0) TT1에서 단순화되었다가 TT2에서 비-단순화된 종속절의 예시
- a. ST: It was pleasant to take a hot drink up to her room and have it beside her as she sat in her silent room reading in the empty house in the afternoons.
- b. TT1: 자기 방으로 뜨거운 음료를 들고 올라가 텅 빈 집의 조용한 방에서 오후 내내 책을 읽으며 보낸다는 것, 그러다 가끔씩 곁에 있는 뜨거운 코코아를 훌쩍인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 c. TT2: 오후가 되면 텅 빈 집에서 따끈한 음료를 들고 조용한 자기 방으로 올라가, 책을 읽으며 곁에 있는 따끈한 코코아를 훌쩍이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Dahl: 21)

위의 예시를 보면 TT1에서는 as 이하의 절이 ST에서 as로 이어진 종속절의 주절이라 할 수 있는 ‘have it beside her’ 보다 앞에 나오므로써 정보가 제시된 순으로 번역되고 있지는 않으나, ‘텅 빈 집의 조용한 방에서 오후 내내 책을 읽으며 보낸다는 것’이라는 독립된 절로 명백히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TT2에서는 해당 부분이 ‘곁에 있는 따끈한 코코아를 훌쩍이는 것’에 대해 종속되는 절로 번역되었다. 이때 TT2가 아닌 TT1에서 통사 구조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마감되었음에도 TT2 문장의 단어 수가 TT1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T2에서 가독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것이며, 문장의 길이가 문장 구조보다 가독성을 좌우한다고 인식하는 아동에게는 오히려 TT2의 문장이 TT1보다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절을 단순화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얼마나 간결하게 잘 압축하느냐에 따라 가독성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가독성 저하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다.

이러한 결과는 TT1에서 단순화되었으나 TT2에서는 단순화되지 않은 관계절에서도 나타났다.

- (11) TT1에서 단순화되었다가 TT2에서 비-단순화된 관계절의 예시
- a. ST: "The speedometer", Mr Wormwood said, "is run off a cable that is coupled up to one of the front wheels. ...

b. TT1: “미터기를 보면 전선이 두 가닥 있는데, 앞바퀴에 연결되도록 두 개가 쌍으로 되어 있지. ...

c. TT2: “미터기는 앞바퀴와 연결된 전선으로 돌아가지. ...

(Dahl: 24)

TT1에서 that 이하의 절이 독립된 데 비해 TT2에서는 관계절이 유지되었으나 TT2의 문장이 더 간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예시의 경우 단순화라는 요인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TT1에서 원문의 ‘be(is) run off’(돌아가다, 움직이다)가 해석되지 않았고 ‘couple up (to)’(연결하다)를 ‘쌍으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해석함에 따라 문장 자체가 오역되면서 길이가 더 길어진 것도 있다. 이렇게 TT1에서 오역된 내용이 TT2에서 원문에 맞게 번역되고 문장이 간결해지는 양상은 마틸다의 재번역 현상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11)의 예시처럼, 마틸다의 첫 다섯 장에서 구조 단순화의 논의 대상이 된 문장들은 성승은(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보다 상대적으로 문장 길이가 짧았기에 구조 단순화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및 이론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아동문학의 경우, 문장 구조의 단순화가 가독성의 향상과 반드시 결부되지는 않음을 밝혔다는 점만으로도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4.2. 도착어 규범 중심 결과 분석

### 4.2.1. 외래어 지양

TT1과 TT2에 쓰인 외래어의 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31개와 28개로 재번역을 거치면서 외래어 지양 특성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 지양의 변화양상을 더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래어	TT1	TT2
TT1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된 단어	5	-
TT2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된 단어	-	2

<표 5> 재번역에 따른 외래어 지양 특성 반영도 비교

TT1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된 단어는 다섯 개이며 이들은 TT2에서 고유어나 한자어로 전환되었다. 그에 대한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다.

(12) TT1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된 단어

- a. ST: it (was hot chocolate she made, ...)
- b. TT1: 메뉴
- c. TT2: (주로 만들어 먹는) 것

(Dahl: 21)

- a. ST: gangsters
- b. TT1: 갱
- c. TT2: 암흑가의 두목

(Dahl: 32)

- a. ST: orange
- b. TT1: 오렌지색
- c. TT2: 주황색

(Dahl: 50)

(12a)에서 ST의 단어들이 TT1에서는 메뉴와 갱, 오렌지색이라는 외래어로 번역되었다면 TT2에 와서는 메뉴가 고유어인 ‘것’으로, 갱은 한자어 ‘두목’으로 전환되었고 오렌지색은 한자어 ‘주황색’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세 가지 단어 중 특히 ‘갱’은 나머지 두 단어에 비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므로 이를 ‘암흑가의 두목’으로 전환한 사례는 재번역 시 외래어를 순화하고자 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TT1에서는 외래어로 번역되지 않았던 단어가 TT2에서 외래어로 번역된 사례도 있었다.

(13) TT2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된 단어

- a. ST: (American) soap-opera
- b. TT1: 연속극
- c. TT2: (미국) 드라마

(Dahl: 27)

- a. ST: knife
- b. TT1: (작은) 칼
- c. TT2: 나이프

(Dahl: 46)

(13a)에서 ST의 단어들인 TT2에서만 외래어로 번역되었으나 ‘드라마’와 ‘나이프’ 모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가독성을 크게 저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American) soap-opera를 ‘연속극’에서 ‘미국 드라마’로 구체화하여 번역한 것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재번역 과정에서 증시됐다는 점과 외래어를 쓰더라도 출발어 문화권의 개념을 살리는 데 더욱 초점을 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재번역을 거치면서 TT2에서 외래어의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TT1에서 사용된 외래어가 순화되었으며, TT1에서 외래어가 아니었던 것이 TT2에서 외래어로 전환된 예외적인 경우에도 가독성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3.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결과 분석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 분석 틀과 관련하여 ST의 총 문화소 개수를 찾은 결과 72개의 문화소가 발견됐다. 이때 한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문화소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번역 전략을 적용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번역 전략의 개수가 문화소의 개수보다 높게 측정되었음을 밝힌다.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소 번역 전략	ST 보존	ST 보존 + 주석 설명	ST 보존 + 본문 내 설명	TT 표현	생략	총 전략 개수
TT1	46	5	0	24	0	75
TT2	43	5	1	23	1	73

<표 6> 재번역에 따른 문화소 번역 전략 비교

TT1과 TT2 모두에서 TT 표현 전략이 ST 보존 전략보다 적게 사용되었으며 두 텍스트 모두에서 선호된 번역 전략의 순서는 ‘ST 보존’ > ‘TT 표현’ >

‘ST + 주석 설명’으로 같았다. ST 보존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성승은(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번역 전략 선호도의 경우 성승은의 연구에서 관찰된 전략 선호도는 ST 보존, ST + 주석 설명, TT 표현의 순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시간상의 제약 문제로 인해 마틸다의 전체 텍스트가 아닌 첫 다섯 장만을 분석한 데서 야기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듯 <표 6>은 TT1과 TT2의 문화소 번역 전략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두 텍스트 모두에서 ST 보존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본문 내에 국내에서 흔히 음차 번역되는 인명과 문학 작품명, 그리고 작가명이 많이 등장한 것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국내로 번역될 때 TT 표현으로 대체되어 번역된 문학작품은 번역문에서도 TT 표현으로 번역됐다. 한 가지 예외적인 사례로 미국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The Sound and the Fury’는 국내 출판사에서 주로 ‘음향과 분노’(민족문화사: 2000, 북피아: 2006, 동서문화사: 2010 등)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음에도 TT1에서는 ‘침묵과 분노’로, TT2에서는 ‘소리와 분노’로 번역되었다. TT1의 경우, 조사 결과 ‘The Sound and the Fury’가 해당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에 번역의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TT2의 경우에는 재번역을 거치면서 아동 독자들이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도록 2010년대 이후에 번역된 초판본 중 가장 나중에 번역된 책의 제목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두 텍스트 모두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인 TT 표현 전략은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TT 표현으로의 대체를 통해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화소 또는 도량형 항목에 적용되었고 ‘cloakroom’처럼 국내에 정확히 동일한 개념이 없는 문화소는 의미를 도착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양상을 보였다.

#### (14) TT 표현 전략의 적용 예시

- a. ST: High Street
- b. TT1: 찾길
- c. TT2: 중심가

(Dahl: 16)

(14a)에서 ‘High Street’은 특히 영국이나 영연방에서 도시 내에 위치하는 주요한 비즈니스 거리, 즉 가게나 은행 따위가 밀집해있는 거리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충분히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으나 TT1과 TT2 모두에서 해당 단어의 핵심 개념에 주목해 TT 표현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는 번역

시 TT 표현만으로도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로 많이 관찰된 ST + 주석 설명 전략은 두 텍스트에서 모두 총 다섯 번 사용됐는데 그중 세 가지 사례가 모두 음식에 해당하는 문화소였다.

(15) 음식 문화소의 번역 예시

- a. ST: Occasionally she made Bovril or Ovaltine.
- b. TT1: 가끔씩은 보브릴(수프 등에 넣어 섞어 먹는 육류 가공식품:웁긴이)과 오발틴(우유에 타서 먹는 가루:웁긴이)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 c. TT2: 가끔씩 보브릴(찐득하고 짭조름한 육가공 식품으로 보통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타 먹는다:웁긴이)과 오발틴(우유에 타서 먹는 코코아 맛 가루:웁긴이)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Dahl: 21)

(15)에서 음식 문화소를 TT 표현으로 대체하지 않은 것은 출발어 문화를 독자들에게 충분히 소개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되며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화폐 단위인 ‘pounds’도 주석 설명과 함께 보존됐다. 나머지 한 사례는 ST의 ‘Eureka!’가 ST + 주석으로 번역된 사례로, 같은 외래어임에도 본문 속 다른 외래어인 ‘재킷’이나 ‘넥타이’ 등의 단어보다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b)와 (15c)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재번역 됨에 따라 각주의 내용이 더 정확해지고 구체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재번역 됨에 따라 TT1보다 TT2에서 번역 전략이 더 다양하게 채택됐으며 TT1에서 ST 보존된 문화소 중 세 개 항목에 다른 번역 전략이 적용됐다. 이 중 두 가지 항목은 TT1에서 TT 표현이나 ST 보존으로 번역되었다가 TT2에서는 TT 표현으로만 번역됐다. 해당 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6) a. ST: miles
- b. TT1: 킬로미터, 마일 [TT 표현, ST 보존]
- c. TT2: 킬로미터 [TT 표현]

(Dahl: 23-25)

(16b)에서는 ST의 ‘miles’가 ‘킬로미터’와 ‘마일’로 번역된 데 비해 (16c)에서는 모두 ‘킬로미터’로 번역됐다. 남은 한 가지 항목은 앞서 기술한 예시(7)의 penicillin 번역 사례로 TT1에서는 보존되었다가 TT2에서 본문 내 설명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TT1과 TT2 모두 문화소 번역 전략의 선호도가 ‘ST 보존’ > ‘TT 표현’ > ‘ST + 주석 설명’으로 같았으며, 재번역이 되면서 문학 작품명을 보다 최근에 출간된 국내 번역서의 제목으로 전환하고 주석의 내용을 더 구체화했으며 ST 보존하던 문화소에 설명을 첨가, 또는 이를 TT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 독자층을 고려한 흔적이 관찰됐다.

##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에 이르는 상위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한 아동문학 작품의 재번역 현상을 탐구하고 재번역 과정에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반영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알드 달의 『Matilda』를 번역한 2000년도 본 『마틸다』와 2018년도 본 『마틸다』의 첫 다섯 장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 중 1) 언어적 단순화와 2) 도착어 규범 중심, 3)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입을 분석 틀로 삼았으며 각 분석 틀에 해당하는 연구 질문을 설정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연구 질문인 언어적 단순화 특성과 관련하여 TT1과 TT2 모두에서 열 개 단어 미만의 비교적 짧은 문장이 내용의 단순화 측면에서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이 생략되더라도 대개 앞뒤의 문장이 상황이나 인물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다. 재번역에 따른 차이로는 내용의 단순화와 문장 구조의 단순화 모두 TT1보다 TT2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독성이 크게 저하되지는 않았다. 내용 단순화의 경우 기존에 생략된 문장이 TT2에서 절반 이상 복구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중 일부는 해당 문장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인물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장이 아닌 구도 TT2에서 다수 복구된 것을 볼 때 해당 결과는 재번역 현상이 원문에 대한 충실성 향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문장 구조 또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재번역 이후 단순화되는 비율이 줄었으나 문장의 적절한 간결화, 즉 압축을 통해 가독성 상실을 충분히 방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도착어 규범 중심 특성의 반영도의 경우, 외래어 지양 측면에서 외래어의 수가 TT1보다 TT2에서 줄어들어 따라 반영도가 줄어든 것

을 확인했고 이는 독자층을 고려하여 외래어를 순화한 결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옮기기 위해 TT1에서는 외래어로 번역하지 않은 것을 TT2에서 외래어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나이프’나 ‘드라마’처럼 비교적 일상적으로 쓰이는 외래어를 사용하였기에 가독성 저하로 이어지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 질문인 문화소 번역 전략의 반영도에 관해서는 차이점보다 유의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T1과 TT2 모두 선호하는 번역 전략이 ‘ST 보존’ > ‘TT 표현’ > ‘ST + 주석 설명’의 순으로 동일했고 ST 보존 전략은 주로 인물의 명칭이나 문학 작품명, 작가 명에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TT 표현 전략은 ‘High Street’처럼 문화적 배경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중심가’라는 TT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문화소 및 도량형 문화소 등에 적용되었으며 주석 설명 전략은 대부분 음식 문화소에 적용됨을 확인했다. 재번역을 거친 후에는 TT1에서 ST 보존된 문화소 중 세계의 문화소가 TT2에서 TT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설명이 첨가되면서 가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본 연구는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은 작품이 재번역 될 때 반드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식의 일방적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각 특성에 따라 재번역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됨을 알아냈다. 특히 문장 구조의 단순화 결과 분석을 통해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문장 내 종속절 및 관계절을 분리하는 것보다 전체 문장을 적절히 압축하는 것이 가독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가능성을 도출해냈다. 또한, 재번역 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은 각 특성의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충실성 및 가독성 향상과 결부되어 발현된다는 것을 확인해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책의 전문을 분석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결과를 마틸다 번역서 텍스트 전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책 전문을 분석하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경향이나 재번역 양상이 도출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재번역 행위는 대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마련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과 같은 비교적 한정적인 분석 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복잡다단한 맥락과 연관되곤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마틸다 번역서를 예비 조사할 때도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만으로는 설명하기 난해한 요소와 맥락이 다수 파악됐다. 고로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추후 다른 분석 틀을 사용해 재번역을 더욱 다층적이고 다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

요성이 도출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 기존의 국내 번역학 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상위연령층 아동에 초점을 두고 아동문학의 재번역 현상을 연구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을 분석 틀로 하여 번역 특성이 통시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결과라 할 수 있는 재번역에 따른 변화 양상, 즉 재번역 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은 강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기도 하며 무엇보다 충실성과 가독성을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발현됨을 사례와 함께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구 상의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 Work Cited

- 박소영. 「Animal Farm의 영한 번역본에 나타난 재번역 양상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성승은.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인대상 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김서정 옮김. 『미오, 나의 미오』. 우리교육:서울, 2002
- 이근희.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의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2003.
- 임순정. 「문학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Aixela, J. F.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8*. Eds. Roman Alvarez, and M. Carmen-Africa Vidal.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6.
- Bensimon, P. *Presentation*, Palimpsestes 4. 1990.
- Berman, A. *La retraduction comme espace de la traduction*, Palimpsestes 4. 1990.
- Cheserman, A. *A Causal Model for Translation Studies,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 Textual and Cognitive Aspects*. Ed. Maeve Olohan. Manchester, St. Jerome: Routledge. 2000.
- Desmidt, I. *(Re)translation revisited*, Meta 54.4. 2009.
- Koskinen, K., and Paloposki, O. *Retranslations in the Age of Digital Reproduction*, Cadernos de traducao 1,11. 2003.
- Landers, C.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2001.
- Puurtinen, T.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43.4. 1998.
- Steffensen, A. Ø. *Two Versions of the Same Narrative: Astrid Lindgren's Mio, min Mio in Swedish and Danish*, Meta 48,1-2. 2003.
- Tymoczko, M.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Routledge, 2007.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Re-translation Aspects of Older Children-Targeted Literature**

Lee Hye-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changes of children literature's transl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re-translation. Based on Sung Seung-eun(2010)'s study, it considers three characteristics 1) linguistic simplification, 2) compliance with target language's norms, 3) intervention to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source text and target text.

The objects of study are *Matilda*(1988) by Roald Dahl and its two translated texts *마틸다*(*Matilda*) from Sigong publisher which were respectively published in 2000 and 2018. After comparing two translated texts, in terms of linguistic simplification, the rates of content simplification and sentence structure simplification both lowered in re-translated text, and it showed correlation between re-translation and fidelity to source text. Next, in terms of compliance with target language's norms, the rate of loanword usage lowered in general, proving that the reader's age is considered when a work is re-translated. Finally, in terms of intervention to cultural differences, there were similarities more than differences between two texts. The preference of translation strategy in both texts was the same in sequence of preservation, replacement with TT expression and preservation with footnotes.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s of not comparing the whole texts and not completely explaining other subtle, complex aspects concerning translation, it has quantitatively contributed to existing study fields of children literature and its re-translation. And most importantly, this study confirmed that re-translation causes not one-sided changes of translation aspects but

flexible changes, and it also found that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re-translation is to increase both fidelity to source text and readability of readers, not just to increase or decrease translation characteristics.

**Key Words**

re-translatio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ional characteristics



## 2018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1명)	2019년 8월 23일	양재원	개념적 은유이론을 응용한 영어은유 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전지현
문학석사 (8명)	2019년 8월 23일	박가람	김은국의 『순교자』 자가번역과 번역 자율성 연구	정병언
	2019년 8월 23일	김정임	재번역의 차별화 전략 연구 -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	김용규
	2019년 8월 23일	김재욱	프로스페로 되살리기 - 『템페스트』에 나타난 총체의 실현	김용규
	2019년 8월 23일	민순주	영어의 모음변이에 관한 연구	이상도
	2019년 8월 23일	왕정징	Power and the Role of Home in Black Feminism in Toni Morrison's <i>Home</i> and Octavia Butler's <i>Kindred</i>	이선진
	2019년 8월 23일	이서진	영어의 전달 동사 <i>give/pass/deliver</i> 사용에 대한 코퍼스 기반 의미연구	박기성

	2019년 8월 23일	이소정	일상의 소란과 가능성의 공간 - 아놀드 웨스커의 『부엌』	정병언
	2019년 8월 23일	안소연	한국인 초등 영어학습자의 영어 모음발화와 인지 연구	진지현
문학사	2019년 8월 23일	19명	서혜린, 정다운, 정혜린, 정홍교, 조민지, 최지현, 박다운, 김경미, 김성빈, 김소현, 김아진, 김은정, 박지현, 방소휘, 정승희, 박세은, 김연수, 윤장실, 최승주	

## 2019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1명)	2020년 2월 21일	손아영	『모비딕』을 통하여 본 포스트모던 윤리와 불교의 공 사상	이재성
문학석사 (7명)	2020년 2월 21일	이가은	『다빈치 코드』의 번역본에 나타난 번역변이의 비교 분석	정병언
	2020년 2월 21일	하예린	릴리언 헬먼의 『아이들의 시간』에서 레즈비언 우울증과 애도의 가능성	정병언
	2020년 2월 21일	김요한	영어 부정문의 중의성에 관한 이해도 분석	박기성
	2020년 2월 21일	김유경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유의어 구별능력에 관한 연구	전지현
	2020년 2월 21일	왕양	A Comparative Study of Color Term Associations in English and Chinese	박기성
문학사	2020년 2월 21일	36명	윤동현, 정영훈, 김명훈, 유대원, 장한미루, 김태환, 류경석, 염지혜, 오선우, 조현수, 조현재, 최봉조, 권보영, 권현우, 권효영, 김은성, 서지영, 신희세, 이연걸, 이현정, 한범승, 한은비, 박송이, 서민정, 신화정, 유경진, 윤혜인, 정지원, 한승연, 류수정, 옥규영, 이현정, 김화경, 이지운, 정계규, 최영표	

##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3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A4용지로 15-20면 내외, 영문 논문은 500행 이내
4. 제출방법 : ‘아래아 한글’ 또는 ‘한글 97’에 담은 사본 1부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6241)  
『효원영어영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510-1510)

###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제목부터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3. 고유명사는 우리말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분리 인용의 경우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 어문협회(MLA)에서 발행한 *MLA Handbook for Writers for Research Papers*(1995년판)를 따른다. 국내서적이거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필자(또는 저자), 『책이름』, 『책이름』,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5.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국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6. 우리말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으로 된 논문뒤에는 A4 용지 1면 이내의 우리말 요약을 붙인다.
7. 영문 원고와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원고 게재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효원영어영문학

제38호

---

2020년 2월 19일 인쇄

2020년 2월 21일 발행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14-7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naver.com

---

(비매품)